

2012-2014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2012-2014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부산문화회관 전시 & 워크숍 연구자료집

부산문화회관

비매품

93600



9 791195 393114
ISBN 979-11-953931-1-4

2012-2014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부산문화회관 전시 & 워크숍 연구자료집

발간사

윤 순 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대구의 중심, 중구에서 운영하는 봉산문화회관이 2004년 개관한 이후,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꾸준히 자리 매김 해 오면서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그 10년간의 성장을 기념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전시 감상 및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실험 하였던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의 관련 사진 이미지와 내용들을 엮어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전시 연계 워크숍은 현장에서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에듀케이터’를 매개로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가를 이해하려는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은 봉산문화회관에서 기획한 ‘기억공작소’ 전시입니다. 동시대미술의 참예한 현장성을 만날 수 있는 이 전시들은 예술가가 상상, 재생하는 기억과 관람객의 현재가 만나는 접점이 다시 우리 미래의 새로운 기억이 되고,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기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긍정적인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이 ‘기억공작소’ 시리즈 전시 중에서 진행 일정과 여건이 적합한 안창홍, 김구림, 김주연, 장준석, 김희선, 김영진, 정용국, 하광석 작가의 전시를 연계 전시로 선택하고,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의 의의는 대중과의 소통에 관한 실험,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소통 실험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료집의 구성은 전반부에 2014년도 워크숍을 담고, 후반부에는 2013년과 2012년도 워크숍의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3년에 걸쳐 매년 2~3명의 예술가를 연구해 온 이 워크숍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동시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받을 일입니다. 대다수의 참여 청소년들이 이 워크숍을 통하여 ‘에듀케이터’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에듀케이터의 입장에서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타인에게 자신이 감상했던 작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민에 앞서 동시대 예술가와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전시된 작품의 일부를 따라서 제작해 보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자산으로써 ‘청소년 에듀케이터’는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까지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에듀케이터’라는 키워드로 동시대미술의 소통 장면을 기록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전시와 워크숍 진행 과정을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도 이 자료집에 실린 워크숍 내용과 자료 이미지 등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동시대미술의 소통 방식을 설계할 소중한 자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예술인들과 관람객들이 봉산문화회관 전시와 프로그램에 애정을 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어린 눈으로 응원해 주시길 기대 하며,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지원하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C o n t e n t s

005	발간사
008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에 대하여
012	2014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014	안창홍展 워크숍
026	김구림展 워크숍
038	청소년에듀케이터 활동 페이지
042	설문조사
044	2013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046	김주연展 워크숍
056	장준석展 워크숍
068	김희선展 워크숍
080	청소년에듀케이터 활동 카드
084	설문조사
086	2012 청소년예술공작소 프로젝트
088	김영진展 워크숍
100	정용국展 워크숍
112	하광석展 워크숍
124	청소년에듀케이터 활동 카드
128	설문조사
130	보도자료 2014 ~ 2012

2012-2014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이 자료 집은 '2012 청소년예술공작소 프로젝트' 에서부터 '2013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와 '2014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기획 전시 '기억공작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비롯한 전시 작품 및 예술가를 이해하기 위한 감상 활동과 작품 제작 체험 활동, 그리고 에듀케이터의 입장이 되어 전시와 예술가를 소개하는 체험 과정 등 워크숍 진행의 전체 과정들을 사진 이미지와 텍스트로 기록하여 엮은 것이다.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의 배경과 진행 방향, 의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억공작소.art」

먼저, '기억공작소.art'의 의미는 다양한 동시대 시각 예술 'art'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시·공간의 예술 사태가 미래에도 기억되기를 기원하는 전시 설계이다.

봉산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전시실은 대구 지역 전시장들 중에서도 꾸준한 전시와 좋은 작품들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공공 예술 지원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제4전시실 '기억공작소'를 비롯한 5개의 전시실에서는 동시대 시각 예술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 정희욱, 홍현기, 최병소, 이건용, 정병국, 김호득, 이명미, 류재하, 김성수, 임창민, 오상택, 임현락, 배종현, 정은주, 이지현, 김영진, 정용국, 하광석, 윤영화, 박종규, 유영환, 이기철, 김주연, 장준석, 안규철, 김희선, 권부문, 송광익, 안창홍, 이강소, 박현기, 김구림, 권오봉, 김서규, 심준섭 등의 작가가 전시를 했었고, '유리상자-아트스타'라는 이름으로 실험성 강한 젊은 예술가들의 설치 미술이 선보이기도 한다. 이 '유리상자-아트스타' 전시 공모전을 통하여 소개되었던 하지원 & 이소연, 김지훈, 이영희, 이장우, 정민제, 한유민, 정세용, 신경애, 강윤정, 조용호, 김정희, 권남득, 허남준, 로리킴, 이상현, 정재훈, 하원식, 정은기, 손영복, 김소영, 김현, 김미련, 이준욱, 김흥기, 장미, 김철환, 강민정, 조경희, 이시영, 김승현, 정기엽, 최수남, 박정현, 권재현, 이지영, 김안나, 윤동희, 백장미, 신강호, 전새봄, 이재호, 서상희, 우재오, 이소진, Romy Achituv, 배문경, Rohan, 서성훈, 정혜련의 작품 등은 설치 미술 분야 동시대 시각 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 외 '영상 파티 자연을 그리다', '빛으로 그린 도시인의 꿈과 삶', '미술 놀이-생일 이야기 박지현', '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 '도시 디자인 상상 프로젝트-도시유희', '오픈 스튜디오 페스티벌-메이드 인 대구', '도시 작은 문화 살리기 프로젝트-유리상자', '미술 창작 스튜디오 네트워크', '미술-사람을 보다', 'Inside Out-현대미술을 들추어 보다', '꿈꾸는 카메라 in 잠비아 프로젝트 대구', '공연장로비에서 만나는 미술', 'GAP', '가창 해외 작가 레지던시', 'be anda; 이름 없는 땅으로', 'Hello! Contemporary Art-실험정신 1978로부터', 'Hello! bongsanart.org 2004~2014' 등의 전시도 동시대미술을 소개한 중요 전시로 기억되고 있다. 이처럼 봉산문화회관의 기획 전시는 기본적으로 동시대미술을 소개하는 차원이지만, 동시에 감상과 이해를 위한 예술 교육 장치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기획 전시의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시민 참여 워크숍과는 별도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에 다양하고 매력적인 감상 프로그램 개발 및 동시대미술 체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예술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미숙아 놀자! 예술 아카데미', '카와타츠요시 신경애展 & 워크숍', '강윤정 신경애 카와타츠요시展 & 워크숍', '강대영 리우 이상현展 & 워크숍', '이상현 김효선展 & 워크숍', '배종현 임창민展 &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강윤정 신경애 이시영展 & 워크숍', '하광석展과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리우 신경애 이화전展과 함께 예술가처럼 생각하기' 등이 그것인데, 이 워크숍 프로그램들은 전시와 작품, 작가의 태도를 이해하려는 감상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가족 단위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위에 언급한 동시대미술 관련 태도와 기획 프로그램들의 지향성을 예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생각으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예술가의 태도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art' 중에서 교육적 안정성을 신뢰받고 있는 '기억공작소' 전시를 주목하게 되었다.

「청소년에듀케이터 WORKSHOP」

전시는 큐레이터가 만든다. 미술관에서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연구·조사하며 소장품을 관리하는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만든다면, 이 전시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에듀케이터(Educator)가 있다. 작은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는 이 둘을 분리해서 운영하기 어렵지만, 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전시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여 관람객의 일상에 그 가치가 내재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에듀케이터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예술 교육에 대한 이 같은 주목은 '청소년에듀케이터' 프로그램을 계획하기에 이르렀고, 교육학과 순수 미술, 디자인을 전공한 현직 예술 교육 강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선, 동시대미술가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에듀케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감성·EQ발달 및 문제의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다. 일반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보다 전문적이고 예술계 현장 중심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의 합리적인 사고 활동뿐만 아니라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방법과 주제를 다루기 위해 동시대미술의 참여한 현장인 '기억공작소' 전시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봉산문화회관의 '기억공작소' 전시는 손색없는 동시대미술의 교육 현장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각 전시마다 관람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술계의 다채로운 주제와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억공작소' 전시를 연계하려는 제안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미술 현장의 교육 실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칭으로 ‘에듀케이터’라 칭한다면, ‘청소년 에듀케이터’는 학교나 가족 구성원에게 미술 정보와 기술을 전하고 스스로의 잠재적인 예술 교육 능력과 자질을 발견하는 등 교육적 영향을 주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의 이름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는 동시대미술계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기억공작소 전시를 통하여 미술과 미술가를 만나고, 주변 구성원에게 전시의 감상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 활동을 체험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만약, 전시장을 찾아온 청소년이 예술가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가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감흥을 타인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예술적 사고로의 확장이 더욱 빈번해지는 사태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에듀케이터 프로그램의 기본 의지는 예술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술 작품의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 제작 과정 속에 숨겨져 있으며, 제작 과정은 예술가의 생각과 태도에 의해 설계되기 때문에 예술가의 행위 결과인 작품을 살펴보고 그 제작 과정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술 소통 행위가 된다. 예술가의 태도 중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도출된 새로운 방안들의 현실화를 시도하려는 체득된 습관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예술가의 태도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듀케이터’ 워크숍 프로그램은 예술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잘하기 위한 예술 감상과 소통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의 권리로 예술을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시와 밀착된 워크숍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몇 명의 전문 에듀케이터가 방향성을 지닌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전시 연계 워크숍의 시작은 동시대미술 창작의 매력을 체험하는 워크숍 활동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몇 명의 현직 예술 교육 강사, 즉 에듀케이터에게 우리 기관에서 이미 진행해 오던 기획 프로그램인 ‘예술 아카데미’와 전시 연계 시민 참여 ‘워크숍’을 소개하고, 기억공작소 전시 참여 작가 안창홍, 김구림, 김주연, 장준석, 김희선, 김영진, 정용국, 하광석의 전시와 연계하는 워크숍을 함께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서부터였다. 이 제안을 할 당시의 우리 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한 상태 이고, 서로에게 실험적이고 열성적인 자세를 요구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예술가의 생각을 쫓아가는 워크숍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모두들 열정적인 긍정으로 임해 주었기에 소정 所定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의 필요성을 공감 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예술 교육 방법의 연구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 확장 가능성에 주목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 교육 분야의 새롭고 향상된 성과들을 기대하게 한다.

전시와 워크숍을 함께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는 우리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예술 감상 방법으로 이해된다.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 연계 워크숍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예술의 가치를 수용하는 행위, 즉 전시와 워크숍을 포함한 예술과의 소통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관람자의 태도와 예술가의 생각을 따라 이행하고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한편, 이 워크숍 참가자들은 전시 참여 작가를 따라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예술 작품에 담긴 원리와 지식을 발견하는 특별한 탐구 과정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전시별 예술가의 생각을 이해 하려는 워크숍의 주제는 동시대미술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술의 시작 단계에서 작용할 것으로 짐작되는 필연과 논리들은 예술가들의 실험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축적되는 살아 있는 경험으로서 예술 작품이 된다. 이러한 예술의 시작, 진화와 융합과 변형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 워크숍 활동의 또 다른 매력일 것이다. 다시 말해, 워크숍은 새로움을 지향하는 미술 표현과 인접한 경계 영역의 지식과 연계, 협업하고 전체적인 시야에서 사고 思考 증진을 실험하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인간적 대응을 고려하는 예술의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참조하는 우리들 자신의 공부 工夫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나누려는 이러한 워크숍을 통하여 인간이 지닌 잠재력의 실현을 옹호하며 경험 하는 장치로써 예술 감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하고, 동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예술 속에 서로 다른 여러 지식들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의 해결 과정과 그 흔적이 예술 작품으로 된다는 사실과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진술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사실들을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에듀케이터’ 워크숍이라는 흥미로운 매개체로 동시대미술의 소통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그 진행 과정들을 기록하여 자료집으로 정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자료집에 실린 다양하고 실험적인 워크숍 내용들이 동시대미술의 소통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정 종 구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2014

2014 봉산문화회관 기획
큰 언덕 큰 나무 창조교실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일 정 2014년 3월 26일 ~ 12월 2일
장 소 봉산문화회관 제4전시실 및 강의실

전시 작가
안창홍(화가)
김구림(설치미술가)

에듀케이터
전혜주(책임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대표)
이미지(책임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대표)
노성경(주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재희(주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이기선(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석아름(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지희(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연구원)
임은경(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시은(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인숙(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연구원)
임민영(강사, 디자이너 & 예술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기록 및 촬영
임민영(강사, 디자이너 & 예술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시 연계 에듀케이터 워크숍 운영(체험인원:총 381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안창홍展 총 207명	4. 15(화)	4. 17(목)	4. 22(화)	4. 24(목)	4. 29(화)	5. 1(목)	5. 8(목)
	13:00~16:00 동덕초등 6년 24명	13:00~16:00 동덕초등 6년 23명	13:00~16:00 남산초등 5년 24명	13:00~16:00 남산초등 5년 24명	13:00~16:00 남산초등 5년 23명	13:00~16:00 남산초등 5년 45명	13:00~16:00 남산초등 5년 44명
김구림展 총 174명	9. 16(화)	9. 19(금)	9. 23(화)	9. 26(금)	9. 30(화)	10. 7(화)	10. 17(금)
	09:00~12:00 대구초등 4년 18명	09:00~12:00 대구초등 4년 37명	09:00~12:00 대구초등 6년 25명	09:00~12:00 대구초등 6년 23명	09:00~12:00 대구초등 5년 22명	09:00~12:00 대구초등 5년 25명	09:00~12:00 대구초등 5년 24명





안창홍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안창홍展 남과 북

전시기간

2014. 3. 26(수) ~ 5. 25(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3. 26(수)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4. 30(수) 오후 5시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4. 4. 15(화) ~ 5. 8(목) 제4전시실 및 강의실

안 창 홍 Ahn, Chang hong 安昌鴻

밀양 출생

• 개인전

- 2014 기억공작소 〈안창홍-남과 북〉(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3 제25회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 안창홍 작품전(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안창홍 작품 '발견' (대안공간 루프, 서울)
- 2012 제30회 안창홍 작품전 '아리랑' (떼이지 갤러리, 서울)
제29회 안창홍 작품전 '구리에서 고비까지' (갤러리 룩스, 서울)
- 2011 제28회 안창홍 작품전 '인도 여행스케치' (공간화랑, 부산)
제27회 안창홍 작품전 '불편한 진실' (가나화랑 초대, 서울)
- 2010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 초대전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대구) 등
개인전 34회

• 수상

- 2013 제25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
- 2009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대구광역시)
- 2001 제1회 부일미술대상 수상(부산일보사, 부산)
- 2000 제10회 봉생문화상 전시부분 수상(봉생문화재단, 부산)
- 1989 카뉴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카뉴, 프랑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49-4

999ahn@hanmail.net

www.ahnchanghong.com

기억공작소 『안창홍』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쳐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남과 북」

안창홍의 전시를 찾은 관객들은 보통, 당혹스러운 장면 속 인물의 냉소적 시선에 사로잡히는 사태事態를 기대하겠지만, 이번엔 전시되는 드로잉 속의 인물들은 서로에게 시선을 마주하고 있어 다소 싱겁다. 벽면 가득히 세로로 길게 설치된 드로잉 속, 남자와 여자 인물의 시선은 작가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선과는 아랑곳없이 서로에게 대항하듯 마주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 관객의 시선은 스스로의 기억을 깨우고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질문을 하려 들겠지만, 작가의 설정은 어설픈 정황 설명 대신 오히려 관음적인 욕망이 섞인 관객의 시선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해 온 안창홍 작가의 주요 대표작 60여 점의 스틸 이미지를 비디오 설치 형식으로 보여 주는 반대편 벽면의 영상 아카이브와는 달리 광목 천 위에 검은 색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 ‘남과 북’은 소박하고 담담한 걸개그림 형태로 5미터 높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마주하기이다. 얼룩무늬 군복 상의만을 어깨에 걸친 여자의 자연 그대로 알몸과 그녀의 배꼽 아래에 장식한 작은 크기의 파란색 문신文身, Tattoo은 약자로서 거친 세상을 힘겹게 살아 내고 있는 보통 인간의 생생한 존재감과 더불어 합의合意할 수 없는 원가에 반항하여 맞서는 당당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맞은편에 서서 여자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마주하고 있는 남자는 웃통을 벗고 얼룩무늬 군복 하의를 입고 있다. 슬리퍼를 끌고 있는 여자와는 다르게 남자는 제대로 갖춘 신발을 신고 있으며, 체격이 좋은데다가 양팔과 배에 넓고 화려한 문신을 새기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고 대등하게 서 있는 당당한 자세이지만 남자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듯하며, 만약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라면 아마도 남자 쪽일 것이다. 한편, 이 드로잉과 일정 거리를 둔 벽면에는 다소 불편해 보이는 ‘개’ 그림이 있다. 소외되어 방치된 듯 바짝 마른 개는 ‘남과 북’ 드로잉을 보는 관객의 진실한 해석을 증용

하듯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짐작컨대 이 드로잉은 우리 개인의 삶과 지난 역사 그리고 인간 존재와 욕망, 기억에 대한 환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을 위해 마련한 이곳, 기억공작소에서 작가의 태도를 다시 엿보게 한다.

「태도, 關係를 바라보게 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안창홍의 작업은 동시대인간의 사건事件들을 담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불편한 현실적 삶과 그 당당한 진실을 작품 속에 담아 내면서 ‘노골적인 알몸’, ‘즉물적인 몸’, ‘현실 삶을 담은 몸’ 등 인간 존재와 심리를 주목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가 일관되게 이해하는 안창홍의 ‘태도態度, attitude’가 갖는 기능은 ‘권력’과 ‘지배’에 대해 이미 익숙해진 허위적 ‘합의’를 부정하고, 가려진 다른 존재 즉, 삶을 증거 하는 ‘상처’와 ‘모순’의 가시화를 겨냥하며 냉소하고 ‘치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을 우리들 역사 속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기억되게 하려는 작가의 태도는 관객으로 하여금 불신의 사회적 관계關係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작가는 주로 ‘몸’을 통하여 ‘관계’를 말한다. 성완경에 따르면 대체로 작가의 작업 속에서 세계 관계는 ‘고통을 주는 자’와 ‘고통을 받는 자’ 간의 몸을 통해 읽힌다. 그리고 작가는 그 세계의 한구석에서 이러한 비극을 엿보면서 역사나 인간에 대해, 그 폭력과 황폐함에 대해 증오로 맞서고 침 뱉기를 서슴지 않는 존재로 설정된다. 안창홍은 화면 속 등장인물과 세계, 그들 서로, 예술가와 대상 사이의 끊임없는 저항 혹은 공격성에 주목하고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관계의 매력을 다루는 것이다.

작가의 태도는 가식이 없는 생존의 본능으로서 ‘야생’, 가려진 원초적 ‘힘’의 관계에 대한 제안일 것이다. 그는 2013년 이종섭 미술상의 수상 소감에서 “미술의 힘이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절대적 힘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치고 피폐한 영혼을 일깨우고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출구로 인도하는 역할쯤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또, 2001년 월간미술과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방식은 집단이나 권력에 안주하거나 움츠러들어 던져 주는 먹이나 받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끝없는 치열함으로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다.”라고 밝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란 구원이자 절망이고, 순결이며 간통이고, 단맛 나는 빵이면서 배설이기도 한 극과 극의 존재이다. 해방과 자유인 동시에 감옥이며 저주이고 자기 성찰의 회열, 고독, 반역이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나와 타자가 만나는 장소이며, 지적 여행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다. 그리고 삶이자 죽음인 동시에 행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때론 스스로 자극 받고 채찍질하며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세상에 대한 공격적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다. 나에게 있어 그림이란 이런 욕구를 분출시키는 도구이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태도를 서술했다.

‘남과 북’은 작가의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야생’을 기억하는 담담한 미술 ‘태도’이며, 너무나 익숙해진 사회적 ‘합의’ 관계에 반항하는 또 다른 ‘낯선 기억’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환기시키고 있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함께하는 사람들”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은 한국의 보통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관계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작품은 평범한 개인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속 인물표현에 대해 탐색해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와 감정을 새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경험해 봅니다.



진행과정

[작품 알아가기]

1. 전시 개요 설명 및 일정 공지
2. 전시관람 예절과 주의사항 안내
3. 작가 소개 및 전시 감상
4. 강의실로 이동
5. 영상자료를 통해 작가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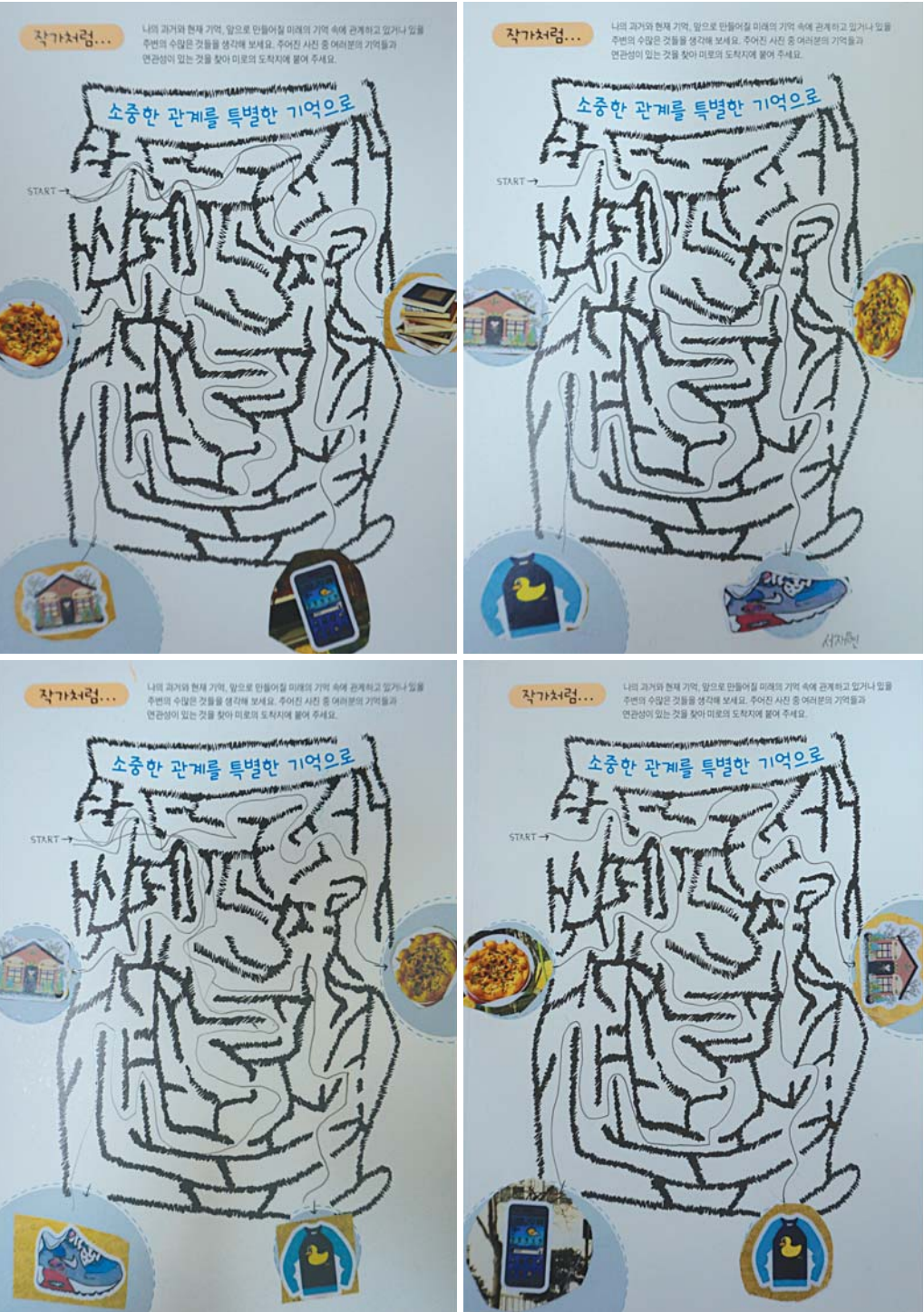
[체험활동 - 관계의 시작]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지 생각을 하고 나의 관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준비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사진과 다른 친구의 사진을 활용하여 인물그림을 그려 꾸미기를 하고, 그 인물그림으로 관계 맺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사진과는 다르게 다양한 색으로 옷에 무늬도 넣어보고 선글라스도 씌워보고 재미있게 꾸밈으로써 딱딱하지 않은 자유로운 감성을 표출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실제 관계와 작품에서 떠올렸던 관계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소중한 관계를 특별한 기억으로]

안창홍 작가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의 기억,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의 기억 속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 있을
사물 또는 장소 등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체험작품 감상- 관계의 마무리]

앞서 만들었던 나와 친구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조별 친구들과의 관계로 까지 확장하는 활동을 한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지 각 조원들이 스스로 이야기 나누며 작품을 완성한다.



Installation view

컬레 Wiping Cloth, 가변설치, 일본 도쿄 시로파화랑 작품 作, 1973(2014년 재현)

1/24초의 의미 The Meaning of 1/24 Second, Single channel, Digital video, 8min 51sec, 1969



김구림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김구림展 **Wiping Cloth**

전시기간

2014. 8. 27(수) ~ 11. 2(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8. 28(목) 오후 6시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4. 9. 16(화) ~ 10. 17(금) 제4전시실 및 강의실

김구림 Kim, kulim 金丘林

상주 출생

•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

2014 기억공작소 〈김구림-Wiping Cloth〉(봉산문화회관, 대구)

김구림전(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서울)

사라진 아름다움(플레이스막, 서울)

홍콩 아트바젤(홍콩)

2013 김구림 초대전〈잘 알지도 못하면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A Sigger Splash〉테이트 모던(런던, 영국)

2011 〈추상하라〉(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0 타이완 국제실험영화제(타이완)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팔방미인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9 퍼포밍 더 시태원헨/독일, 밀라노/이태리, 파리/프랑스 순회

2008 〈Now Jump〉백남준아트센터 개관전(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07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2 김구림의 작은 회화전(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2000 〈현존과 흔적〉문예진흥원 초대전(문예진흥원, 서울)

외 개인전 및 단체전 다수

• 수상

2006 제7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

2014 아트투데이 문화대상 수상 외 무용, 연극미술상 수상

기억공작소 『김구림』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걸레 1973」

1973년 봄, 대구백화점 전시실. 한국현대미술전이 열리는 전시실에는 ‘김구림’이라는 작가 이름표만 바닥에 붙어 있지 그의 작품은 볼 수 없었다. 최병소崔秉昭 1943생는 기억공작소 ‘비디오 아티스트 1978’ 작가 워크숍에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때, 그 작업은 파격적이고 실험적이었 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술’인거죠. 전시실에서 우연히 만난 황현욱黃鉉旭 1948생 작고으로부터 ‘바닥을 마른 천으로 닦고, 그 흔적인 빈 바닥을 전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그 작업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김구림과 인터뷰에 의하면 그 당시의 작업이 ‘걸레’였으며, 비슷한 형태의 설치 작업을 같은 해 일본의 시로따 화랑에서도 발표했다고 한다. 시로따 화랑의 전시실 바닥이 시멘트와 자갈 쇠석을 섞어서 만든 인조 대리석이어서 청소가 쉽지 않았고, 거무스름하게 때가 낀 바닥의 일부를 작가가 흰 천으로 계속해서 닦았더니 하얀 천이 시커멓게 변하고 닦은 바닥 부분은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드러났으며, 닦는 행위 이후에 걸레를 그 자리에 그냥 놔 둔 작업이라고 한다.

그 후 41년의 세월이 흐른 후, 새로운 장소에서 재현되는 동일한 개념의 ‘걸레Wiping Cloth’ 작업은 바닥에 묻어 있던 이물질과 먼지가 닦이면서 바닥이 처음의 모습대로 깨끗해지고, 깨끗하던 흰 천이 더러운 걸레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사건 전후의 현재와 과거를 반전시켜 시간의 현재성을 주목하고, 사물의 본질을 보려는 작가 행위와 ‘음과 양’의 세계 운용을 가시화 한다.

「전위와 실험의 태도, 기억하는」

김구림은 1969년을 기점으로 파격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킨 미술가로 기억 된다.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방식과 파격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던 그의 ‘태도’는 평면, 설치, 영상, 퍼포 먼스뿐만 아니라 무대미술, 공연 연출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선구로 활동해 오며, 기성既成을 끊임없이 해체해 온 한국 아방가르드, 즉 전위와 실험으로 집약 할 수 있다. 그해 그는 한국 최초의 실험 영화 ‘1/24초의 의미’와 최초의 메일아트 ‘매스미디어의 유물’을 발표했으며, ‘앵글 562’를 연출하고 ‘바디페인팅’을 발표했다. 또 다음해인 1970년에는 한국 최초의 대지예술인 ‘현상에서 흔적으로’를 발표하였으며, 1970년에 결성한 제 4집단의 통령, 아방가르드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70~80년 대의 개념미술을 거쳐 최근에는 음양사상을 근간으로 다양한 세계의 조화와 통합을 모색하는 작업을 펼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구림의 전위와 실험의 태도가 느껴지는 ‘걸레Wiping Cloth’ (1973)를 재현한 설치 작업 1점을 중심으로, 16mm필름으로 제작한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 (1969)와 비슷한 구성 방식의 최근 비디오 작업 ‘음과 양Yin and Yang’ (2012)을 싱글채널 영상으로 선보인다. 또한 한국 실험미술과 작가의 태도를 기억할 수 있는 주요 대표작 80점의 스틸 이미지와 작가 인터뷰를 비디오 영상 형식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바닥에 설치한 ‘걸레’ 작업은 김구림의 작업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작가의 60~70년대 작업은 “회화가 아닌 회화, 즉 그리지 않은 회화를 만들어 보려는 새로움을 향한 실험”이었으며, 그가 통령으로 있었던 제4집단의 선언문에 포함된 “무체사상-형태가 없기에 자유롭고, 우주를 아우르기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상”과 후기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음과 양Yin and Yang’을 연결하는 실험 태도의 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작업으로 ‘걸레’ 작업의 상징성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 태도는 이미 죽은 기성 언어보다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생을 사는 현재의 사물과 이미지를 통하여 동시대의 삶, 본능적 상상력, 잃어버린 감수성, 진정한 인간 생의 본질을 새롭게 기술해 가는 기억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소환과 동시대적 재구성으로서 이번 전시 ‘걸레’는 그 같은 작가의 기술 기억이고, 원래의 모습을 찾고 기억하려는 ‘음과 양’의 운동일 것이며, 또 다른 ‘낯선 기억’으로서 우리들 미래의 어떤 순간과도 이어지는 우리들 태도의 환기 장치이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시간의 흔적 찾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변화를 물질적으로 표현한 김구림 작가의 작품을 감상, 표현, 에듀케이터 활동의 과정으로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작가의 실험적인 다양한 시도를 작가적 시선에서 함께 참여해 보면서 예술에 대한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발상을 시도해 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진행과정

[작가 알아가기]

1. 인사하기 및 전시 개요 안내
2. 활동지를 통해 작가에 대해 미리 알아 두기



[표현활동 I - 사전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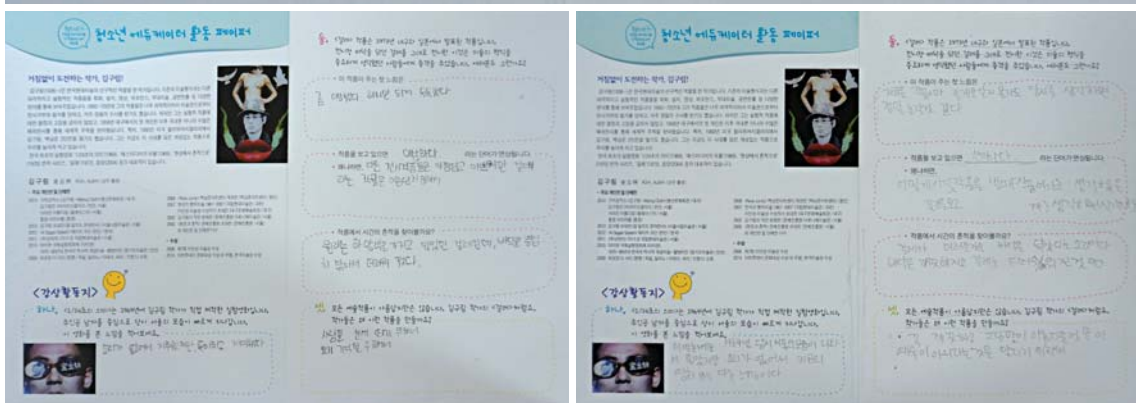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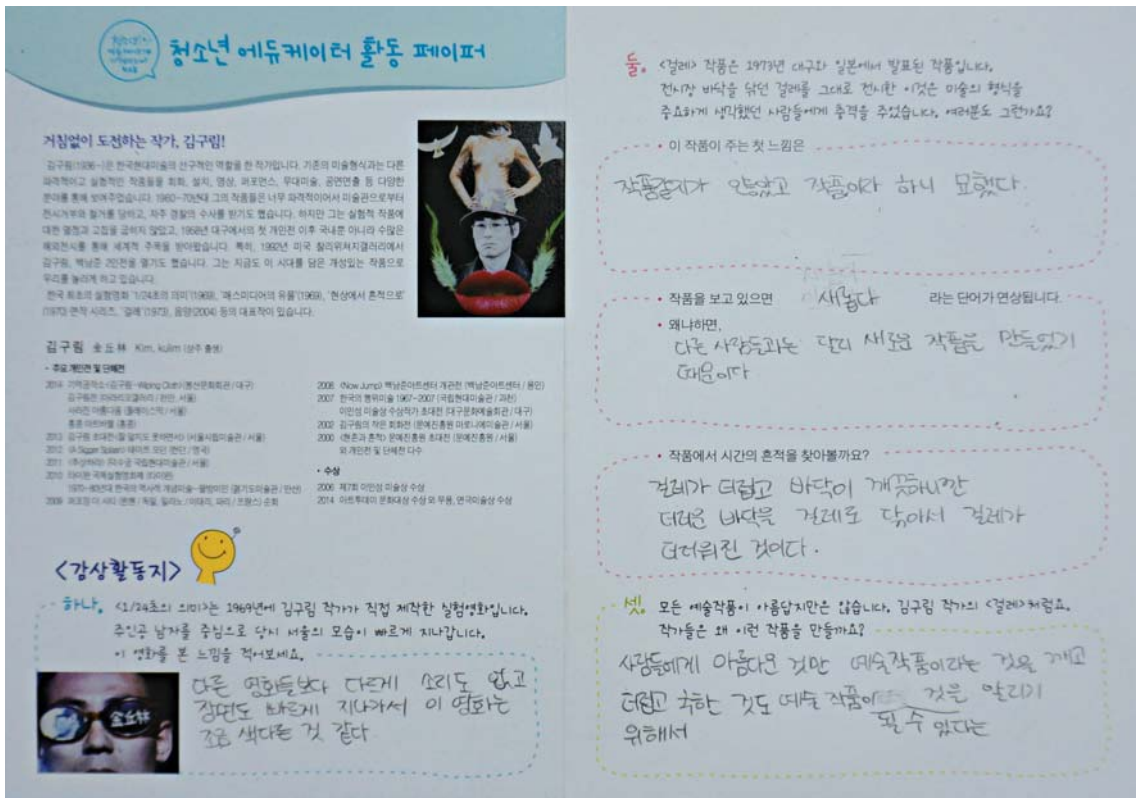
‘시간의 흔적, 처음의 모습을 찾아라’ 미션을 수행하기 전, 미션 퍼즐 판에 색 먼지를 덮듯이 색연필로 칠한다. 순서에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 먼지가 쌓이듯 색연필을 이용하여 표현을 해 준다. 아이들이 색 먼지를 덮기 전,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메시지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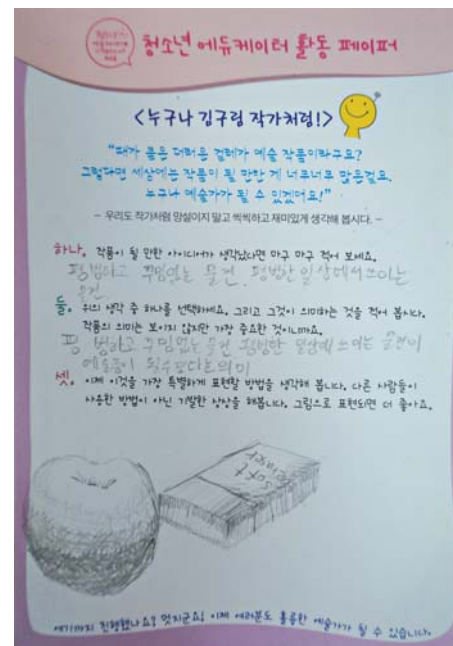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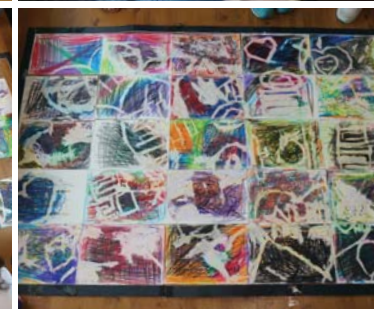
[작품감상 및 감상활동지 작성]

1. 전시실로 이동하여 김구림 작가의 작품 감상하기
2. 감상 활동지를 통해 작가의 작품 의도 및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가에 대해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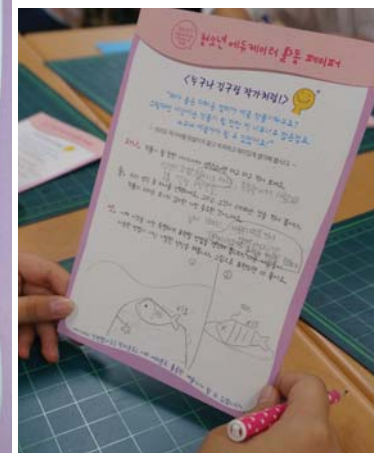
[표현활동Ⅱ - 시간의 흔적, 처음모습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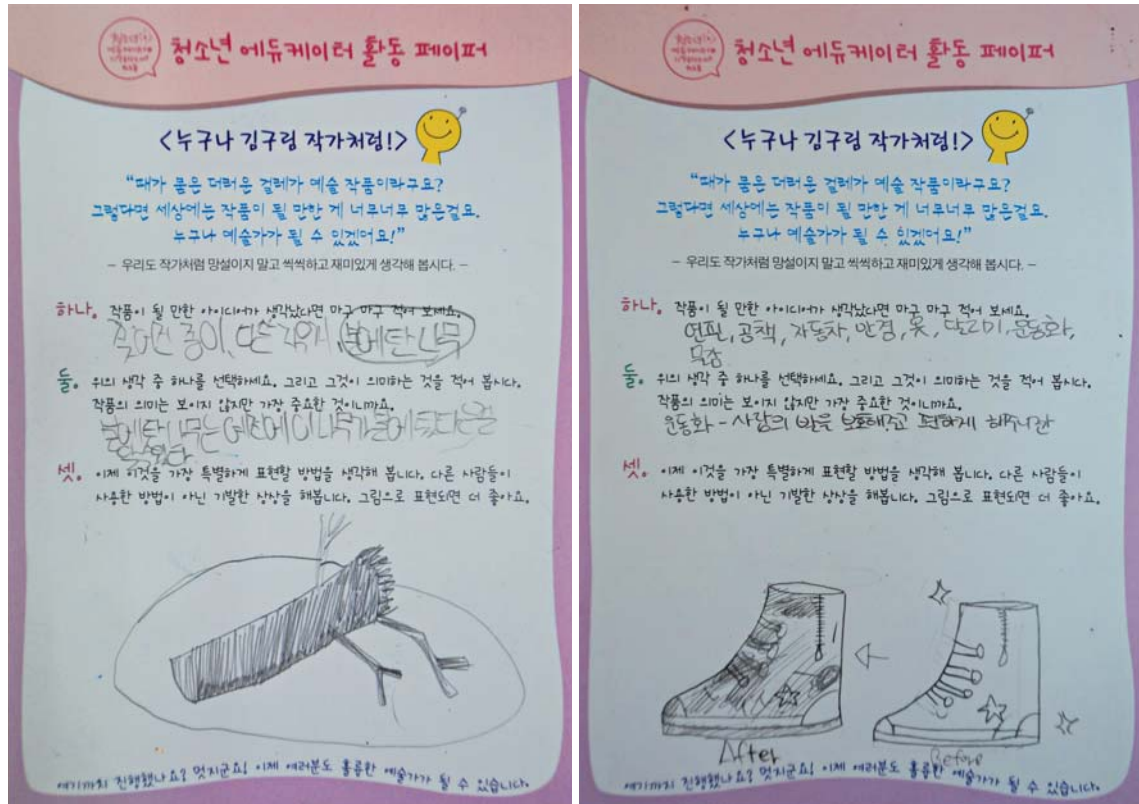
작품 감상 전에 미리 작업해 둔 시간의 흔적을 표현한 미션 퍼즐 판을 무작위로 한 명당 한 장씩 받는다.
지우개를 이용해 답임 선생님이 그려 놓은 메시지를 찾아서 팀별로 협동하여 전체 퍼즐을 완성한다.



[누구나 김구림처럼]

감상자가 작가가 되어보는 활동지. 김구림의 작품을 감상하고 더욱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전시와 연결해 생각해 본다. 김구림 같은 작가가 되어서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쓰고 그려본다.





[표현활동Ⅲ - 전시와 연계된 실기활동]

각 팀별로 4가지 미션을 자유롭게 뽑아서 그 미션을 수행해 본다.

미션 별로 주어진 재료가 있으며 그 재료와 수행내용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재해석하여 개인 작품으로 표현한다.

미션 1 주어진 사물들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엉뚱한 장소로 옮겨진 모습을 미션 판에 표현하시오.

미션 2 사물과 관련된 반복적인 행위를 몸으로 표현해 보시오. 반복행위의 전, 후 모습을 미션 판에 표현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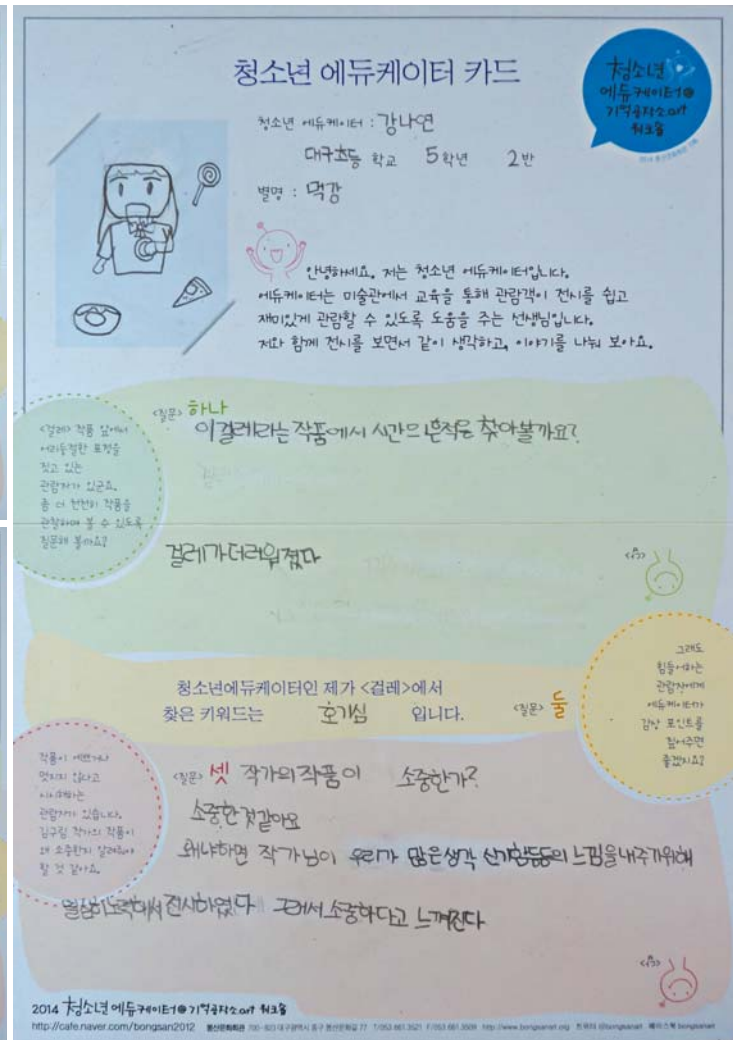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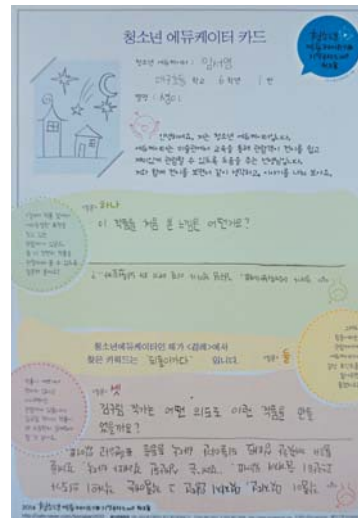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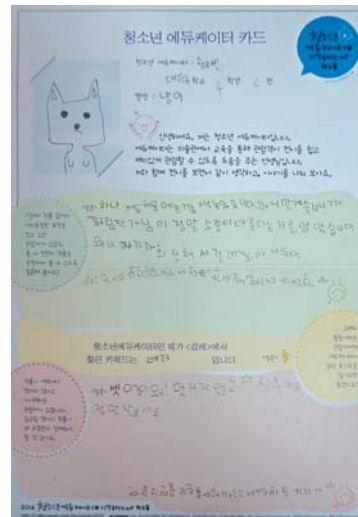
미션 3 어떤 행위의 결과가 반전(뒤바뀐)되는 것을 미션판 위에 표현하시오.

미션 4 더럽히거나 변형된 것을 처음 모습으로 되돌리시오 단, 깨끗한 상태이면 먼저 더럽히거나 변형시켜 줍니다.



[나는야 청소년에듀케이터]

청소년 에듀케이터는 활동지를 통해 관람객에게 말을 걸고, 생각을 거는 시도이다. 무심코 보고 스쳐지나는 작품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작성 된 카드는 전시실에 일정기간 비치되어 관람객들의 감상을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 에듀케이터 에필로그

“Wiping Cloth” 김구림 워크숍

김구림의 작품으로 아이들과 미술 감상 활동을 해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였다. 아이들이 이 작품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스러웠다. 아이들은 <걸레>작품을 보자마자 “더러워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첫 인상과는 달리 걸레 작품은 찬찬히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지저분해진 걸레 모습에서 ‘청소하는 엄마’, ‘시간의 변화’를, ‘바닥과의 서로 반대된 상황’,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등 자신의 시선에서 해석한 의미를 이야기했다. 초등학교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리하게 감상하고 탐색해내는 모습이 신기하고 기특했다. 전시실에 첩퍼덕 앉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벌써 여러번 이 프로그램에 참여 했기 때문이란다. 경험이 바로 새로움을 받아들이 토대를 만들어 준 것 같아 기뻐다. 에듀케이터 활동을 통해 관람자에게 던지는 질문에서도 제법 선생님 티를 내기도 했다.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제각기 다양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은 에듀케이터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해준 시간이었다. 또한 작가 김구림을 좋아하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워크숍 참가자 명단 (총 174명)

대구초등학교 4학년 1반 : 인솔교사 박준현 | 2014년 9월 16일 09:00~12:00 | 체험인원:18명
강민성, 김관호, 김세희, 김재원, 김효은, 박민주, 박주연, 배준석, 송승현, 신재용, 안태훈, 양소은, 엄종환, 오원석, 이강우, 이동윤, 임민빈, 정승현

대구초등학교 4학년 2, 3반 : 인솔교사 황숙경, 박 원 | 2014년 9월 19일 09:00~12:00 | 체험인원:37명
강지현, 김도영, 김태현, 마지원, 박민선, 박서현, 박정우, 박정은, 소우진, 신유빈, 오상석, 윤예나, 장준영, 조현준, 최현우, 한수빈, 한지원(4학년2반 18명)
곽도윤, 김도영, 김동진, 노혜진, 노홍석, 박민주, 박주연, 박준석, 서승원, 여재현, 이세은, 이지우, 이학주, 조강래, 조은지, 조한결, 최정인, 하성민, 홍유진(4학년3반 19명)

대구초등학교 6학년 1반 : 인솔교사 장수정 | 2014년 9월 23일 09:00~12:00 | 체험인원:25명
강주연, 공경진, 김덕효, 김명진, 김세은, 김승진, 김원재, 김은지, 류동현, 박재은, 백경영, 백동원, 서예란, 손가연, 송민정, 신동윤, 심근형, 윤동준, 이동현, 이창용, 임서경, 전석진, 조상배, 홍수현, 황해민

대구초등학교 6학년 2반 : 인솔교사 조해선 | 2014년 9월 26일 09:00~12:00 | 체험인원:23명
구현준, 김민주, 김민찬, 김수진, 김종규, 김지혜, 박경모, 박준현, 박호경, 방민지, 배한이, 서하영, 심종민, 유원규, 윤다은, 이민영, 이수민, 이승찬, 장연수, 제갈경모, 최재욱, 황유진, 황재민

대구초등학교 5학년 2반 : 인솔교사 김미경 | 2014년 9월 30일 09:00~12:00 | 체험인원:22명
강나연, 강대훈, 곽다현, 김광욱, 김재찬, 남우준, 노보미, 박상하, 상아현, 송다현, 유건우, 이기림, 이강주, 이창수, 전상근, 정문영, 정종인, 조상민, 천수민, 최상유, 최소은, 황기림

대구초등학교 5학년 1반 : 인솔교사 장경선 | 2014년 10월 7일 09:00~12:00 | 체험인원:25명
권유진, 김동찬, 김민주, 김은혜, 김정은, 김혜진, 마승우, 박상현, 박유빈, 서예림, 성유나, 신동원, 이기희, 이동현, 이수민, 이은현, 이희준, 이준민, 조상민, 주영우, 채준진, 천봉우, 황윤지, 황해민

대구초등학교 5학년 3반 : 인솔교사 임영아 | 2014년 10월 17일 09:00~12:00 | 체험인원:24명
강지현, 고보경, 권부연, 김민정, 김은수, 김재민, 김정은, 김민정, 박상준, 박시은, 박진희, 백준승, 손은지, 오수연, 이도현, 이상민, 이우성, 이준민, 이준율, 이태훈, 전서윤, 최지민, 최준욱, 한주연

큰 언덕 큰 나무 창조교실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상력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실천하고, 우리시대 예술현장의 진지한 열정을
청소년 교육현장에 전달하여 전문예술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새롭고 밀도 있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기획의도

- 예술가와 에듀케이터의 현장감 있는 공감 및 협업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단순한 전시감상에서 벗어나 '워크숍 형태의 실기체험', 에듀케이터 체험을 위해 '전시감상 가이드를 제작' 등 새로운 강령안식 개발
-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감상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현대미술과 예술가를 이해하고, 그 소개 활동에 동참
-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 예술교육프로그램 제안

* 에듀케이터(Educator)란 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람객과 소통활동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입니다.

- 에듀케이터 워크숍 일정

구분	전시 기간	작가 와 만남	에듀케이터 워크숍 예술교육 워크숍 체험 + 작품 소개 감상 가이드 만들기 각 1회, 3시간 수업	참여 작가 워크숍
			화요일 13:00~16:00	목요일 13:00~16:00
안창홍	3.26(수) 3.28(금) 3.29(토)	1회: 4월 15일 / 3회: 4월 22일 5회: 4월 29일 / -	2회: 4월 17일 / 4회: 4월 24일 6회: 5월 1일 / 7회: 5월 8일	4회: 30일 수요일 오후 5시

* 전시를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에듀케이터
책임감사 / 전혜주, 노성경, 주경자 / 이기선, 석아름
강사 / 임은경, 김지희, 임민영
기획 / 정종구, 진행지원 / 김영숙

- 워크숍 사진 cafe <http://cafe.naver.com/bongsan2012>

2014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일 정 : 2014. 3. 26 ~ 12. 2
장 소 : 봉산문화관 제 4전시실 및 강의실
주 최 : 봉산문화관
문의 : 053) 661-3500 www.bongsanart.org
후 원 :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본 사업은 2014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워크숍**

2014 봉산문화관 기획

활동 페이지 6P / 3P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청소년 에듀케이터 활동 페이지

1. 안창홍 작가의 작품에 대해 에듀케이터는 관람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을까요?

2. 에듀케이터는 안창홍 작가의 인물화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미술가의 인물화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 안창홍 작가 전시의 에듀케이터는 관람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 학년, 반, 청소년 에듀케이터입니다.

안창홍
2014. 3. 26(수) ~ 5. 25(일)
오픈 : 2014. 3. 26(수) 오후 6시 / 워크숍 : 2014. 4. 30(수) 오후 5시 / 봉산문화관 4전시실

활동 페이지 2P / 7P

전시 소개

함께하는 사람들
작가의 작품 속 인물은 한국의 보통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다양한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작품은 평범한 개인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속 인물표현에 대해 탐색해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와 감정을 새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경험해 봅니다.

안창홍 '남과 북'
지금까지 발표해온 안창홍 작가의 주요 대표작 60여점의 스릴 이미지를 바다로 펼쳐 보아주는 초대관 박연의 영상 아카이브는 달리 광복 찬양에 관한 색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 '남과 북'은 소박하고 담담한 길게그린 형태로 5미터 높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잉과 일경 거리를 둔 벽면에 설치된 다소 불완전해 보이는 '개' 그림은 우리 개인의 삶과 지난 역사 그리고 인간존재와 욕망, 기억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을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기억공작소에서 작가의 태도를 다시 엿보게 합니다.

안창홍 작가에 대해 살펴봅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안창홍의 작품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 우리들 역시 주연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작가의 태도는 보아줍니다. 작가는 주로 '물'을 통하여 '관계'를 말합니다. 안창홍은 평범 속 통찰의 물로 세계, 동양인물들의 관계, 예술가와 작품 속 대상 사이의 복잡하고 흥미로운 관계,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행동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힘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림이란 희망과 절망, 진실과 거짓 등의 극과 극의 존재입니다.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장소이고 지적 여행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며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안창홍 安昌洪 Ann, Chang Hong

• 개인전
2014 2014 기억공작소 - 안창홍(봉산문화관 대극장)
2013 제25회 이문신 미술상 수상 (안창홍 작품전(대전일보 미술관서))
안창홍 작품전 '물' (대전일보 미술관서)
2012 제30회 안창홍 작품전 '아리랑' (메이지 미술관서)
제30회 안창홍 작품전 '우리나라 고대까지' (메이지 미술관서)
2011 제26회 안창홍 작품전 '인도 아열대' (메이지 미술관서)
제27회 안창홍 작품전 '물' (메이지 미술관서)
2010 제10회 이문신 미술상 수상 (대전문화재단 미술관서)
등 개인전 34회

• 수상
2013 제25회 이문신 미술상 수상
2009 제10회 이문신 미술상 수상(대구광역시)
2001 제1회 부일미술대상 수상(부산일보사서)
2000 제10회 봉산문화관 전시부문 수상(봉산문화관서)
1999 제1회 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가나아트센터)
경기도 문화재단 특별상 (상가자49-4)
99999@hanmail.net
www.ahnchanghong.com

작가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 기억,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의 기억 속에 관계하고 있거나 있을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사진 중 여러분의 기억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 미묘의 도화지에 붙여 주세요.

소중한 관계를 특별한 기억으로

START →

활동 페이지 4P / 5P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워크숍**

1. 전시 작품 감상 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보세요.

2. 안창홍 작가의 전시작품에서는 두 사람(남, 여)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지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3. 작가의 미술작품은 자신의 생각을 그림(주변사람들)으로 개성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사람들의 개성을 그림이 아닌 별명을 지어 표현해보세요.

4. 안창홍 작가는 자신의 주변사람을 그렸습니다. 만약 내가 작가라면 우리 사람 중 누구를 그려보고 싶은가요?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http://cafe.naver.com/bongsan2012> 봉산문화관 700-820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7 T: 053.661.3500 F: 053.661.3509 <http://www.bongsanart.org> 트위터 @bongsanart 페이스북 bongsanart

038

039

[큰 언덕 큰 나무 창조교실 -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청소년에듀케이터 활동 페이지 - 안창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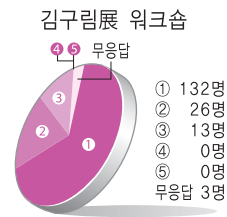
[illegible]

[큰 언덕 큰 나무 창조교실 -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설문조사

체험 참가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창홍展 참가자 207명 중 206명, 김구림展 참가자 174명 중 17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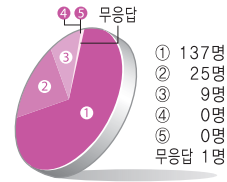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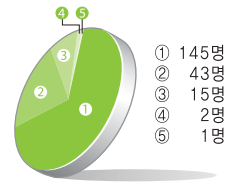
1.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 프로그램 수업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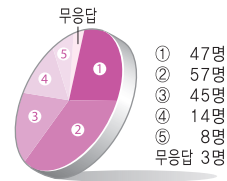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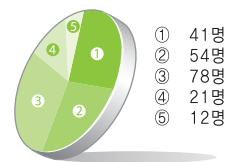
2. 이번 미술체험 프로그램 에듀케이터 선생님의 지도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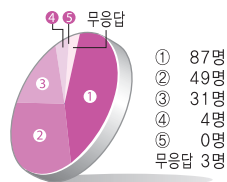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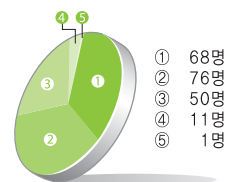
3. 평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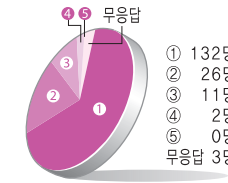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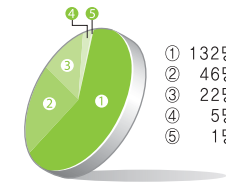
4.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을 통하여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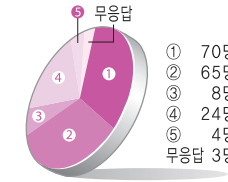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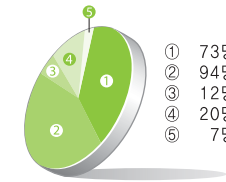
5.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이 재미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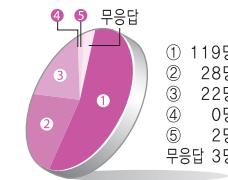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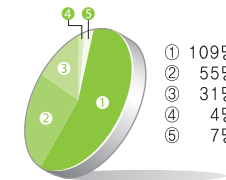
6.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알지 못했던 작가에 대해 접할 수 있었음 ② 색다른 체험프로그램 ③ 무료 교육의 기회
④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음 ⑤ 기타)



7. 향후에도 다른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기타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더 이해가 쉬운 작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 다음에 또 와서 다른 미술체험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 만들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조금 빠르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 좀 더 작품을 보고 싶고 다른 화가도 보고 싶다.
- 체험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년에도 하고 싶다

2013

2013 봉산문화회관 기획
상상력 프로젝트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일 정 2013년 4월 12일 ~ 10월 27일

장 소 봉산문화회관 제4전시실 및 강의실

전시 작가

김주연(설치미술가)

장준석(설치미술가)

김희선(영상, 설치미술가)

에듀케이터

이미지(책임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대표)

전혜주(책임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대표)

신재희(책임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노성경(책임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장태영(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전임강사)

황해인(강사, 뮤지엄스토리 교육연구소 강사)

김지희(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연구원)

임은경(강사, 상상속의 도화지 교육연구소 연구원)

임민영(강사, 디자이너 & 예술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기록 및 촬영

임민영(강사, 디자이너 & 예술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시 연계 에듀케이터 워크숍 운영(체험인원:총 645명)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김주연展 계 191명	4. 16(화) 09:00~12:00 대구초등 5-2 16명	4. 19(금) 09:00~12:00 대구초등 5-1,3 32명	4. 19(금) 12:30~15:30 남산초등 5-1 21명	4. 23(화) 09:00~12:00 대구초등 3-1,2 29명	4. 26(금) 09:00~12:00 대구초등 3-2,3 27명	4. 26(금) 12:30~15:30 남산초등 5-2 20명	4. 30(화) 09:00~12:00 남산초등 5-3 23명	4. 30(화) 12:30~15:30 남산초등 5-4 23명
장준석展 계 235명	5. 21(화) 09:00~12:00 사대부초 4-1 31명	5. 23(목) 09:00~12:00 사대부초 4-2 31명	5. 28(화) 09:00~12:00 사대부초 4-3 31명	5. 30(목) 09:00~12:00 사대부초 4-4 33명	6. 11(화) 09:00~12:00 대구초등 4-1,2 33명	6. 13(목) 09:00~12:00 대구초등 4-2,3 32명	6. 18(화) 09:00~12:00 남산초등 5-5 22명	6. 20(목) 09:00~12:00 남산초등 5-6 22명
김희선展 계 219명	10. 1(화) 13:00~16:00 신월초등 5-1 30명	10. 8(화) 13:00~16:00 신월초등 5-2 30명	10. 10(목) 13:00~16:00 신월초등 5-3 29명	10. 11(금) 13:30~16:30 사대부중(미술동아리) 17명	10. 15(화) 13:00~16:00 신월초등 5-4 28명	10. 17(목) 13:00~16:00 신월초등 5-5 29명	10. 22(화) 13:00~16:00 신월초등 5-6 28명	10. 24(목) 13:00~16:00 신월초등 5-7 28명





김주연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김주연展 **유기체적 풍경**

전시기간

2013. 4. 12(금) ~ 5. 5(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4. 12(금)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4. 20(토) 오후 3시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3. 4. 16(화) ~ 4. 30(화) 제4전시실 및 강의실

김주연 Kim, Ju yeon 金周妍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순수조형예술대학 마이스터슬러린 취득,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순수조형예술대학 졸업, 독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2013 '유기체적 풍경' 봉산문화회관 기억공작소, 대구
2010 '이숙(異熟)VIII' 광주롯데갤러리, 광주
2009 'Metamorphosis III'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08 'Metamorphosis'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2005 '일상의 성소(聖所)' 포스코미술관, 서울
2002 '이숙(異熟)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1997 're-turn' 루츠 피비히 갤러리, 베를린
1994 '시대착오적인 산책' 스타일 온트 부르흐 갤러리, 베를린
1993 '찾기' 물락스트라세 23갤러리, 베를린

• 주요 단체전

2012 '광주비엔날레 <Roundtable>' 무각사, 광주
외 다수

• 레지던시

2011 '극지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시, 남극
외 다수

E-mail: feelearth@naver.com

기억공작소 『김주연』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헉, 살아있다」

이번 전시는 ‘살아있음’의 본능적 매력을 다루는 3가지 형상을 선보인다. 하나는 초록색 싹으로 덮여 있는 2.3m 높이의 커다란 신문지 더미 축대이고, 둘은 천정에 매달려 자라는 듯 보이는 탱자나무 가지와 그 사이에 끼여있는 지구본 그리고 남극의 도둑갈매기 스쿠아와 빙산을 찍은 사진, 셋은 움직이는 낙지가 있는 정물사진 그리고 시간성과 생명성을 중심으로 제작한 작가의 주요 작업 영상물이다. 이들은 개별 적이면서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전시 공간 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부분과 전체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유기체적 상태의 풍경으로 조직되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 속에 간직해야할 과거이거나 기억 하고 싶은 미래의 예견이며, 아마도 생명성에 관한 새롭게 창조된 현재 풍경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숙異熟’은 김주연 작가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생장한다는 동양철학적 의미인 ‘이숙’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한 이번 전시, ‘유기체적 풍경’은 구체적인 자연의 부분 들이 상호간에 관계되면서 생성하는 일련의 사건이며, 전시를 통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들은 사건 속에 출현하는 시각적 형상 풍경들이다. 풍경 속의 세계는 생명성에 관한 ‘생성, 성장, 소멸’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과 그 실재인 ‘살아있음’이 서로 교체되는 상태에서 현실적 존재들 서로간의 질서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진행 과정에 있다는 세계의 사유를 담고 있다.

「하나. Metamorphosis VI」

무, 배추, 겨자 등 8종의 식용식물 씨앗이 4,500부의 신문지더미 위에서 생존과 그 변화 과정을 드러내는 이 작업은 시간성과 세계와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으며 과정 중심의 진행형 작업이다.

전시 몇 개월 전부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집하여 모았던 헌신문은 W365×D41×H230cm 크기 선반 위에 지층의 겹을 만들며 커다란 산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작가는 이 형태가 벽면에 전시된 사진 속의 남극 빙산을 닮았다고 했다. 신문지를 싹 틔우는 지반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가는 신문지의 원료가 나무라는 유기적 연결성이 있기도 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지구환경의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는 신문이 생명체의 생존 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씨앗은 일정기간 비춰 오는 간접 자연광과 할로겐 빛, 적당한 온도와 습도, 주기적으로 분무되는 수분에 의해 싹을 틔웠다. 신문을 모으고 물을 공급하는 수고와 애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여건들이 씨앗의 발아에 관여한다. 생명체의 활기, 설레는 감격의 진동이 느껴지는 새싹의 변화는 생명성과 다음 과정의 성장을 위해 움직 이는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씨앗이 초록 무성한 식물이 되는 항상 풍경은 ‘발아, 성장, 소멸’에 대한 감각 경험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각성시키고, 그 공간과 시간을 기억하게 한다.

「둘. 유기체적 풍경 I, II, III, IV」

천정에 매달려 거꾸로 자라는 듯 보이는 탱자나무 가지가 있다. 생존의 영역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시달린 가지를 뺀어 가는 생존 양식은 상대를 아프게 하면서도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은유하였다. 가시 사이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는 지구본은 지구환경과 생존에 관한 또 다른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그 옆 벽면에 걸린 세 점의 사진액자는 작가가 직접 촬영한 남극 풍경이다. 남극 스쿠아South Polar Skua는 먹이가 적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펭귄의 알을 훔쳐 먹고산다. 또 남극의 빙산은 시시 때때로 무너지고 녹아내리면서 형태와 장소가 변화되어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보이며, 그 해수면의 높이 변화와 너울을 만들어 지구의 기후와 생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셋. 정물화 :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고小考 그리고 Metamorphosis of Every Lives」

정물이 놓인 탁자 위에서 낙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머물 곳을 찾는다. 16분 47초 짜리 비디오 ‘Metamorphosis of Every Lives’는 살아있는 것의 변화와 생명의 생동성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생존과 생명성에 관한 자연의 에너지 변화를 한정된 전시 형태로 집약시켜 놓은 유기 체적 풍경이다.

이 전시는 우리의 삶이 상투적이고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는 위기감으로부터 예술적으로 제안된 세계와 관객의 유기체적 연결고리이다. 일상은 상투적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근원적 일상이 세계의 섭리를 예견한다. 예상치 않았던 물리적인 현실 공간에서 생명을 싹틔움으로써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상투성을 새롭게 공작한다. 김주연의 작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거를 기억 속에 간직하고 미래를 예견하면서 새로움의 창조를 재생하며, 창조된 새로움을 그것이 출현했던 세계에 추가시킴으로써 확대된 세계에 기여하고 기억될 것이다. 시간성과 생명에 관한 작가의 기억, 작가로서의 의지와 실현에서 비롯 되는 그대로의 현실적 흔적은 우리를 미래에 현재적으로 지속하는 새로운 순간과 이어진 ‘살아있음’의 기억공작소일 것이다.

체험 주제 |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김주연 작가의 '유기체적 풍경'을 감상하고 새싹처럼 살아있는 생물과 공장에서 찍어 만드는 신문 같은 무생물의 차이점 및 닳은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버리게 되는 신문과 피어나고 시들어 버리는 새싹은 모두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으로 생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고, 그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진행과정

[작품 감상하기]

1. 전시관람 예절과 안전 및 주의사항 안내
2. 전시관람
3. 김주연 작가에 대한 소개와 작품에 대한 감상 및 이해하는 시간



[감상 활동지 작성하기]

1. 김주연 작가처럼 생각해 보기
 - 작품에 사용한 신문을 대신 하여 새싹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2. 상상하는 마음 키우기
 - 시간이 지나면 조그마한 새싹이 어떻게 변화 될지 표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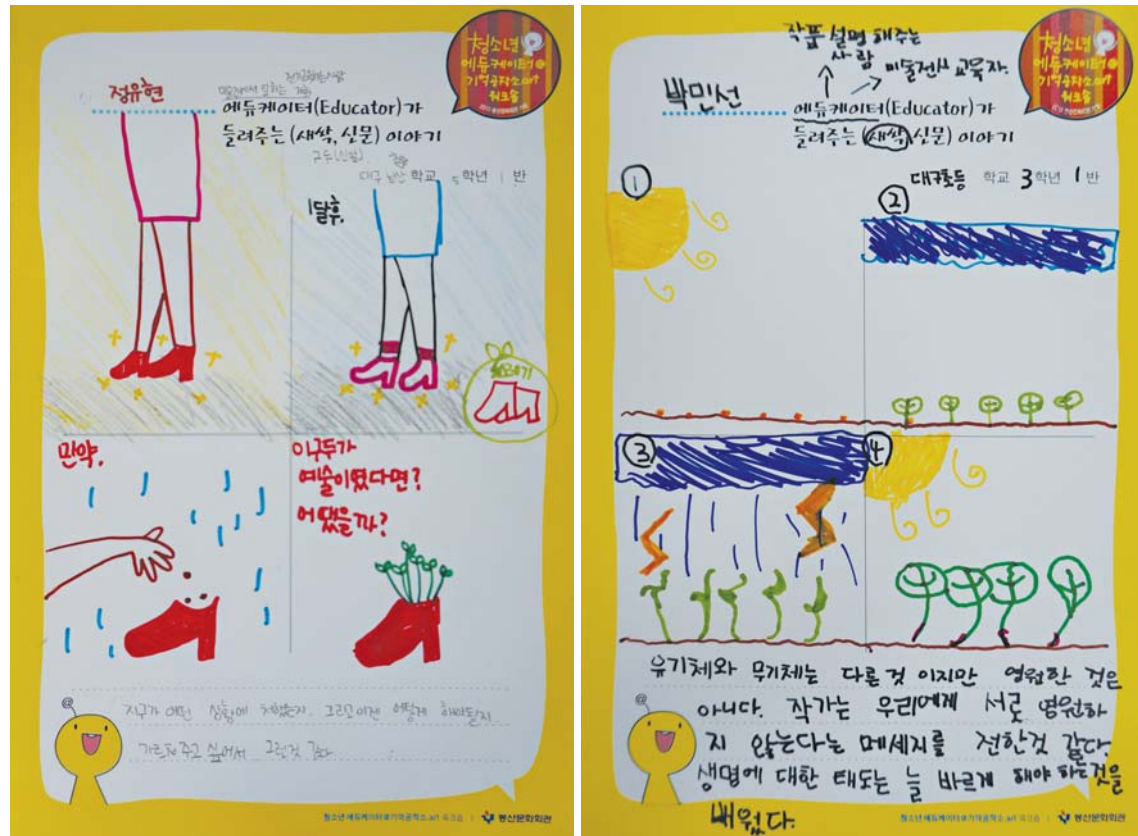


[청소년 에듀케이터 되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김주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각자가 느낀 중요한 점과 살아 있는 것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카드에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본다. 스스로가 감상 내용을 정리하며 전시 주제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 인해 타 관람자들이 작품을 관람할 때 쉬운 안내서가 될 수 있고 단순히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 주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하게 된다.

전시 기간 동안 청소년 에듀케이터로서 작성한 카드가 전시실 입구에 비치되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씨앗 심기]

김주연 작가의 작업에서 이해되는 중요한 컨셉을 이용하여 체험해 보는 시간

1. 준비 된 나무 상자에 맞게 신문지를 잘라서 넣기
2. 신문을 넣어 책처럼 만든 나무 상자에 표지 꾸미기
3. 신문에 촉촉하게 물을 뿌리고 씨앗을 꼭꼭 심기
4. 완성

작가 작업의 일부를 탐색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 약하고 부드러운 씨앗을 신문에 사이사이 심듯이 넣어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만의 책을 만든다는 만족도와 후에 새싹이 자라나게끔 물을 주고 기르는 과정으로 인한 성취감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에듀케이터 에필로그

“유기체적 풍경” 김주연展 워크숍

아이들은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신기해하면서 살금살금 걷고, 조심스레 분무기로 물을 뿌려 준다. 쌓인 신문지의 좁은 틈을 배양토 삼아 파릇파릇 자라는 새싹을 보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달라고 소망한다. 하지만, 전지실 바닥에 퍼질러 앉아 찬찬히 새싹을 관찰하던 아이들은 새싹의 삶이 길지 않음을 눈치채고 말았다. 바닥에 떨어져 말라가는 새싹과 파란 새싹 사이로 시들어 가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실망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짓궂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에듀케이터: “에이, 곧 시들고 말라 버릴텐데 미리 떨어뜨릴까 보다.”

아이들: “안돼요. 생명은 소중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선생님 진짜 나빠요.”

생명의 순환이 식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여러 공산품도 그렇다. 아이들과 함께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과정을 보면서 자연과 환경, 존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며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워크숍 참가자 명단(총 191명)

대구초등학교 5-2반 : 인솔교사 김중희 | 2013년 4월 16일 09:00~12:00 | 체험인원: 16명
구현준, 김명진, 김세은 김수진 김원재 김종규 김지예, 류동현, 박지유, 박효경 백경경 서예안, 서하영, 유원규, 윤동준 정연수

대구초등학교 5-1, 3반 : 인솔교사 인종아, 황혜경 | 2013년 4월 19일 09:00~12:00 | 체험인원: 32명
공경진, 김기영, 박재은 방민지 백동원 상동민 손기연 송민경, 우중서 윤다은 이만영 이창용, 임사경, 조상배 최재욱 황재민(6-1반, 16명)
강주연, 김민주, 김민찬 김승진 김은지 박경모 박준현, 배환이, 신동윤 심근형 이동현 이승찬, 제갈경모, 홍수현 황유진 황혜민(6-3반, 16명)

남산초등학교 5-1반 : 인솔교사 윤종분 | 2013년 4월 19일 12:30~15:30 | 체험인원: 21명
강민호, 강석진, 권순호 김민기 김예민 김정은 박해송, 배준호, 유정영 이상환 이은석 이준상, 이하연, 이현민 전민지 전영환 정사윤 정유현, 진 현 최예은 하지현

대구초등학교 3-1, 2반 : 인솔교사 장경선 | 2013년 4월 23일 09:00~12:00 | 체험인원: 29명
곽도훈, 김기미, 김도연 김세희 김효은 박민선 배준석, 신유빈, 신재용 양소은 여채현 오상석, 윤예나, 임연빈 조경래 조현준 하성민 한수빈, 홍유진(3-1반, 19명)
김지현, 김재림, 노혜민 노홍석 마지원 박경현 박우현, 박정우, 박준석 소우진(3-2반, 10명)

대구초등학교 3-2, 3반 : 인솔교사 김태환 | 2013년 4월 26일 09:00~12:00 | 체험인원: 27명
박민주, 송승현, 안태훈 오원석 이장현 이지우 조수연 최정인, 홍수연(3-2반, 9명)
김민석, 김민호, 김도영 김동진 김태현 박민주 박정은, 박우현, 서승원 엄종환 이관우, 이민지, 이하연, 장준영 정승현 조은지 조한결 최만우(3-3반, 18명)

남산초등학교 5-2반 : 인솔교사 김민경 | 2013년 4월 26일 12:30~15:30 | 체험인원: 20명
공경원, 김준영, 김재영 김태규 박나은 백해민 박태훈, 서수민, 서준교 이승호, 이윤동, 이윤지, 이상수, 이태민 전병욱 정수현 정윤형 최연희, 최정원, 한종훈

남산초등학교 5-3반 : 인솔교사 고윤희 | 2013년 4월 30일 09:00~12:00 | 체험인원: 23명
강남희, 김도현, 김세현 김명현 김규진 김주은 도현석, 마정현, 박한진 배근표, 박승희 손유지, 유현서, 윤상현 윤세민 윤준혁 이승준 이지원, 임한아, 장사윤 장지훈 정현동 황보재원

남산초등학교 5-4반 : 인솔교사 권수현 | 2013년 4월 30일 12:30~15:30 | 체험인원: 23명
구정모, 권진영, 김기영 김민경 김범수 김보람 김사현, 김연정, 김은정 김찬영 박상혁, 박종윤, 신용민, 신현석 이승연 이승환 이지희, 이창규, 이효주, 전기웅 정현수 황세현 황기희





장준석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장준석展 **Fantasiless**

전시기간

2013. 5. 17(금) ~ 6. 30(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5. 16(목)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6. 1(토) 오후 3시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3. 5. 21(화) ~ 6. 20(목) 제4전시실 및 강의실

장 준 석 Jang, Jun seok 張 峻 奭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 개인전

- 2013 'Fantasiless' 봉산문화회관 기억공작소, 대구
- 2010 'Landscape' 갤러리 분도, 대구
- 2007 '꽃' 한기숙갤러리, 대구
- 'Fantasiless'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청주
- 2004 'Desire' 스페이스 몸 미술관, 청주
- 'City of you' 펑크홀릭, 대구

• 주요 단체전

- 2012 'brain' 사비나미술관, 서울
- 'ㅈ' 청아아트센터, 서울
- '플라스틱 데이즈'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2011 "에디션 No" 대구MBC 갤러리M, 대구
- '꽃꽃꽃' 신미술관, 청주
- 'TEXT as ART' 리안갤러리, 대구
- 'Beyond Limits' 신세계갤러리, 부산
- 2010 '퍼블릭아트 선정작가전' 씨니갤러리, 파주
- 외 다수

<http://blog.naver.com/viewinus>

<http://www.googleartproject.com/artist/jun-seok-jang/3689016/>

E-mail: viewinus@naver.com

기억공작소 『장준석』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봐주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꽃을 밟다」

단정하게 정돈된, 그러나 적막하고 생기를 찾기 어려운 전시실은 폐허의 조형논리를 직감하게 한다. 우선, 바닥에는 검은색의 기호로 가득 채워진 반복 문양들이 보인다. 동시에 벽에서 하늘거리는 종이 위의 ‘꽃’을 발견한다. 얇은 반투명 종이에 목탄으로 그려진 ‘꽃’은 속씨식물의 생식기관을 일컫는 자연의 꽃 이미지가 아니라, 한글 ‘ㄱ, ㄴ, ㅈ’이루어진 글자 ‘꽃’이다. 나무를 태운 숯으로 그린 검은 색의 이 ‘꽃’은 꽃의 관념적인 상징과 정서적 기억, 즉 작가가 전시 제목에서 언급한 판타지들을 거부하고 흠여 버리면서 글자 ‘꽃’만을 보여준다. 마치 바람에 날려가고 남은 실체의 허무함, 나아가 어떤 비장한 각오를 느끼게 한다. 그 왼편 벽면에는 180×180cm 크기의 액자가 걸려있다. 이 ‘Landscape(scale 1:150m)’ 작업은 대지 위에 배치한 ‘꽃’ 조형물을 부감 풍경으로 축소해 놓은 것이다. 역시 실제 꽃이 아닌, 정육면체의 검은색 플라스틱 ‘꽃’ 글자 수 만개를 화면 중앙의 한 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 도록 설계하여 부착한 이 작업은 글자 조형이 꽃을 대체하는 의도성과 더불어 실제 크기로 대지 위에 설치되었을 때의 거대한 규모와 장관을 상상하면서 정서적 상실감과 신선함을 함께 맛볼 수 있다. 다르고 낯선 풍경은 관람자 자신이 밟고 있는 바닥을 살펴보면서 한층 다양하게 경험된다. 바닥에 채워진 문양이 ‘꽃’ 글자의 연속처럼 보이기도하고, ‘꽃’, ‘꿈’ 글자로도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의 부산물인 합성고무로 만든 검은색 ‘꽃’ 글자는 꽃이 검다는 시각적 충격을 패턴화하며, 관객의 밟는 행위와 밟을 때 발끝에 닿는 감각을 대상화하고 개념화한다. 꽃을 밟는다는 행위는 무시, 방치, 폐기, 소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인데, 예를 들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와 같은 환상은 사라 지고 더 이상 꽃밭이 아닌 폐허를 걷고 있는 관객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설정이다.

꽃은 향기롭고 화려하며 아름답다. 그러나 작가는 아름답지 않은 ‘꽃’을 내밀면서 ‘Fantasiless’를 말한다. 작가에 의하면 사회적 통념들은 ‘꽃’이 상징하는 ‘Fantasy’를 부정하도록 재촉하며, 꽃은 그냥 ‘꽃’일 수밖에 없다고 떠밀어낸다. 일체의 상상을 무시하고 제시되는 ‘꽃’은 죽은 꽃이며, 검은색의 죽은 꽃을 밟는다는 의미는 죽음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다시 인식하는 행위이다.

어쩌면 작가는 꽃처럼 상징의 의미가 관습화된 대상의 환상을 거부하고 밟으면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야성 혹은 살아있는 생물적 감각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규범에 갇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폐허 위를 다시 거닐기를 권하는 배려일 것이다.

「그 너머의 꽃, 꽃에 물을 주다」

장준석은 ‘꽃’이라는 텍스트 기호를 통하여, ‘Fantasy’와 ‘Less’를 합성한 ‘Fantasiless’를 주제로 환상이 없거나 제거된 상황을 탐구하면서, 실재와 상징화된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허무를 주목하고, 진정한 실체의 인지를 질문해 왔다. 또한 작가는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을 살피고, 사회 통념에 의한 ‘구획 짓기’ 혹은 ‘범위의 한정’을 건너차는 미술의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

이전까지 작가의 ‘꽃’ 작업이 꽃의 아름다운 색상에 기댄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전시는 화려한 색상의 ‘꽃’ 작업들에서 도외시했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삼는다. 작가는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서 얼마 후 시들고 소멸하는 그 생태적 현상의 진실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고심하였다. 그는 이번 ‘Fantasiless’에서 꽃들이 죽고 소멸되어 끝난 상황을 연출하고, 그 너머에 있을 새로운 꽃을 기대한다. 스테인레스 거울판을 파낸 ‘꽃’ 글자는 작품 반대편의 풍경과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표정을 담아내면서 새로운 꽃의 희망을 기늩한다. 또 작가는 검은 ‘꽃’ 바닥 위에 주홍빛의 ‘꽃’ 글자 입체조형을 놓고 그 위에 직접 물을 뿌린다. 전시 때마다 진행한다는 퍼포먼스인데, 그 장면의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장 한 벽에 전시한다. 개념화된 글자 ‘꽃’에 물을 주는 행위는 새로운 ‘꽃’, 꽃 너머의 ‘꽃’의 생성을 희망하는 주술적 의미로 얹혀진다.

작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아마도 환상의 부정과 생태적 소멸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폐허를 관객이 밟아 보는 사건과 그 너머에 있을 희망에 관한 기억이 아닐까? 확대된 ‘Fantasiless’ 사건은 생태적 진실, 정돈된 폐허의 흔적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간 욕망의 ‘Fantasy’와 사회적 거부의 ‘Less’에 관한 작가의 기억, 예술가로서의 의지와 실현에서 비롯되는 흔적들을 기억하고 다시 공작할 것이다. 지금 한 예술가의 ‘Fantasiless’는 우리들 미래의 어떤 순간과 이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기억 공작소일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꽃! 글자! 환상의 변신~”

장준석 작가는 전시 작품으로 제시된 ‘꽃’을 통해 ‘Fantasiless’를 말합니다. ‘Fantasiless’란 Fantasy(환상) + Less(~이 없는)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환상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Fantasy가 변질, 소멸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더 강렬한 환상을 바랍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을 지금 청소년의 시선과 사고를 통해 재해석해보고 조형화 해보는 시간입니다.



진행과정

[작품 소개하기]

1. 전시 개요 및 일정 공지
2. 장준석 작가의 다양한 작품 및 흡사한 방식의 다른 작가의 작품 소개(영상이미지 감상)
3. 전시실로 이동



[작품 감상하기]

1. 전시관람 예절과 안전 및 주의사항 안내
2. 전시 관람 및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3. 전시작품 감상 및 작가의 작품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



[감상 활동지 작성하기]

작가의 작품을 전시실에서 직접 감상하고 에듀케이터를 통해 작품설명을 듣는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경험 및 기억을 바탕으로 6가지 감상질문에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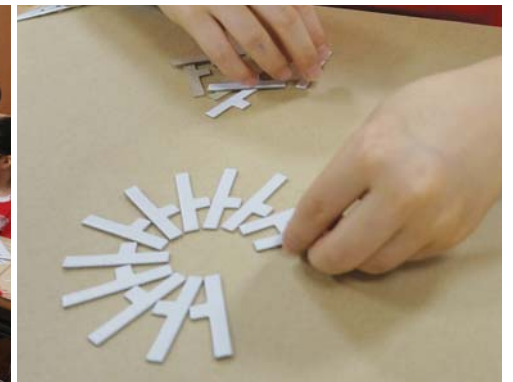


[글자! 환상의 변신]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자의 생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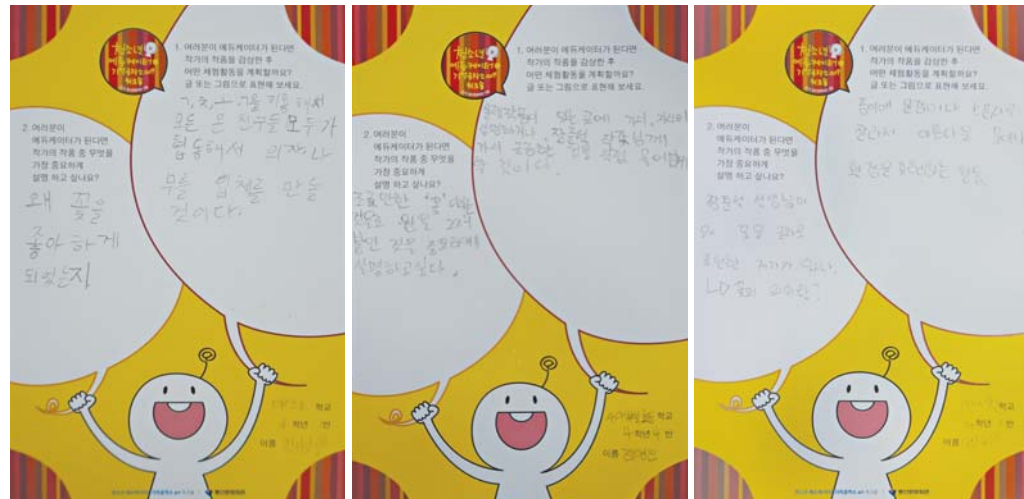
‘꽃’을 글자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기발한 상상과 독특한 생각으로 다양한 모습
이나 형태로 표현해 본다. 우리 주변 길가에
피는 흔한 ‘꽃’과 작가의 ‘꽃’, 그리고 나만의
‘꽃’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을 타이포그래픽
형식을 빌려 체험 해볼 수 있는 작업이다.

1. 작가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어 지는
‘꽃’이라는 글자에 대해 다시 토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글자, 의미,
상징을 연상하기
2. 주어진 ‘꽃’이라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4절 보드판 위에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배치하기
3.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형태가 나오면
변신한 글자를 접착제로 붙여 표현하기
4. 완성한 여러 작품을 다 함께 감상하기



[청소년 에듀케이터 되기]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장준석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각자가 느낀 중요한 점, 에듀케이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작가에 대한 어떤 점을 알게 하고 싶은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떤 체험 활동으로 해보고 싶은지 생각하여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본다. 이러한 활동은 스스로가 감상 내용을 정리하면서 전시 주제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 인해 타 관람자들이 작품을 관람할 때 쉬운 안내서가 될 수 있고 단순히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 주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하게 된다.
전시 기간 동안 청소년 에듀케이터로서 작성한 카드가 전시실 입구에 비치되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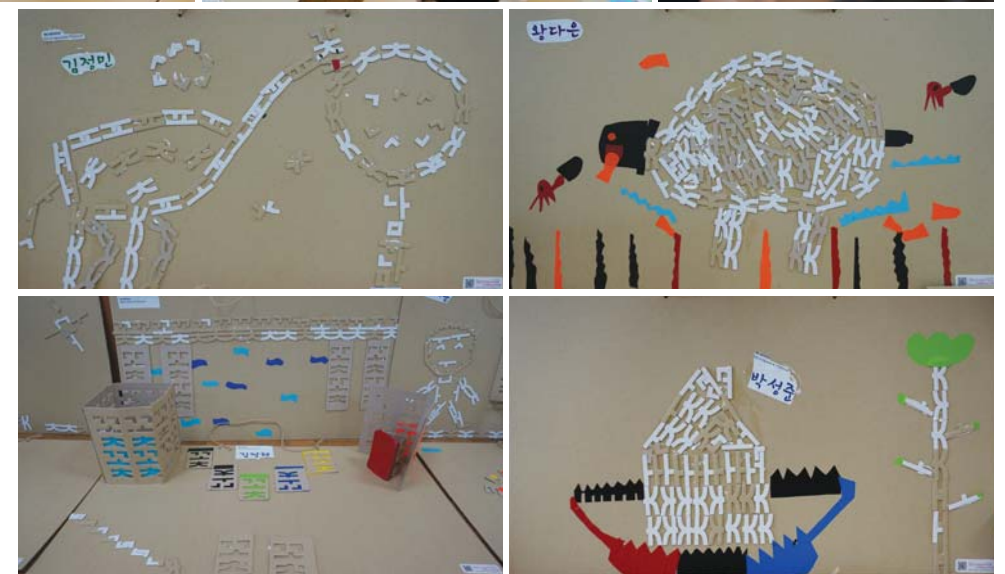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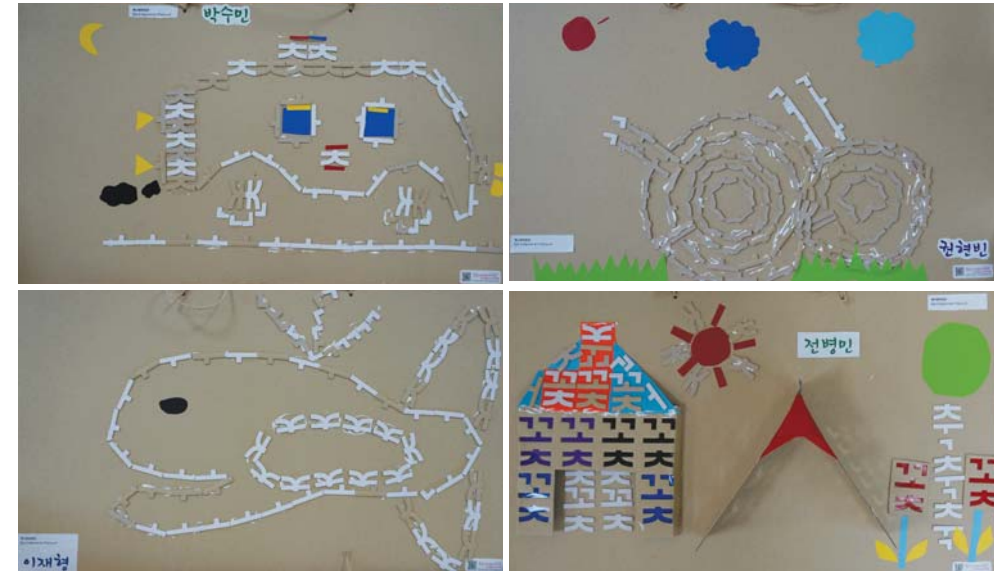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전시작가 또는 미술작품과 연관되는 단어를 시작으로 연상 작업을 해본다. 작품에 대한 감상의 이해와 더불어 발상의 전환, 자신만의 키워드를 찾아 볼 수 있다.



[나만의 작품 감상 및 칭찬하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하나씩 감상하고 나눠주는 시간.



▶ 에듀케이터 에필로그

“Fantasiless” 장준석展 워크숍

꽃! 참으로 아름다움을 연상하는 작품의 주제인 것 같다. 하지만 장준석 작가는 새로운 의미를 말하고 있었다.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색다른 생각과 기발한 상상을 느끼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감상교육의 흥미로운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별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교육이 진행 될수록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적극적 태도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작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아이, 새로운 상상을 즐기는 아이, 고민에 빠진 아이 등 30여 명의 얼굴 표정은 자신만의 상상과 경험, 기억을 모아 무언가를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실과 강의실에서 주어진 활동에 몰두하는 아이들은 분명 감성이라는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작가의 작품 세계를 즐겁고 쉽게 받아들이는 미술 감상과 독창적인 상상이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감성이라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 진다.

워크숍 참가자 명단(총 235명)

사대부속초등학교 4-1반 : 인솔교사 임 진, 2013년 5월 21일 09:00~12:00 | 체험인원:31명

강태민, 김민인 김동우, 김성윤, 김성준, 김수아, 김배영, 김장현, 김현승, 박민서, 박민성, 배성훈, 배주원, 송승연, 심재원, 임수인, 오수현, 윤재미, 이경준, 이은아, 이은재, 이지성, 임선아, 임창범, 임태민, 장수현, 장우원, 정시영, 최민지, 최효석, 한미진

사대부속초등학교 4-2반 : 인솔교사 박미화, 2013년 5월 23일 09:00~12:00 | 체험인원:31명

권상아, 금소민, 김재경, 김동욱, 김수인, 김윤정, 김진기, 박상욱, 박사경, 박소은, 박지현, 박우현, 박종민, 박준현, 신준협, 심예지, 오경민, 윤수현, 이근철, 이근우, 이경민, 이윤준, 이재윤, 이지훈, 이재민, 정은경, 조영택, 최지은, 최지훈, 홍상민, 홍재원

사대부속초등학교 4-3반 : 인솔교사 장은미, 2013년 5월 28일 09:00~12:00 | 체험인원:31명

강사현, 강승준, 권윤하, 김동환, 김민성, 김수민, 김지현, 김현찬, 류민우, 류사현, 박기영, 박다원, 박세원, 박진우, 박태광, 서 원, 손정윤, 송재원, 왕상민, 윤준욱, 이서우, 이준서, 이준섭, 임태민, 정영욱, 정다영, 정연주, 차현지, 최유나, 추서현, 허지민

사대부속초등학교 4-4반 : 인솔교사 권기덕, 2013년 5월 30일 09:00~12:00 | 체험인원:33명

김예민, 고우현, 공경민, 김기현, 김광주, 김기범, 김민정, 김민서, 김민성, 김슬기, 김승윤, 김아령, 김지현, 마혜린, 박준호, 박주현, 박지현, 방정현, 배석진, 심재원, 안아름, 양연진, 윤재은, 이도형, 이윤성, 이지연, 이재훈, 임형준, 전영진, 전재서, 전형서, 진유리, 한정현

대부초등학교 4-1, 2반 : 인솔교사 노현진, 2013년 6월 11일 09:00~12:00 | 체험인원:33명

권부연, 김민주, 김세훈, 김수연, 김민진, 김은혜, 김정은, 김혜찬, 남우준, 박시은, 심아현, 유건우, 이도현, 이성민, 이수민, 이태윤, 전병민, 정민영, 정종민, 조현준, 주영우, 천봉규, 황기훈(4-1반 23명)
강다연, 권다연, 김동찬, 김혜찬, 김은수, 김재민, 김현민, 노보미, 박상제, 박유빈(4-2반 10명)

대부초등학교 4-2, 3반 : 인솔교사 박 원, 2013년 6월 13일 09:00~12:00 | 체험인원:32명

손은지, 서현규, 양다은, 이강주, 이우성, 이은현, 이원율, 조상민, 조상진, 최소은, 최지현, 황윤지, 황하민(4-2반 13명)
강태훈, 고보경, 김광욱, 김광현, 마승우, 박성준, 박성하, 서예범, 신유나, 송다현, 이서민, 이정민, 이지윤, 이호은, 전서윤, 전상민, 채준석, 최준욱, 한주연(4-3반 19명)

남산초등학교 5-5반 : 인솔교사 이정숙, 2013년 6월 18일 09:00~ 12:00 | 체험인원:22명

권우진, 권현민, 김동규, 김민철, 김정훈, 김정은, 김지은, 박지우, 서예림, 서진호, 오민아, 이재형, 이주원, 이기현, 전수민, 정다비, 정윤재, 정재진, 정현호, 조윤주, 조정은, 주예은

남산초등학교 5-6반 : 인솔교사 김수경, 2013년 6월 20일 09:00~ 12:00 | 체험인원:22명

권도현, 권혁준, 김경민, 김도림, 김은진, 박성민, 박성현, 박세라, 박수민, 박승원, 석지윤, 성민재, 유수진, 윤정환, 이유진, 이경원, 이종민, 이재현, 조대식, 최수희, 최은정, 황우석





김희선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김희선展 **FEEDBACK**

전시기간

2013. 9. 27(금) ~ 10. 27(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10. 2(수)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10. 16(수) 오후 6시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3. 10. 1(화) ~ 10. 24(목) 제4전시실 및 강의실

김희선 Kim, Hee seon 金希宣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Magdalena Jetelova 교수 마이스터 취득, 독일

쾰른 미디어아트아카데미 대학원 졸업-Vaite Export /Anthony Moore 교수

• 개인전

2013 'Feedback' 봉산문화회관 기억공작소, 대구

2011 'well + being Project' Opekta Ateliers Cologne, 독일

2009 'HOME' 대구아트페어초대전, 대구

2008 'CRYSTAL_seeing' 브레인 팩토리, 서울

'Embedded Memories' 한지연 컨템퍼러리 스페이스, 베이징, 중국

2006 'RECOVER_seoul ballad no.1'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05 '무언가' Do Art 갤러리, 서울

2002 'non-self situation' 비스바덴 미술회관 비스바덴, 독일

2000 '맛에 대한 기억' 갤러리 프로젝트 공간, 쾰른, 독일

1999 'Public Works-Project I/a' Literatur by Rudolf Mueller,

뒤셀도르프, 독일

• 주요 단체전

2013 'Video & Media'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외 다수

• 수상경력

2010 'Prix Ars Electronica' 인터렉티브아트 Honorary Mention,

린츠, 오스트리아

외 다수

기억공작소 『김희선』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아보고 기억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또 다른 기억, 낯선 풍경을..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장치 1에서 4」

- 장치 1: “입장”-초대장에 도장(입장 년 월, 일)
“환영합니다.” 싱글채널, LCD모니터
“FEEDBACK방명록”-전시장 입장에 대한 서명,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 장치 2: “누적된 피드백Cumulative Feedback”, 23인치 LCD모니터, 황동액자, 웹캠, Mac Mini
- 장치 3: “관계자 출입금지”, 표지판 붉은색 암막 커튼
- 장치 4: “황금 꽃이 피었습니다.” Full HD 싱글채널, 빔프로젝터, 스테레오 스피커

전시장 입구에서 우리를 맞는 것은 작가의 지시문이다. “환영합니다. / 당신은 이 공간의 입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이 공간에서 촬영되고 조작되는 모든 이미지는 관리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으며, 당신은 이에 동의한 것입니다. / 주의, 입장을 허가하는 스탬프는 항상 소지하십시오.(관리자 김희선)”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지시에 동의하며, 초대장에 ‘입장’ 확인 도장을 찍고 방명록에 서명을 한다. 이어서 좌측 전시 공간으로 이동해 신발을 벗고 벽에 설치된 황동액자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액자의 영상 화면에는 지금 서 있는 전시공간이 그대로 재생되고 그 영상 속 벽면에 걸린 액자 속에는 황금색 돼지머리가 빠르게 번쩍이고 있다. 잠시 후, 액자 근처로 걸어 들어가는 조금 전 관람객 자신의 모습이 화면 위에 겹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웹캠과 연결된 이 액자 모니터는 관람객을 촬영하고 그 피드백 영상을 20초 지연시켜 재생하면서 최대 20컷의 이미지들을 누적시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이미지들이 서로 섞여 액자 속의 돼지머리 영상이 가려지도록 장치되어 있다.

우리는 이리 저리 기웃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피드백하는 모니터를 다시 피드백하면서 즉흥적인 흔적 남기기 퍼포먼스를 해볼 수도 있다. 몇 걸음 물러나 뒤돌아보면 거창하고 우아해 보이는 붉은색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있고, 그 입구 위에 ‘관계자 출입금지’ 풋말이 매달려있다. 나는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부담 없이 들어간다. 돈을 세는 기계소리와 함께 조금 전에 액자 속에서 가려졌던 황금색 돼지머리 영상, ‘황금 꽃이 피었습니다.’가 숨 가쁘게 재생되고 있다. 싸구려 티가 물씬 나는 키치적 봉황 무늬 사이로 돼지머리와 오버랩 되는 얼굴은 혁, 돼지를 닮은 ‘그’이다. 대략, 작가의 직설적인 풍자를 낯설어 하면서 주섬주섬 전시장을 빠져 나온다.

「피드백FEEDBACK으로부터, 낯선 풍경」

피드백은 제어 대상의 동작에 대하여 목표치와의 차이를 끊임없이 검사와 그 결과 신호를 제어 장치에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서, ‘자동조절’을 뜻한다. 피드백이 낯설지는 않지만, 전시장 안의 황동액자 화면에는 전혀 낯설지 않던 ‘나’ 자신이 행한 조금 전의 동작이 되돌려 재생되면서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보고자 했던 실체를 하나씩 덮어 지워가는 나의 동작 피드백들은 긍정적이지 않은 자동 제어장치의 낯선 풍경일 수 있다. 해석의 폭을 넓힌다면, 이 사건은 마치 시·공간의 ‘자연’과 ‘누적’이 지닌 낯선 매력들을 일깨우고,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매체 상호작용 관계를 시각화하는, 또는 막후세력이 조정하는 협상 테이블을 풍자하는 낯선 풍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작가는 자신의 장치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신문, TV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수신자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연된 후 피드백 하거나, 또 개별 반응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신되는 피드백을 누적하고 집합해서 함께 피드백 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연되고 누적되는 피드백의 특성을 그럴듯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도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신뢰하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사실은 실체를 덮고 진실을 외면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설계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한 예술가의 질문일 것이다.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작가는 일상적일 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통하여 예술적인 경험이 생산될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은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들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신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작가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한다. 이번 ‘피드백’은 서로에게 피드백 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피드백하는 적절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조작과 왜곡에서 진전된,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실한 차원의, 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상상하고 있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미술작품과 나!! 바라보기”

김희선 작가의 “피드백”은 관람자와 관찰자 그리고 작품의 상관관계 및 설정이 지연되고 누적되는 피드백 현상을 이용하여 구성되어지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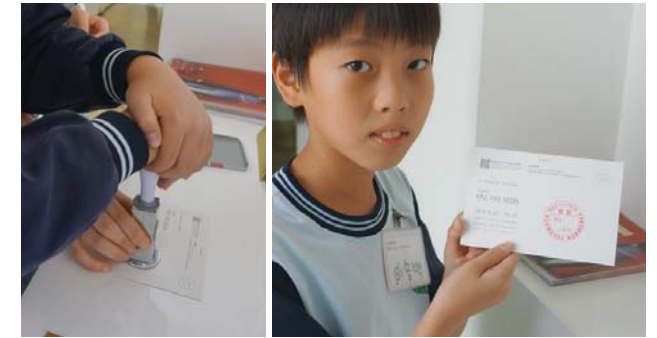
참여한 청소년들이 전시 공간에서 보여지는 지연 누적, 중첩되는 이미지들과 또다른 풍자적 영상을 감상하고, 현재 마스크를 통해 전달 받는 정보들에 대하여 작가가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 보고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진행과정

[작품 소개 및 감상하기]

1. 전시 관람예절과 안전 및 주의사항 안내
2. 전시실 입장 및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 입장 도장 찍기
3. 전시 작품 참여 및 감상하기
4. 전시 작품 감상 및 작가의
작품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



[또다른 미디어아트 감상하기]

김희선 작가의 다양한 작품 및 또다른 미디어아트 감상하기(영상이미지 감상)



[감상 활동지 작성하기]

작가의 작품에 직접 참여, 감상하고 에듀케이터를 통해 작품설명을 듣고 주어진 활동지에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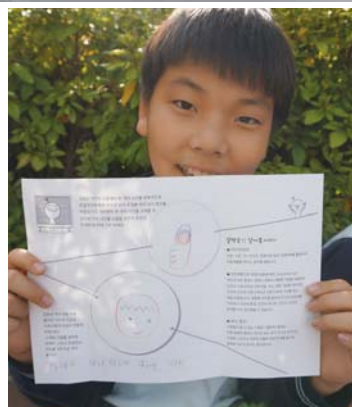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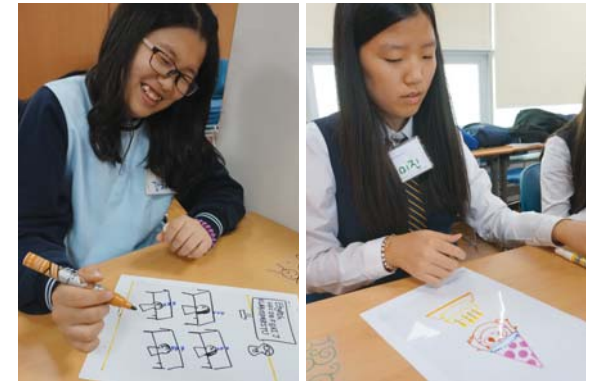
[미술작품과 나!! 바라보기]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자의 생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

OHP필름 3장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각각 자신이 원하는 주제 또는 무늬를 그리고, 간단하게 채색을 한다.

그림이 3장 모두 다른 내용으로 꾸며지도록 하고 계획하지 않은 우연하게 겹치는 이미지로 상상의 즐거움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1. 주어진 필름 3장에 각각 다른 내용의 주제 또는 무늬 그리기
2. 아무것도 겹쳐지지 않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 비추기
3. 그려놓은 필름을 한 장씩 또는 3장 모두 거울 앞에 넣어 얼굴을 비춰 작품 완성하기
4. 작가의 작품에서 보여졌던 이미지의 자연과 그로인해 의도치 않은 이미지의 중첩 효과 생각하기
5. 완성한 작품으로 서로서로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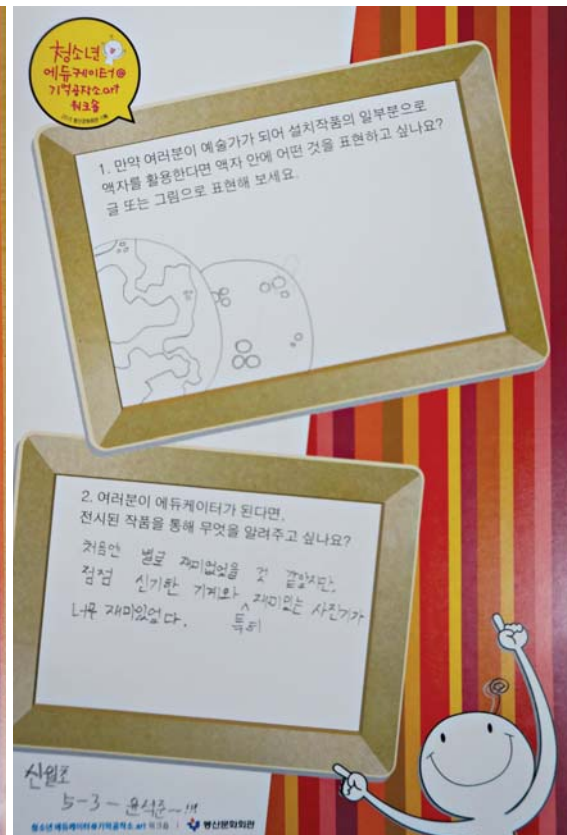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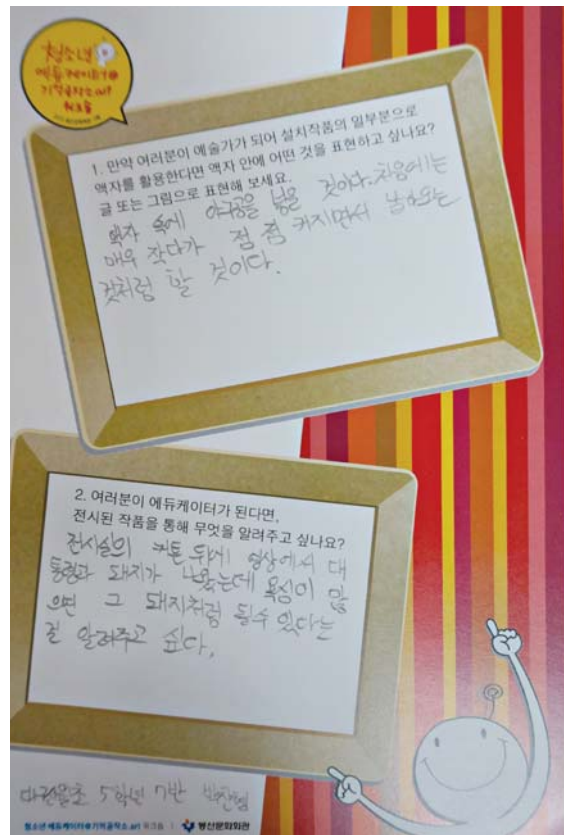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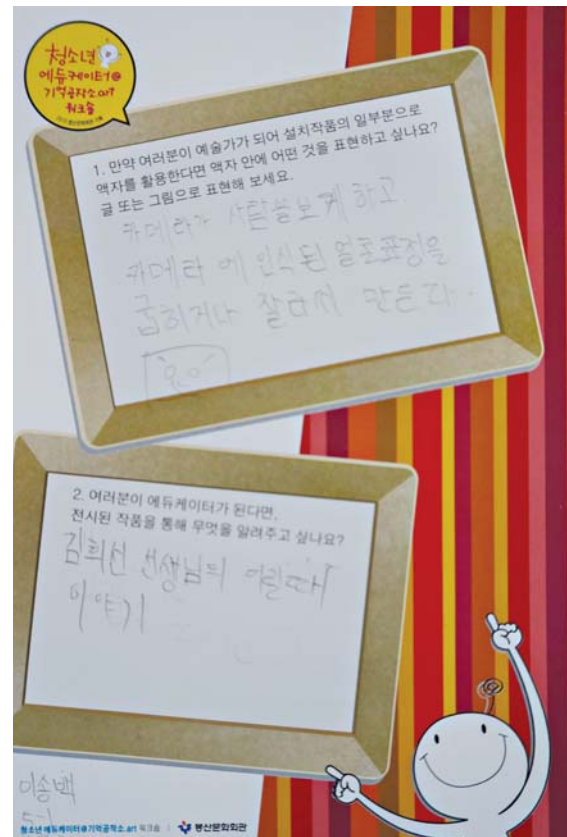


[청소년 에듀케이터 되기]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면서 김희선 작가의 작품을 좀 더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작가처럼 자신만의 작품을 생각하여 적어보기도 하며, 에듀케이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작가 작품의 어떤 점을 알게 하고 싶은지, 각자가 인상 깊게 느낀 점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본다.

이로 인해 타 관람자들이 작품을 관람하는 안내서가 될 수 있고 단순히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 주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하게 되며, 청소년 에듀케이터들의 생각을 엿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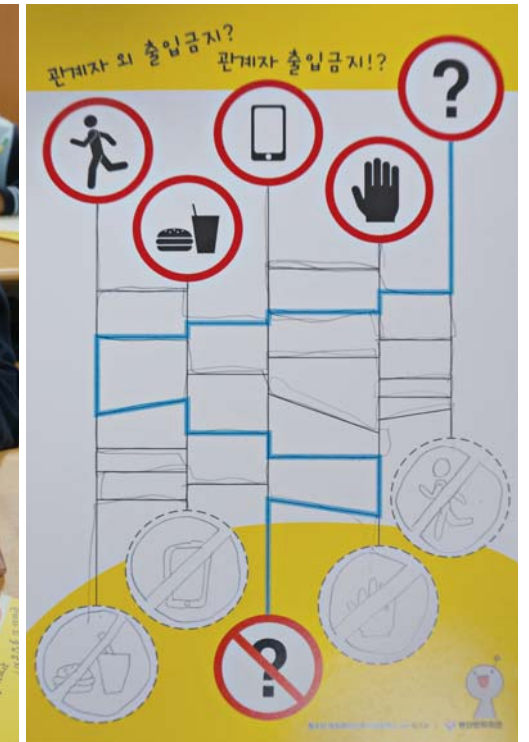
전시 기간 동안 청소년 에듀케이터로서 작성한 카드가 전시실 입구에 비치되어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관계자 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 출입금지”라는 말처럼 하나의 글자를 빼거나 더하여 의미가 반대되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 재미있는 요소를 적용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무리 하기]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전시실에 들어갈 때 찍었던 ‘입장’ 도장처럼 워크숍의 마무리는 ‘퇴장’ 도장을 찍고 끝을 맺기로 한다.



활동 카드 앞면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2013 봉산문화회관 기획전

일 정 : 2013. 4. 12 ~ 10. 27
장 소 : 봉산문화회관 제 4전시실 및 강의실
기 획 : 봉산문화회관
문 의 : 0531661-3081 www.bongsanart.org
후 원 :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은 2013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활동 카드 뒷면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상력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실현하고,
예술현장의 열정을 교육현장에 전달하여 예술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예술가와 에듀케이터의 현장감 있는 공감 및 협업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교육시스템 개발
- 단순한 전시감상에서 벗어나 '워크숍 형태의 체험', '전시감상 가이드를 배비러 만들기' 등 새로운 경험형식 개발을 통하여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그 소개 활동에 동참
-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전시 작가별 워크숍 시간표

구 분	전 시 기 간	작가와 만남	에듀케이터 워크숍								참여작가 워크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김주연	4. 12(금) 5. 5(토)	4. 12(금) 오전	4. 16 (토)	4. 19 (토)	4. 23 (토)	4. 26 (토)	4. 26 (토)	4. 30 (토)	4. 30 (토)	4. 20(토) 3pm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장준석	5. 17(토) 6. 30(토)	5. 17(토) 오전	5. 21 (토)	5. 23 (토)	5. 26 (토)	5. 30 (토)	6. 11 (토)	6. 13 (토)	6. 19 (토)	6. 20 (토)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김희선	9. 27(토) 10. 27(토)	9. 27(토) 오전	10. 1 (토)	10. 8 (토)	10. 10 (토)	10. 11 (토)	10. 15 (토)	10. 17 (토)	10. 22 (토)	10. 24 (토)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 전시를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김주연 Kim, Ju Yeon
책이 나고 잎이 나네... 숨쉬는 예술 상상
새책은 흙이 아니라 신문지 위에서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생명의 시작과 성장은 결국 유한한 생명에 대한 한계를 어슬렁 드러낸다. 이는 '살아있는 것'의 이야기인 동시에 존재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답을 만나는 체험을 시도해 본다.



장준석 Jang, Jun Seok
꽃! 글개! 한양의 변신~
'꽃'을 통해 'Fantasies'를 말한다. 'Fantasies'란 Fantasy(환상)+Less(=이 없는)의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환상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Fantasy가 변질 소멸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더 강렬한 환상을 바란다.



김희선 Kim, Hee Seon
미우알 고우알 이웃 이야기
작가는 특정 시간과 공간의 세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소통,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유언한 사고로 세상을 보다 창조적으로 전보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멀티미디어-인테랙티브 작업을 한다.

참여 에듀케이터 주 감 사 / 이미지, 전혜주, 신재희, 노성경
보조강사 / 장태영, 황배민, 김지희, 임은경, 임민영

A-Type 앞면



Kim, Ju Yeon
2013. 4. 12 ~ 5. 5

Opening : 2013. 4. 12 Fri. 6pm
Workshop : 2013. 4. 20 Sat. 3pm
Bongsan Cultural Center / Exhibition Hall

새책은 흙이 아니라 신문지 위에서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생명의 시작과 성장은 결국 유한한 생명에 대한 한계를 어슬렁 드러낸다. 이는 '살아있는 것'의 이야기인 동시에 존재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답론이다.

B-Typ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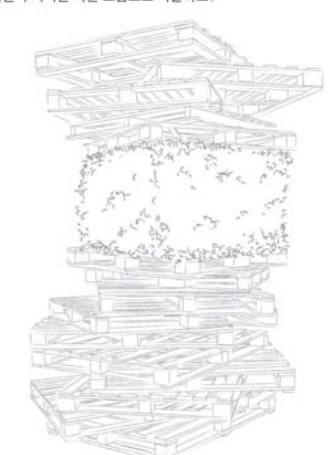


책이 나고 잎이 나네... 숨쉬는 예술 상상

학교 학년 반 이름

작은 씨앗에서 꼬불꼬불 책이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된 생명일까요? 새책의 숨소리를 같이 느껴볼까요?

• 이 작품은 매일 매일 다른 모습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봉산문화회관

A-Type 뒷면

에듀케이터(Educator)가 들려주는 (새책, 식물) 이야기

학교 학년 반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봉산문화회관

B-Type 뒷면



• 신문을 대신할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려 봅시다.



• 내가 표현한 작품의 제목을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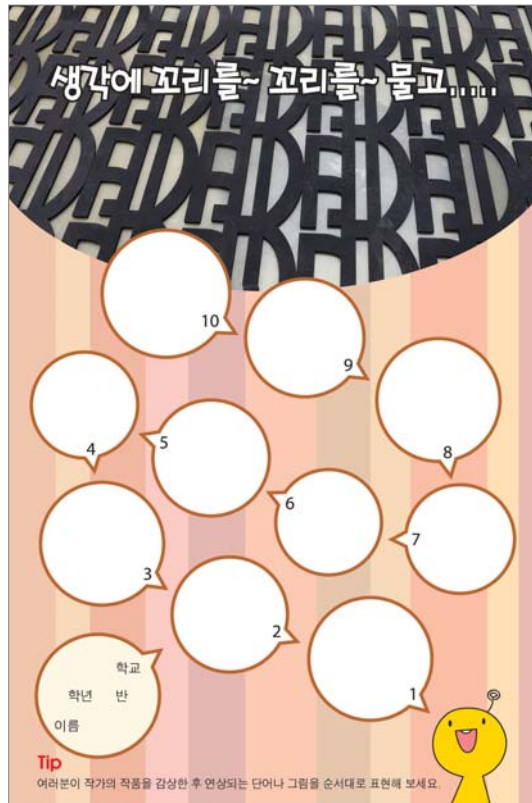
• (과)와 새책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봉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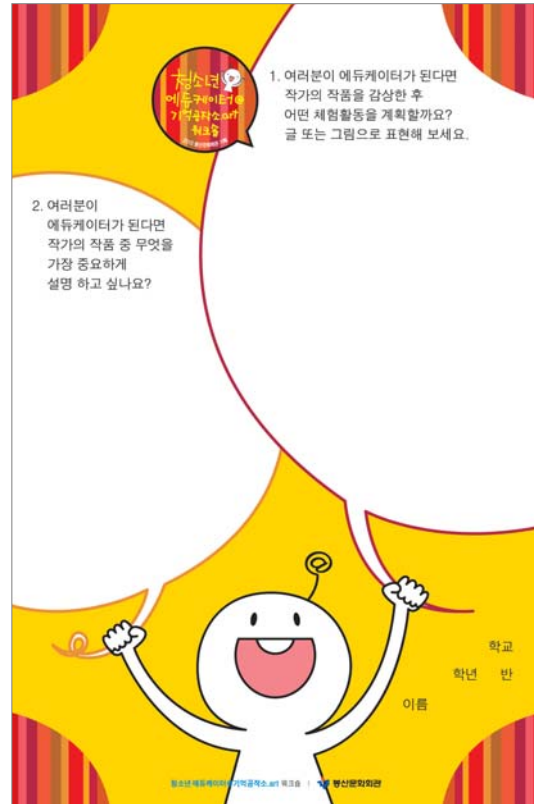
A-Typ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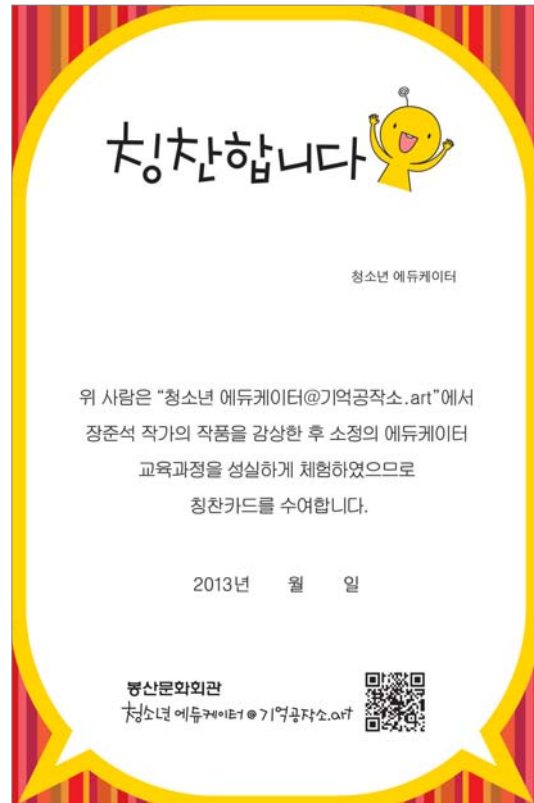
B-Type 앞면



A-Typ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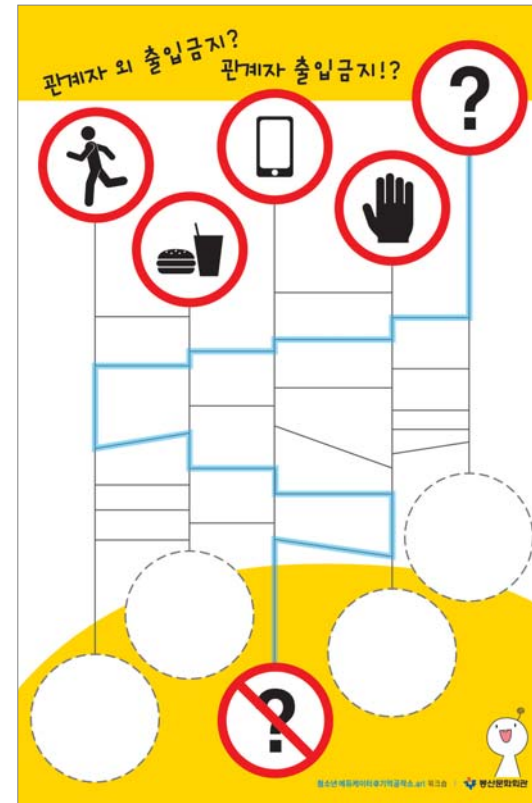
B-Typ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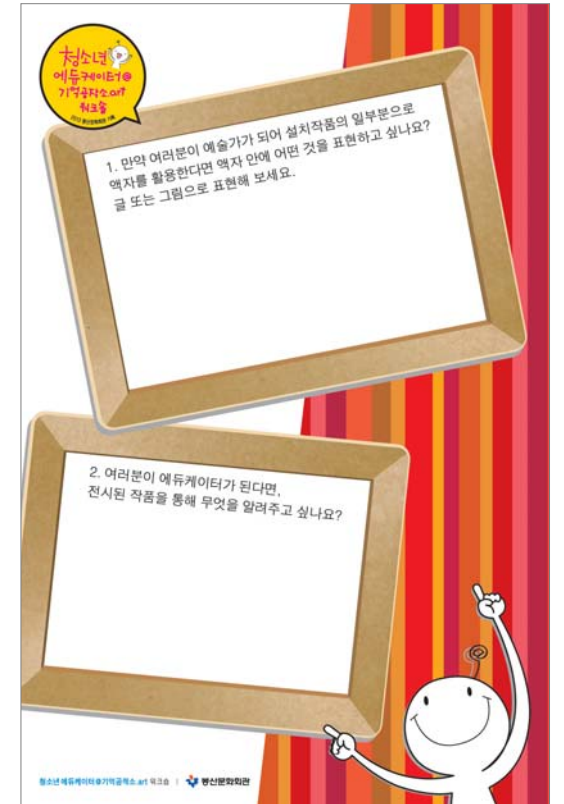
A-Typ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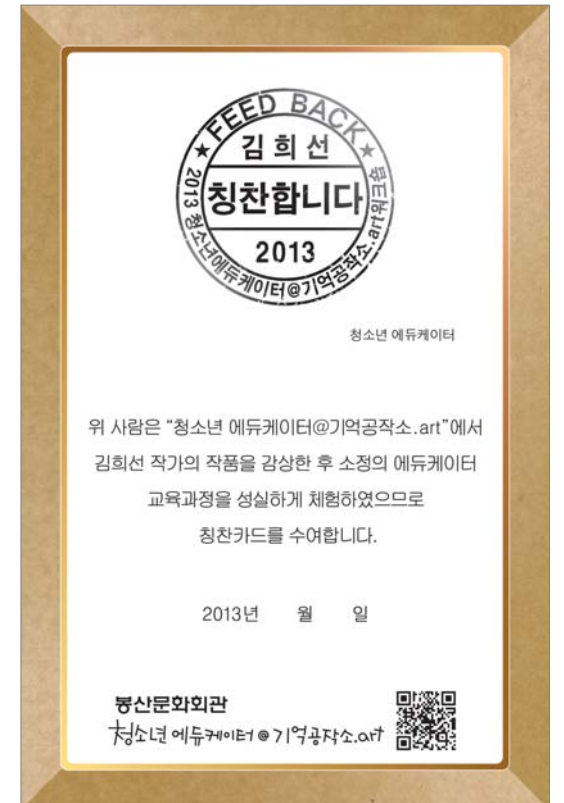
B-Type 앞면



A-Type 뒷면



B-Typ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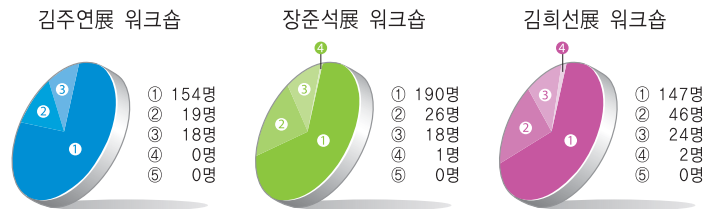


[상상력 프로젝트 – 청소년 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설문조사

체험 참가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주연展 참가자 191명, 장준석展 참가자 235명, 김희선展에 참가한 학생 219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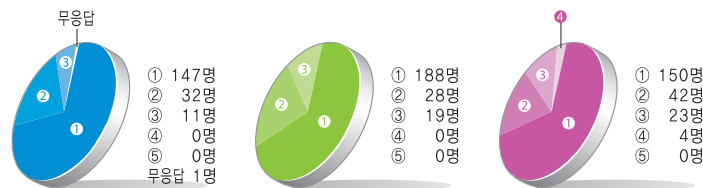
1.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 프로그램 수업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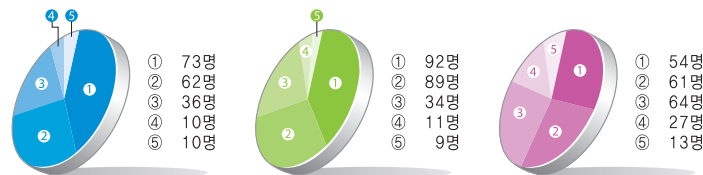
2. 이번 미술체험 프로그램 에듀케이터 선생님의 지도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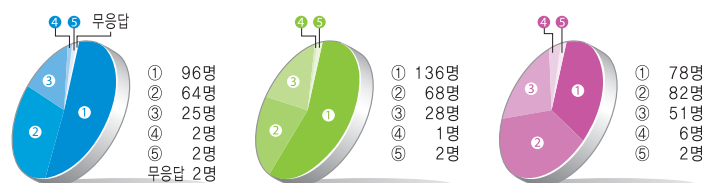
3. 평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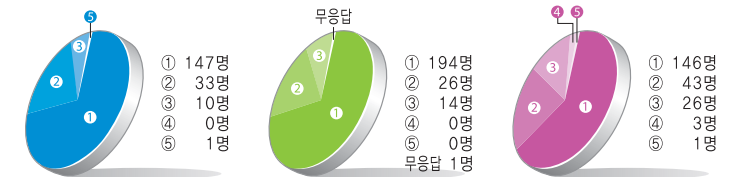
4.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을 통하여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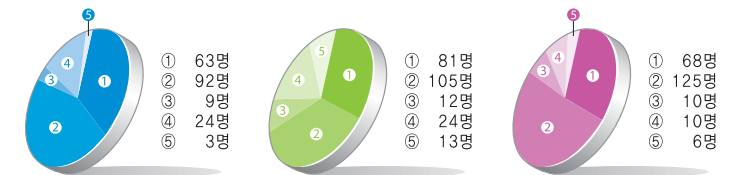
5.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이 재미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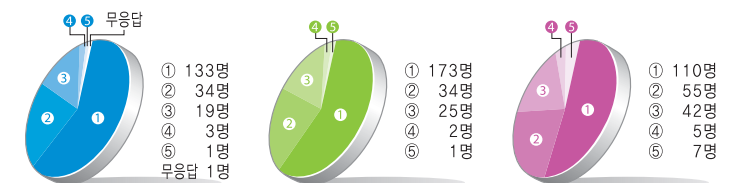
6.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알지 못했던 작가에 대해 접할 수 있었음 ② 색다른 체험프로그램 ③ 무료 교육의 기회
④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음 ⑤ 기타)



7. 향후에도 다른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기타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활동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넉넉했으면 좋겠다.
- 반 전체가 함께 협동심을 키우게 하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어요.
- 특이하고 재미있는 미술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 바깥 활동을 하면 좋겠다.
- 다른 작가의 작품도 알아보고 싶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김영진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김영진展 **Nega - Posi 2012**

전시기간

2012. 4. 13(금) ~ 5. 13(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4. 13(금)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4. 21(토) 오후 2시(70년대 대구의 미술)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2. 4. 17(화) ~ 5. 9(수) 제4전시실 및 강의실

김영진 Kim, Young Jin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2012 “기억공작소展”, 봉산문화관, 대구

2010 Gallery 604J, 부산

2009 신라갤러리, 대구

2002 스페이스129, 대구

2000 시공갤러리, 대구

1984 제3미술관, 서울

1980 리화랑, 대구

• 주요 단체전

1999 김영진 · 박현기 · 최병소전, 스페이스129, 대구

외 다수

기억공작소 『김영진』展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 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 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네거티브」

김영진 작가의 기억에는 1970년대 한국현대미술의 실험적 모색과 미술가 사이의 열정적인 교감 매체 로서 ‘미술’이 살아있다. 그는 고 정점식선생이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계성중학교시절부터 화실을 운영 하면서 ‘젊은 아트’클럽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당시 삼덕동화실에는 백태호선생을 고문으로 최병소, 손수광, 김건일, 문곤 등의 선배와 함께하였고, 이향미, 이강소, 이묘춘, 박현기, 김기동, 황현욱, 이명미 등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의 확산 기반이 되었고, 현재까지의 현대미술 발전에 에너지원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영진은 1974~79년 대구현대미술제와 양대평당전을 통하여 실험작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현대미술의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74년 껍질을 벗긴 고양이의 사체를 스프링 저울에 연결하여 천장에 매달아놓은 상황 연출로 죽음과 관계된 것들의 무게를 생각해보는 작품을 비롯하여, 1977년에는 요즈음 거리광고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동풍선을 제작하여 전시장에 설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1975년에는 풍선에 관람자의 메시지를 적어 날려 보내는 퍼포 먼스, 1984년에는 비디오 설치미술을 선보이는 등, 기존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실험미술가로서 자신의 흔적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아니 부정적이라 할 만큼 은둔적이고 뒤로 물러서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네거티브’는 실험 적이고 은둔적인 작가와 작업의 성향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네거티브 Negative는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Positive 와 상대되는 말로 부정과 거부 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잠상을 포착하기 위해 제작된 원본 필름과 음화 영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네거티브 이미지는 빛과 어둠에 대한 관람자의 기대를 전복시켜 매우 비현실적인 효과와 극단적인 감성을 담아내고, 사물의 표면을 투과하여 그 내면을 보는듯한 엑스레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사물의 이면을 관찰하거나 초자연, 죽음, 공허감을 묘사하는 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978년 제3회 양대평당전에 출품한 ‘work-78’의 기억은 네거티브 작업의 전형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로 생성하는 이 명료한 작업은 콧구멍, 손, 팔과 가슴 등 신체의 표면이 만나 움푹해진 부분에 석고 액을 채워 굳힌 결과물을 그 사진들과 함께 전시한 것이다. 이것은 작업의 네거티브가 되는 신체를 다시 보는 개념적인 작업으로 국외까지 소개되었다.

「Nega-Posi」

19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가 자신의 얼굴과 작가가 만난 수백 명의 얼굴을 석고로 떠낸 음각 마스크 작품을 살펴보면 머리카락, 피부의 주름과 땀구멍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음각 마스크 형틀은 필름의 네거티브와 유사하게 양각을 떠낼 수 있는 원본이란 점에서 입체 네거티브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 혹은 주체가 아닌 다른 외적 부분의 ‘채움’을 통해서 주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행위를 시각 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사실, 최근 작가의 관심은 네거티브 보다는 더 진화·확장된 개념인 ‘Nega-Posi’이다. 이번 전시 작품들의 원형이기도 한 음각 마스크는 빛과 그늘에 의해서 양각으로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며, 음각과 양각의 인식적 공존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음과 양이 나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동양의 음양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음각 마스크에서 떠낸 400여점의 양각 마스크와 12점의 음각 마스크, 얼굴의 네거티브 영상을 담은 10개의 모니터를 소개한다. 희고 높은 전시벽면 3면 전체에 오선을 긋고 리듬감 있게 설치한 알루미늄 양각 마스크는 반대쪽의 모니터와 마주하고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 음각 마스크 석고 틀이 설치되어있다. 거기에는 음과 양, 삶과 죽음, 외면과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로서의 세계가 보여주는 수많은 양면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은 ‘리얼한 것’의 표현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이다. 이는 곧 ‘삶’이고 ‘일상’이며, ‘깊은 우수를 머금은 웃음’ 정도로 설명된다.

작가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 좌표의 끝 지점을 조금씩 진화進化해 나아가고자하는 세계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의 허허하고 텅 빈 총만의 사건을 은유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작가가 제시하는 미래 기억일 것이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양면성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과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양과 음, 낮과 밤, 앞과 뒤 등, 서로 뗄 수 없는 양면적 현상에 대하여 단절되고, 대립적인 시각이 아닌 존재의 인정과 공존, 어울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시입니다. 일상의 사물들에서 양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의 차이와 관계를 짚어 보는 시간으로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진행과정

[전시실 감상하기]

1. 전시관람 예절과 안전 및 주의사항 숙지
2. 전시관람
3. 작가의 소개와 작가 작품의 이해
4. 활동지를 이용하여 감상 및 발표



[작품 제작과정 탐색하기]

1. 작가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주재료를 이용하여 제작과정을 탐색해 보는 시간
2. 김영진 작가가 석고 마스크를 제작했던 방식으로 석고반죽을 이용하여 손가락 틀을 떠보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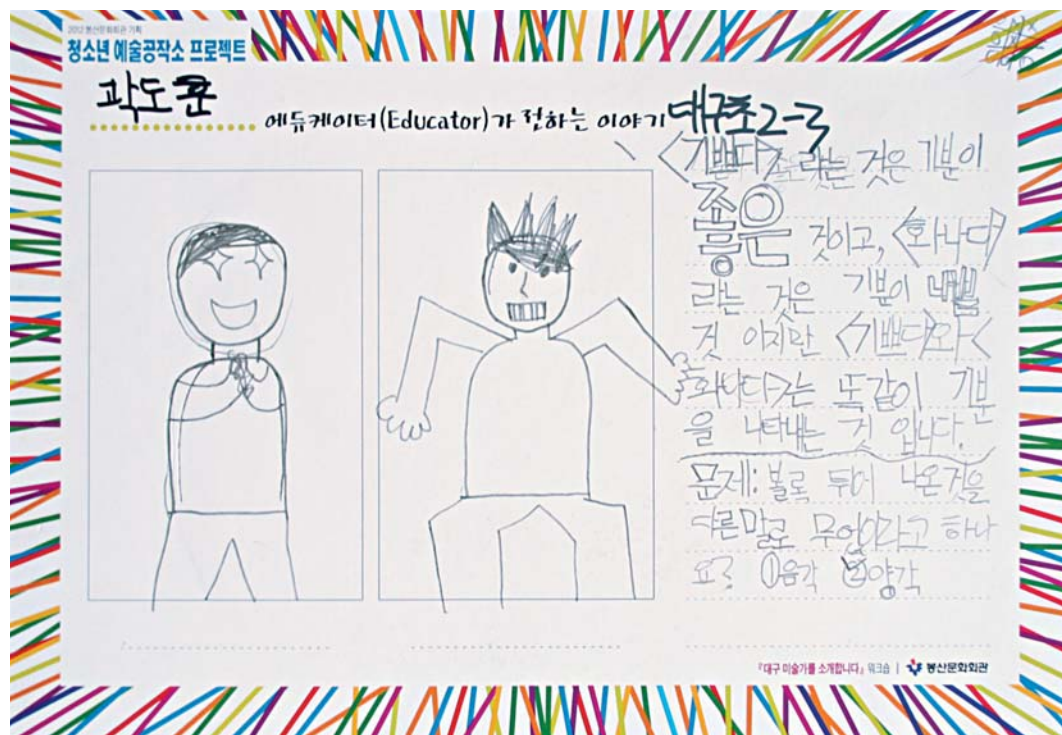
[손 모양 양각으로 표현하기]

1. 음각의 석고 틀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채워 넣어 양각으로 표현하기
2. 결과물을 액자 판에 설치하여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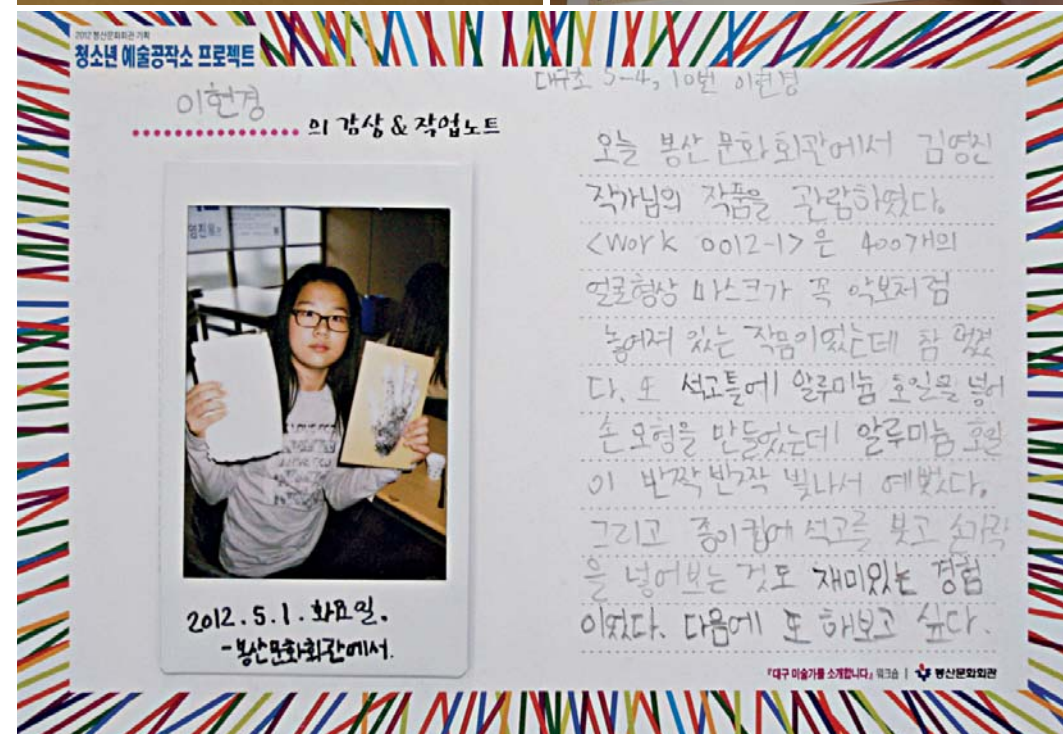
[나도 에듀케이터 되어 보기]

미술관의 교육담당자(에듀케이터)가 되어 관람자들에게 전시를 안내하는 역할 체험으로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 각자가 생각하는 일상생활 속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의 특성과 관계를 기술하여 관람자들이 양면성에 대한 접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관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카드는 전시 기간 중 전시실 입구에 비치하여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전시 감상문 작성하기]

'전시감상 & 작업노트'를 통해 전시감상, 체험활동과 표현, 에듀케이터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느낀 감상, 인상적이었던 점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보는 시간이다. 에듀케이터 카드와 함께 미니파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 에듀케이터 에필로그

“Nega - Posi 2012” 김영진展 워크숍

양각과 음각, 이것은 너무나 확연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 백 개의 얼굴 마스크는 마치 오선 위 음표처럼 높낮이가 다르게 설치되었다. 정지된 표정들이지만, 우리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듯 음표가 되어 악보를 구성하였다. 아이들은 신나는 음악, 조용한 음악 등 제 나름대로의 음을 유추하면서 감상하였고, 전시장을 가득 메운 작품 속에서 음악적 선율을 추측하기도 했다. 또한 음각의 작품이 빛에 의해 양각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신기해하기도 했다.

동양의 음악사상을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작가의 작업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색깔, 감정, 사회현상 등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면성은 상반되지만 대립이 아닌, 상호 공존과 협력, 순환의 관계를 갖는다는 작가의 포용적 철학을 흥미롭게 이해해 보는 시간이었다.

워크숍 참가자 명단(총 213명)

삼덕초등학교 4-1반 : 인솔교사 배지현 ; 2012년 4월 17일 09:00~12:00 ; 체험인원:24명
권한태, 김동하 김동현 김수민 류건우 류정훈 상연재 송사파 이지범 임예준 정재원 한지훈 홍상수 권소현 김초은 박재경 배민지 손명재 손수정 이승은 이효정 정수빈 채주은 홍상은

삼덕초등학교 4-2반 : 인솔교사 허지현 ; 2012년 4월 17일 13:00~16:00 ; 체험인원:22명
김근영, 김기봉 김현욱 문기현 박민규 신종민, 우인호, 이상현 이재점 이재훈 이주영, 이창민, 김가연 류수연 박정영 산수연 양지원, 정은서, 조채은 자민선 최정현 박태미

삼덕초등학교 4-3반 : 인솔교사 권광주 ; 2012년 4월 18일 09:00~12:00 ; 체험인원:24명
김민재, 김상민 김현욱 박성현 이상훈 이광규, 이광엽, 이창승 정우현 정준원 조민혁, 차정훈, 최우진 권민숙 김세민 김유진 김태영, 서지민, 양정선 이태현 장다운 장다현 정수빈, 최승원

대구초등학교 5-1반 : 인솔교사 이등우 ; 2012년 4월 24일 09:00~12:00 ; 체험인원:21명
강인하, 김소정 김현희 박성은 박배정 사유리, 손호현, 윤혜영 이지연 공경현 김대홍, 김지원, 김태훈 노현호, 류민기 박종균 신재엽, 양준우, 오세원 이재민 최혁철

대구초등학교 5-2반 : 인솔교사 정지영 ; 2012년 4월 25일 09:00~12:00 ; 체험인원:23명
김민지, 김소희 김윤아 소예진 신아연 이수진, 이태라, 정서진 정은솔 정혜연 조혜란 김대현, 김상수, 박동재 박연희 서원철 삼다현, 이수원, 이재민 전승훈 정영수, 조석현 허정준

대구초등학교 5-3반 : 인솔교사 김정용 ; 2012년 5월 1일 09:00~12:00 ; 체험인원:22명
김준서, 박수진 박선영 사유영 안호인 유혜진, 이승희, 전예송 정혜윤 김은택 김현동, 마승원, 박다인 박성현 안승준 임재현 정은영, 조상문, 한진승 함수민 황동규, 박준현

대구초등학교 5-4반 : 인솔교사 이소영 ; 2012년 5월 2일 09:00~12:00 ; 체험인원:21명
곽정환, 김기영 유선진 이근영 이예림 이유민, 이지원, 이지윤, 이현경 강기훈, 강범석, 김규현, 김근필, 김우민 김종현 김준욱 김효준, 신동준, 이정훈, 임상호, 지상민

대구초등학교 2-1, 3반 : 인솔교사 김지영 ; 2012년 5월 8일 09:00~12:00 ; 체험인원:27명
김지현, 김세희 박민주 박주연 양소은 조수연, 조은지, 홍수연 김효은 노혜린 마지원, 박민선, 김태현 서승원 송승현 신유빈 신재용, 안태훈, 오원석 조한결 하상민 강민성 유 찬, 곽도훈, 김민호, 박정우 박준석

대구초등학교 2-2, 3반 : 인솔교사 김영희 ; 2012년 5월 9일 09:00~12:00 ; 체험인원:29명
김도연, 김도영 김채원 박정민 이지유, 이하연, 정승현, 조현진 홍유진 박민주 박정은, 이민지, 한수빈 김동건 노홍석 박우현 오상석, 이종현, 임은빈 정준영 진승우, 최연우, 최정민, 배준석, 서승현, 소우진 영종환 이근우 조현준



정용국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정용국展 **Anywhere**

전시기간

2012. 5. 25(금) ~ 6. 24(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5. 25(금)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6. 9(토) 오후 2시 (수묵화 표현기법의 이해)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2. 5. 29(화) ~ 6. 20(수) 제4전시실 및 강의실



정용국 Jeong, Yong Ko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현)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조교수

• 개인전

2012 '기억공작소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0 'Cliff Hanger', 이브갤러리, 서울
2010 'Trans', 분도갤러리, 대구
2008 'Rootless Tree', 표갤러리, 서울
2007 'Organic Garden',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6 'The Gray Forest', 표갤러리, 서울
2004 '빈틈에 서다', 금호미술관, 서울

• 주요 단체전

2011 메이드 인 대구 - 아이들의 풍경, 대구미술관, 대구
외 다수

기억공작소 『정용국』展

‘기억공작소 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 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 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94개 그림자의 기억」

어두운 밤에 숲 가장자리의 그림자를 살펴본 적이 있다. 가로등 아래에 있는 나뭇잎들의 그림자가 짙은 회색으로 바닥에 드리워지고, 조금 떨어진 곳의 가로등 빛을 받은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쳐지면서 짙고 옅은 변화를 짓는다. 그 위에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 상관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형상을 만들어 상상의 재미를 맛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작가 정용국의 회화를 마주하면서도 비슷한 연상을 찾을 수 있다.

정용국의 이번 작업은 ‘Organic Garden’에서 출발한다. 수목원의 정원수를 수목으로 그리면서 인체의 장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상상이 모티브로 이어져 기이한 정원의 풍경처럼 펼쳐놓았던 작업이다. 물론 그 이전 작업, ‘야생野生’, ‘빈들에 서다’, ‘The Gray Forest’, ‘산수화山水花’에서 자연식물의 생명 원천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하는 다른 작업들이 있지만, 식물의 형태가 상상에 의해 중첩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변형과 증식을 통해 내연이 확장되는 형식의 작업은 유기체적 정원 풍경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재의 작업에 직접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작 ‘Anywhere’는 ‘Organic Garden’의 기이한 상상식물을 개별적 개체로 떼어 1개의 단위체로 설정하였다. 각 단위 개체는 27×34.5×1.8cm 크기의 화판에 새겨있으며, 이는 화귀약초의 표본이나 식물도감처럼도 보인다. 흰색 한지 바탕 위에 수목으로 그린 이 이미지는 각각의 기억 재생적 상상과 그것의 수목화적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그 이미지는 수목의 짙은 회색과 실루엣 형태를

강조한 외형 때문에 이름모를 식물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림자’에 담겨진 기억의 중첩을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명이 움트는 들판의 야생을 기억하고, 어두워진 빈들에 서서 하늘과 맞닿은 들의 자연 실루엣을 기억하고, 물을 잔뜩 머금은 담묵淡墨의 매력을 닮은 회색 숲의 기氣와 동세動勢를 기억하고, 수십 개의 산과 계곡을 이은 산수를 한 송이의 꽃으로 상상하는 유기적 기억들의 중첩이 ‘Anywhere’에 스며있다. “Anywhere—어디, 어디에나, 어디든, 아무데나, 어디엔가”는 네트워크의 깊이와 넓이를 통한 존재감을 직관하는 작가의 최근 화두이고, 이를 위해 94개 그림자의 기억을 수목의 한획 한획이 한지와 만나는 지점에 ‘생명’, ‘나무’, ‘정원’, ‘숲’, ‘세계’의 이름으로 중첩시키고 각자의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이미지로 읽어 낸다.

물론 이 개체는 ‘Organic Garden’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변형된 장기로도 중첩되어 세포와 장기 사이의 독립 또는 연결의 의미를 탐구하게 한다. 작가가 제시한 이미지 형태들은 시작도 끝도 갖지 않고 언제나 중간에서 자라고 움직이는 리좀Rhizome형 관계 맺기 방식으로 존재한다. 수목의 겹쳐짐과 기억의 중첩, 식물과 동물 장기가 겹쳐진 94개 그림자 기억의 관계 맺기, 작가는 그 에너지의 중첩된 시너지와 인식 너머의 ‘심연’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선형 유기체」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동일 크기의 그림자 이미지 패널 92개가 90cm 높이의 가로 한 줄 선형으로, 마치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 진열을 보는 것 같은 풍경으로 설치되어 있다. 인류가 발견하고 탐구한 자료를 축적하고 기념하는 행위의 일면처럼, 또한 부분과 개체의 연결로 전체 유기체가 생명을 지닌다는 상징 혹은 유기체의 생태적 상징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는 설계이기도 하다. ‘Anywhere’는 작가가 수목작업을 수행하는 태도처럼 자기 스스로 순환하고, 자기 논리성을 가진 일종의 자동적 상태의 표현 이다. 자동 기술적이라 할 만큼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생명의 그림자에서 지향은 무엇일까? 균형? 혹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채로 주변의 유기체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생존 ‘균형’을 찾아가는 신비함의 은유는 아닐런지?

작가의 공작은 화면에 수목의 획으로 기억을 겹쳐 식물의 줄기나 잎, 뿌리 형상을 드러내거나, 혹은 인체의 장기, 허파, 간, 췌장, 십이지장, 위장, 신경과 혈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연결로, 세계의 모든 단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전하고, 이들 개체들의 에너지와 ‘균형’ 지향을 탐구하였다. 생명과 삶을 둘러싼 신성한 순환을 끊임없이 가시화하려는 작가는 인류의 오랜 기억들을 그림자로 재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균형’에 대하여 언급하려는 듯하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만의 다른 기억이면서, 동시에 관객의 미래 기억이 새롭게 펼쳐지는 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수목의 예민함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작가의 다른 생각이 새로운 균형감을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전망에 관계하는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새로운 형태 해석-몸 안의 정원”

우리가 평소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물에 해당하는 미의 기준이 아닌, 전혀 생소한 대상을 묘사하면서 자연을 닮은 혹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그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먹의 느낌을 살려 자세히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성에서 연상되는 대상과의 관계 등을 되짚어 보면서, 아름다움에 관한 선입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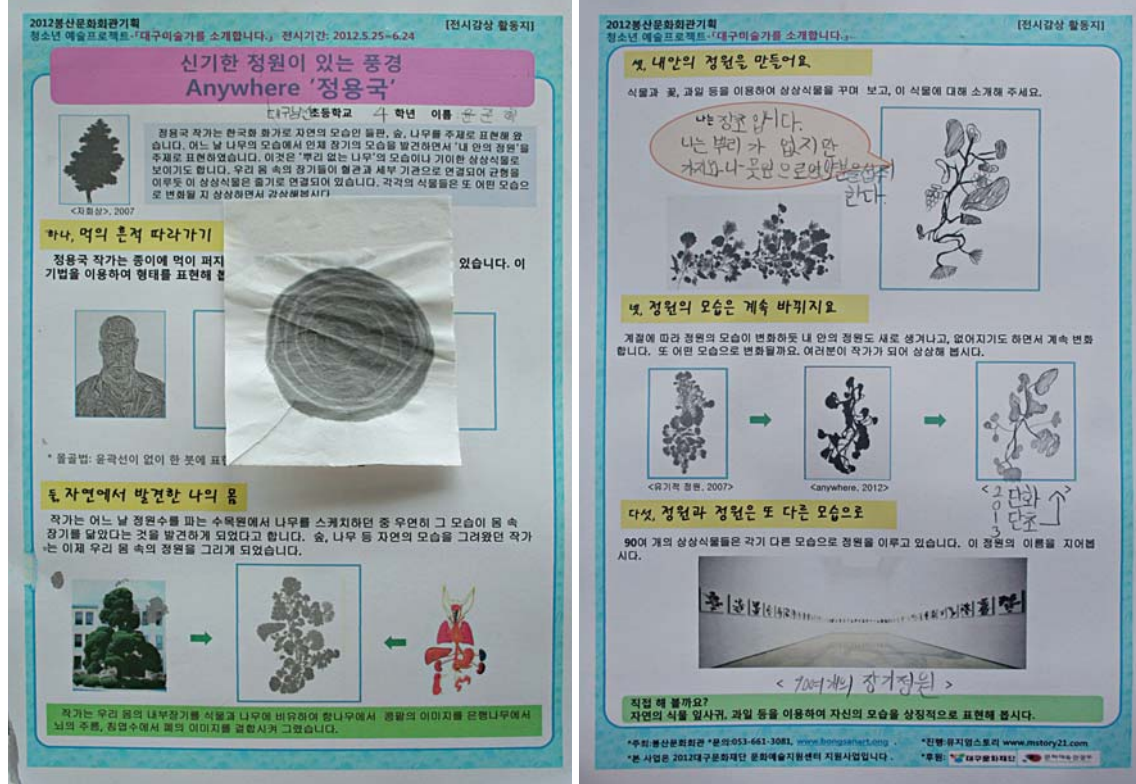
[전시실 감상하기]

1. 전시관람 예절과 안전 및 주의사항 숙지
2. 전시관람
3. 작가의 소개와 작가 작품의 이해
4. 활동지를 이용하여 감상 및 발표



[정용국 작가의 실기 체험하기 : 전통기법으로 그리기 체험]

1. 나이테를 그리면서 발묵법을 표현해 보고, 활동지에 붙이기
2. 과일과 채소를 표현하며 발묵법 연습하기



[나의 자화상을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화상 만들기]

준비된 판넬에 아채, 과일 등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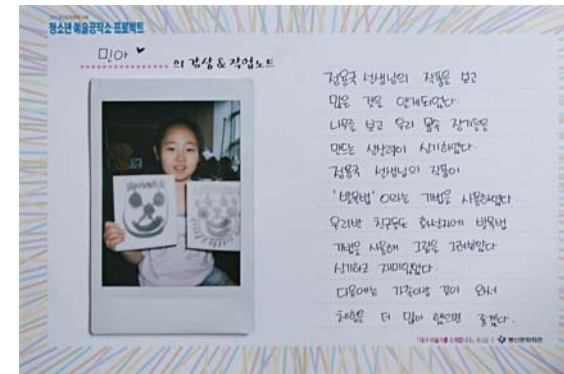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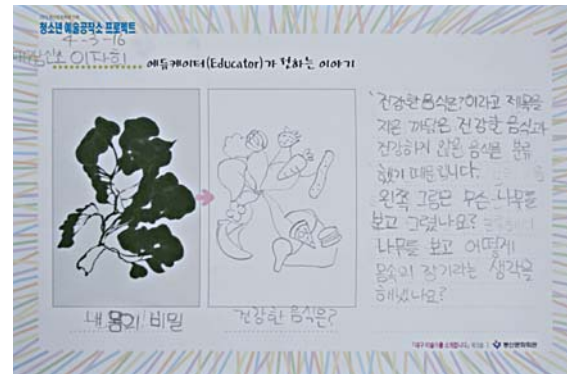
[두방지와 먹물, 붓 등 재료의 특성을 숙지하고, 두방지에 자연물로 나의 자화상 그리기]

1. 발묵법으로 자화상 그리기
2. 자화상을 추상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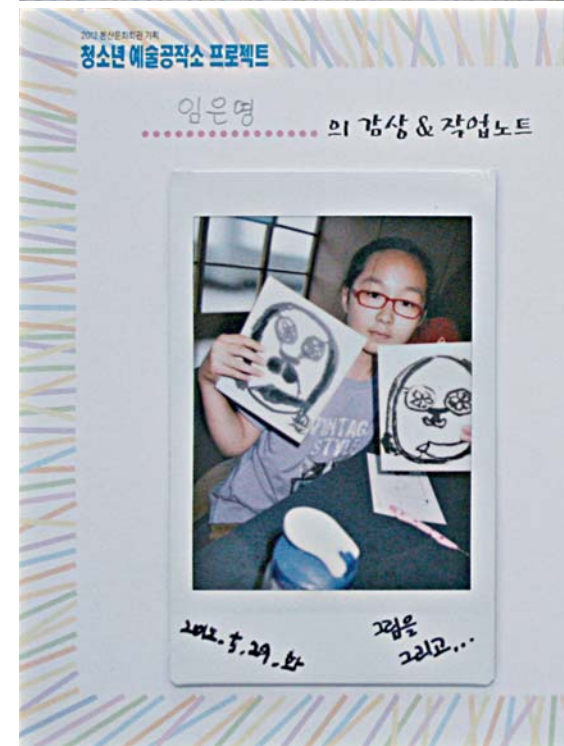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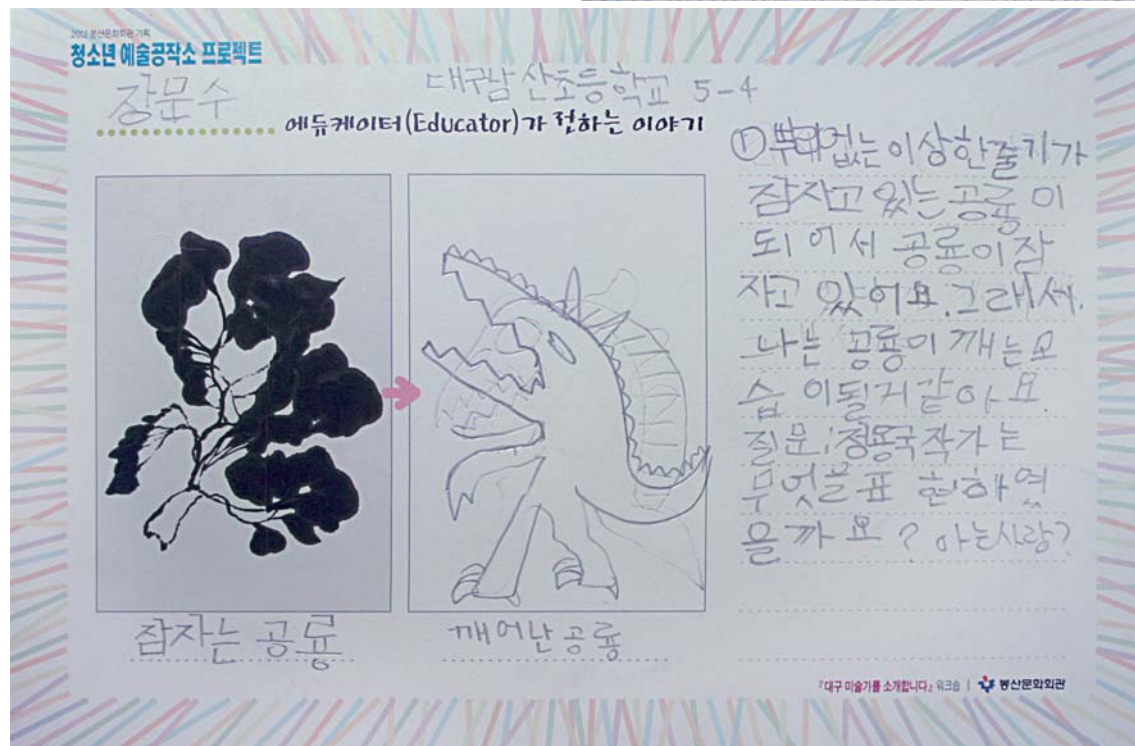
[나도 에듀케이터 되어 보기]

미술관의 교육담당자(에듀케이터)가 되어 관람자들에게 전시를 안내하고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 서로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성에서 연상되는 대상과의 관계 등을 되짚어 보면서, 아름다움에 관한 선입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관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카드는 전시 기간 중 일주일 동안 전시실 입구에 비치하여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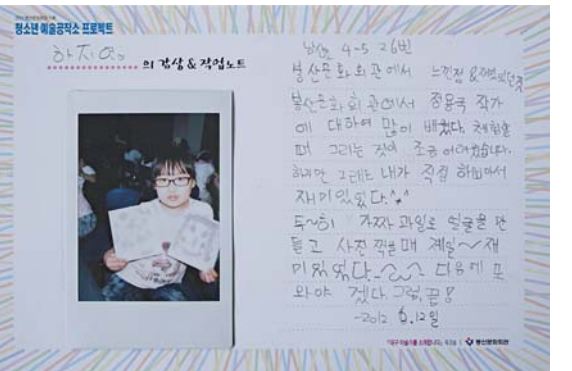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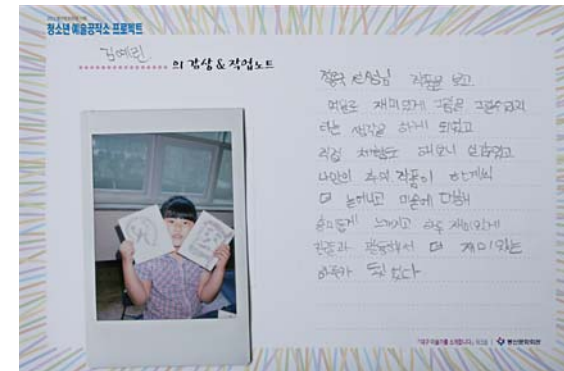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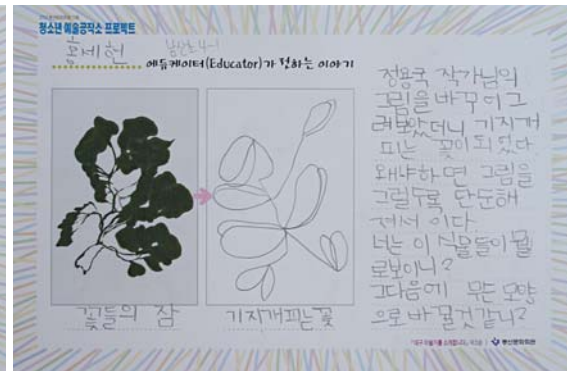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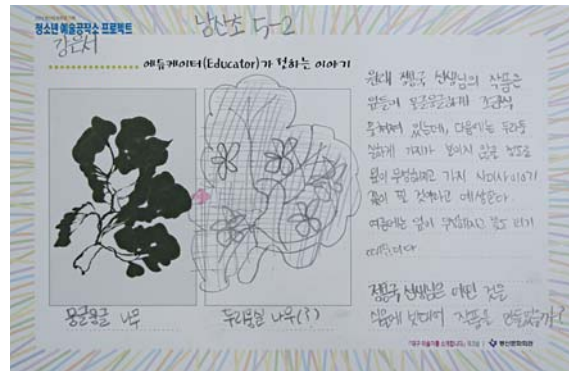


[전시 감상문 작성하기]

'전시감상 & 작업노트'를 통해 전시감상, 체험활동과 표현, 에듀케이터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느낀 감상, 인상적이었던 점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보는 시간이다. 에듀케이터 카드와 함께 미니파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오늘 정몽국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다. 그림을 그릴 때 과일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또 이야기 하나가 우스꽝스러웠기도 하였고, 이상하기도 했다. 정몽국 선생님의 그림을 보니까 과일이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꽃이 달려 있는 것 같았는데 괴상한 것도 달려 있는 것이 꼭 외계 생물체 같았다. 이렇게 신비롭고 즐거운 수업을 두명이 기분이 좋았다.



▶ 에듀케이터 에필로그

“Anywhere” 정용국展 워크숍

작가의 눈썰미는 평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목원에서 발견한 나무에서 우리 몸 속 신체 장기의 이미지를 연상했다는 작가의 얘기는 우리가 보는 풍경의 이미지와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했다. 작가에게 처음 영감을 주었던 향나무 모습을 같이 관찰해 보고, 작가가 발견한 것을 쫓아가 보면서 감상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게 간, 이건 위를 닮았어요”라고 했다. 수목으로 들뜬, 나무 등 자연의 풍경을 그려 왔던 작가가 우리 ‘몸 안의 풍경’을 그리게 되었고, 점점 계절에 따라 자연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처럼, 몸 속 정원의 모습도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감상하였다. 아이들은 이제 몸 속 정원이 이후 어떻게 성장, 분화 될 것인지 상상해 보기도 했다.

직접 과일, 채소 모형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연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해석과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일면을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다.

워크숍 참가자 명단 213명

남산초등학교 5-4반 : 인솔교사 박선지 : 2012년 5월 29일 09:00~12:00 : 체험인원:27명
곽경민, 김교현, 김성민, 김성윤, 김윤진, 김복순, 나유성, 노유진, 박재현, 박준수, 배경민, 배재현, 서문교, 송수빈, 심윤택, 안진영, 윤지성, 이동원, 이예진, 이종화, 임은영, 정문수, 장유진, 조효령, 최민수, 최은아, 김사은

남산초등학교 5-2반 : 인솔교사 권영신 : 2012년 5월 30일 09:00~12:00 : 체험인원:26명
강은서, 고은서, 구보성, 구재환, 김동욱, 김민서, 김명준, 김유영, 김재현, 김준호, 송윤중, 오준택, 이동훈, 이민지, 이상준, 이수인, 이재빈, 정재필, 정해운, 조민기, 조희원, 최은아, 최아연, 한자민, 홍승현, 김민주

남산초등학교 4-1반 : 인솔교사 최교선 : 2012년 6월 5일 09:00~12:00 : 체험인원:26명
강석진, 권순호, 권우진, 권한민, 김복순, 김배민, 김정훈, 김지은, 김태규, 박성민, 박승원, 유현서, 이상환, 이승연, 이승호, 이윤지, 이경원, 이태민, 정사윤, 정사윤, 장수현, 정찬호, 정현동, 주예은, 홍세현, 황보재민

남산초등학교 4-2반 : 인솔교사 박은수 : 2012년 6월 5일 13:00~16:00 : 체험인원:28명
공경원, 권진영, 김경민, 김민지, 김시현, 김연정, 김정훈, 김지은, 박나은, 박수민, 박해송, 박한진, 변해운, 서진호, 오현주, 윤준혁, 이승준, 이재형, 이경수, 전기웅, 전수민, 전영환, 장수진, 장유현, 정윤형, 조재식, 최수하, 조윤주

남산초등학교 4-5반 : 인솔교사 이장아 : 2012년 6월 12일 09:00~12:00 : 체험인원:25명
권도현, 김민정, 김민철, 김우진, 박성현, 배근표, 배준호, 박승희, 박해빈, 심민재, 신윤민, 유수진, 이윤동, 이종인, 이자원, 이재현, 이현민, 이혜원, 이호주, 임은아, 장지윤, 정현욱, 정도빈, 진 현, 하지민

남산초등학교 4-4반 : 인솔교사 송한정 : 2012년 6월 13일 09:00~12:00 : 체험인원:27명
강민호, 권혁준, 김도현, 김동규, 김민기, 김보람, 김세현, 김은진, 김장민, 김찬영, 김재경, 박종윤, 서예림, 서준교, 손유지, 신현성, 유정영, 윤상현, 윤정환, 이승규, 이유진, 이주원, 이자원, 최예은, 최정원, 황기희, 김나영

남산초등학교 4-3반 : 인솔교사 김영숙 : 2012년 6월 19일 09:00~12:00 : 체험인원:27명
강남희, 김도원, 김은정, 김준형, 도현석, 마정현, 박성후, 박세라, 박지유, 서수민, 석지윤, 오민아, 윤세린, 이승환, 이은석, 이자희, 이준상, 이혜연, 이형규, 전민지, 정윤재, 정재민, 조종민, 천유선, 최현희, 한종훈, 황우석

남산초등학교 5-6반 : 인솔교사 김윤경 : 2012년 6월 20일 09:00~12:00 : 체험인원:27명
고은비, 고준석, 권은혜, 김근홍, 김민지, 김민재, 김경규, 김유중, 김재민, 박나영, 박세라, 박재민, 방창현, 방지효, 서승미, 서은수, 손현서, 육주혁, 이동인, 이은아, 이재원, 이현준, 조민기, 조희원, 최유성, 최민지, 김현유



하광석展 에듀케이터 워크숍

전시

기억공작소 ; 하광석展 **Truth in Non - Reality**

전시기간

2012. 7. 6(금) ~ 8. 5(일) 제4전시실

작가와 만남

7. 6(금) 오후 6시

참여작가 워크숍

7. 14(토) 오후 3시(작가 작품 프레젠테이션)

청소년 에듀케이터 워크숍

2012. 7. 10(화) ~ 7. 25(수) 제4전시실 및 강의실

하광석 Ha, Kwang Suk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New York University, Art and Media 전공, 대학원 졸업

• 개인전

- 2012 “기억공작소展”,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08 “봉산 젊은 작가상 수상 기념 초대전”, 예송갤러리, 대구
“하정웅 청년작가상 수상 초대 빛 전”
하정웅 청년작가상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7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유리상자”, 봉산문화회관 기획초대전,
봉산문화회관 유리상자 갤러리, 대구
- 2006 “Time Sojourn” MASS 기획초대전, space MASS, 서울
- 2005 “On & Off Space”, MASS 기획초대전, space MASS, 서울
- 2004 “Spatial Sojourn”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1 “Spatial Sojourn” Solo Show,
80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ies, New York City.
- 2001 “POND” Video Installation, Solo Show,
Observation Room, New York City.

• 주요 단체전

- 2008 이미지의 반란, 대구현대미술전 기획, KT&G 별관창고, 대구
외 다수

기억공작소 『하광석』展

‘기억공작소記憶工作所 A spot of recollections’는 예술을 통하여 무수한 ‘생’의 사건이 축적된 현재, 이곳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작하려는 실천의 자리이며, 상상과 그 재생을 통하여 예술의 미래 정서를 주목하려는 미술가의 시도이다.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동화되어 생명의 생생한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 라면, 예술은 또한 그 기억의 보고寶庫이며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공작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예술은 자신이 탄생한 환경의 오래된 가치를 근원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재생과 공작의 실천을 통하여 환경으로써 다시 기억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라, 또 다른 기억을 위하여 Think different, for different memories

예술은 생의 사건을 가치 있게 살려내려는 기억공작소이다. 그러니 멈추어 돌이켜보고 다르게 생각 하라! 둘러앉아 함께 생각을 모아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독특한 해석과 그들의 다른 기억을 공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전망을 단단 하게 붙잡아 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억을 위해 제시할 것이다. 기억공작소는 창조와 환경적 특수성의 발견, 그리고 그것의 소통, 미래가 곧 현재로 바뀌고 다시 기억으로 남을 다른 역사를 공작한다.

「시뮬라크르의 기억」

전시장 가득 푸른색이 담겨있고, 심상치 않은 바람이 느껴진다. 바람에 따라 춤추듯이 일렁이는 나뭇 잎의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워져 관객의 온몸을 둘러싸고 마음 깊은 곳의 서정을 떠올리게 한다. 머리 위에는 새벽녘 하늘 사이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둥근 달이 떠있다. 마치 물속에서 수면 위에 비친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바닥에는 특별한 제의식의 신비를 준비하는 도구처럼 푸른빛을 발하는 투명한 유리수조가 잔잔한 수면 파동을 품은 채 놓여있다. 이것은 작가가 마련한 시뮬라크르의 미혹 속이다. 현실과는 다른 가상현실, 그리고 실재가 아닌 파생 실재로 대체된 인위적인 풍경을 하나의 사건으로 펼쳐놓은 관객의 환경이다. 이 사건 ‘Reality-Ilusion’은 관객의 몰입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며, ‘허상’에 관한 작가의 기억 혹은 질문을 공유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또 다른 기억 하나」

전시장 한편 바닥에는 한옥의 사랑방에 어울릴만한 등잔불이 켜져 있고, 그 빛이 주위를 밝히면서 전시장 벽면에 등잔대와 나비광배의 그림자가 비춰진다. 바람을 막거나 빛을 반사시켜 밝기를 더해 주는 나비광배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흥미롭다. 조금씩 흔들리며 움직이던 나비의 날개가 몇 번의 날개 짓을 더하고 나비는 어느새 훨훨 날아간다. ‘Reality-Shadow#11’은 날 수 없는 나비 광배와 실재처럼 보이는 그림자 ‘허상’을 통하여 시뮬라크르의 기억과 질문을 공유한다.

하광석의 작업은 실재가 지닌 결핍의 주목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최근 발표했던 ‘불이 꺼진 촛대’, ‘꽃과 잎이 없는 마른 나뭇가지’, ‘사람이 빠져나간 옷’ 등 ‘Reality-Shadow’ 시리즈에서 실제 오브 제가 지닌 결핍을 전면에 내세우고, 오브제의 그림자 영상이 결핍을 해소하는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이 결핍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복제물로서 현실이 지닌 결핍이기보다는 오히려 들뢰즈가 생각하는 시뮬라크르의 대상 모델이 가질법한 상대적 결핍으로 이해된다.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는 모델과 동일해 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뛰어넘어 새로운 독립성을 창조해 가는 역동성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광석의 작업에서는 결핍을 지닌 실재 오브제와 그것의 그림자로서 시뮬라크르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그림자 영상에서 촛불이 켜져 바람에 흔들리고, 나무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며, 옷을 입은 인물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것들도 모델 오브제의 결핍을 해소하는 시뮬라크르의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말하는 ‘모델과 시뮬라크르’, ‘현실과 허구’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처한 현대사회의 구조를 은유하기도 한다. 장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보와 매체의 증식으로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고 현실의 모사나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들이 실재를 지배하고 대체하는 곳이며, 더 이상 원본과 모사물의 구별이 없이 재현과 실재의 관계는 역전되고, 원본이 없어진 시뮬라크르들이 더욱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를 생산해낸다고 한다. 하광석은 이러한 시뮬라크르의 기억공작을 통하여 없어진 원본, 즉 실재의 ‘결핍’에서 나아가 실재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번 전시작중 ‘Reality-Ilusion’은 실재의 ‘부재’를 질문한다. 원본에 해당하는 모델은 어디에도 없으며, 영상매체에 의해 복제되어 바닥의 수면에 투사된 그림자 영상이 이 공간에서는 첫 모델이 된다. 물이 담긴 투명수조의 수면과 물 속 반사경에 투사된 영상들이 반사 복제되어 사방 벽면에 펼쳐진 영상, 그리고 물 표면에 반사되어 천정에 투사된 영상과 섞이면서 첫 모델 그림자와는 다른 새롭고 역동적인 스스로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뮬라크르로서 ‘실재가 부재’한 사건이다.

작가가 제시한 이 몰입 사건은 관객이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적 현실 환경이지만, 원본 혹은 모델, 실체가 없는 시뮬라크르란 점에서 ‘허상’이고 이 점에서 ‘진리’는 무엇인지를 작가는 스스로와 관객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진리와 삶을 둘러싼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시각화하려는 작가는 인류의 오랜 기억들을 결핍 혹은 부재와 역동적인 그림자의 관계로 공작하고 재생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실체’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공작해 낸 자신만의 다른 기억이면서, 동시에 관객의 미래 기억이 새롭게 펼쳐지는 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몰입의 사건 기억을 재생하는 작가의 다른 생각이 세계를 향해 질문하는 인류의 전망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체험 주제 | “그림자 영상의 실체를 찾아라”

우리는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와 그 문화 속에서 매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광석 작가는 실제의 오브제와 미디어에 의해 변형된 오브제의 그림자를 통해 영상매체가 가진 불완전성, 가변성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감상한 후, 그림자 영상의 실체를 추측하여 그려보고 아이클레이로 직접 조형물을 만들어 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영상에 더 익숙해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의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영상의 것에 의존하여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치부되는 미디어 영상의 불완전함과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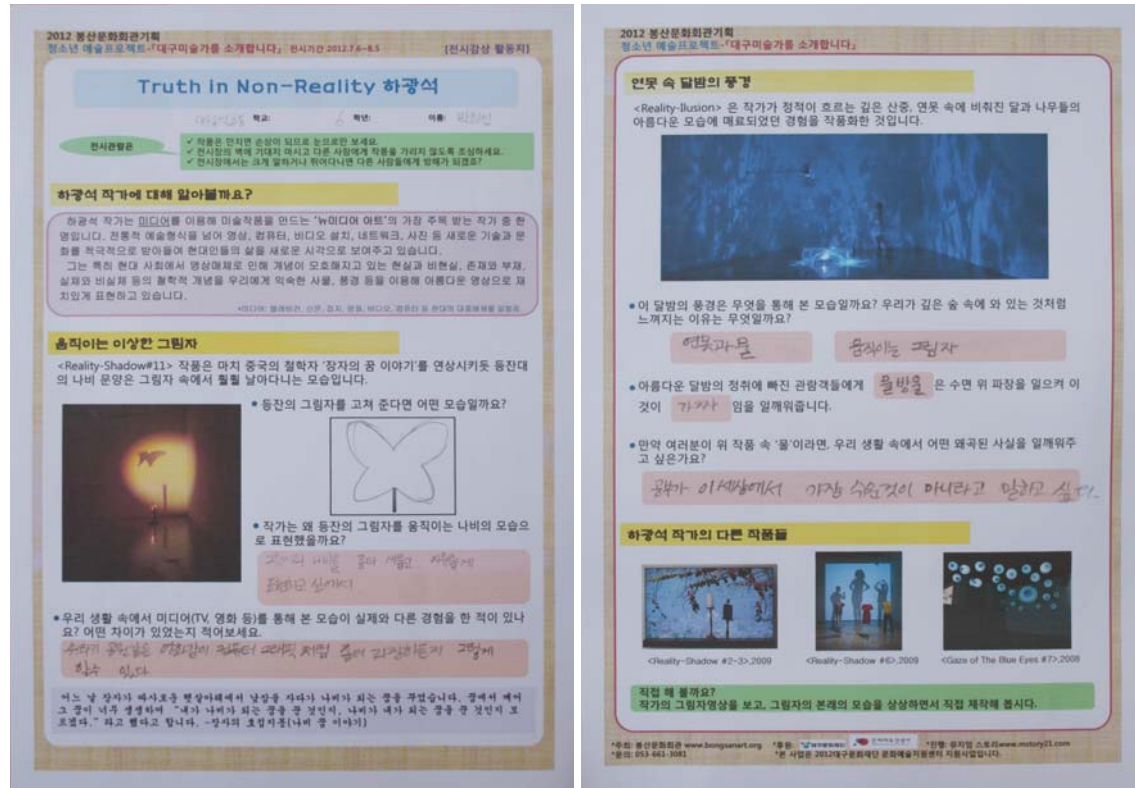
[전시실 감상하기]

1. 전시관람 예절과 안전 및 주의사항 숙지
2. 전시관람
3. 작가의 소개와 작가 작품의 이해



[하광석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 주제 감상하기]

그림자를 다루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고 주제를 찾아, 활동지를 이용하여 감상 소감을 적고 발표한다.



[색 섞어 보기, 자르기, 모양 만들어 보기]

제작 체험활동에 필요한 클레이 재료를 탐색해 보고, 아이클레이를 이용해 그림자에서 유추하고 상상한 실제 오브제를 만든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영상에 비춰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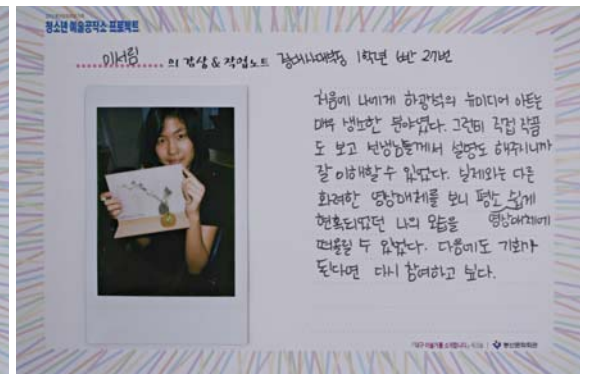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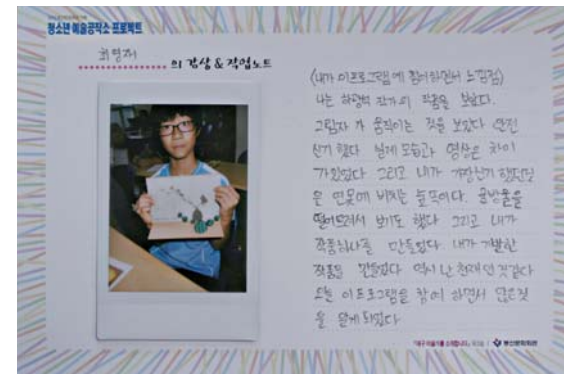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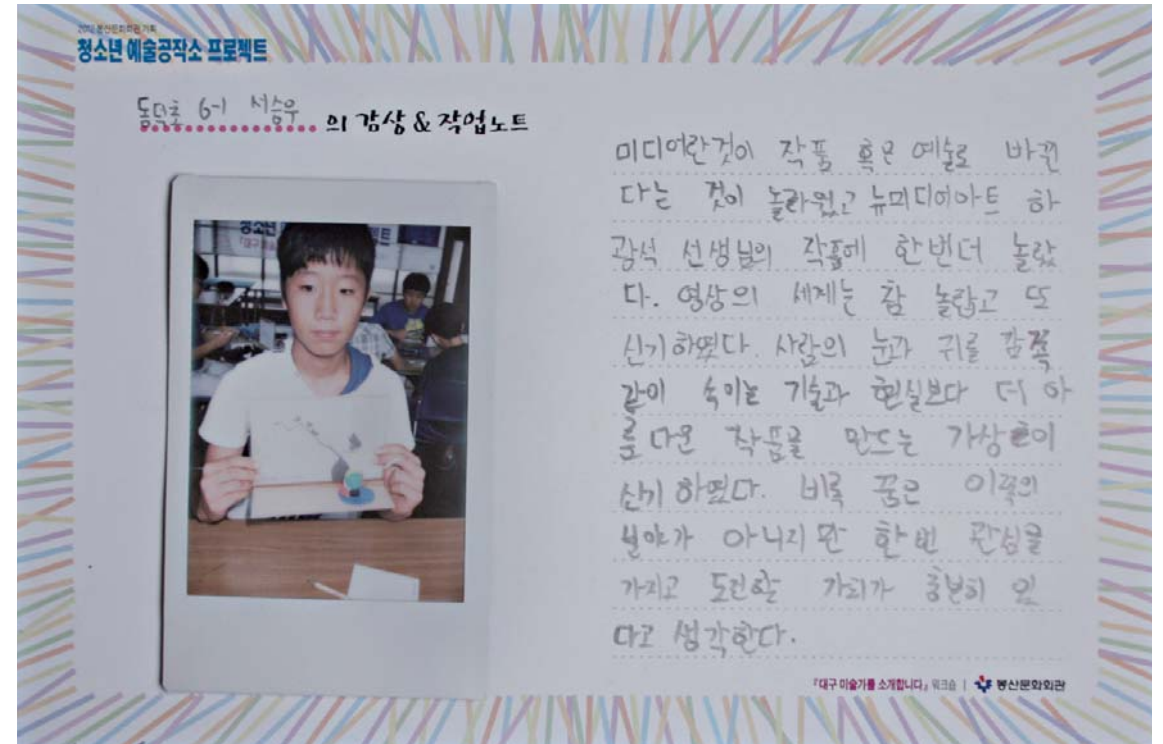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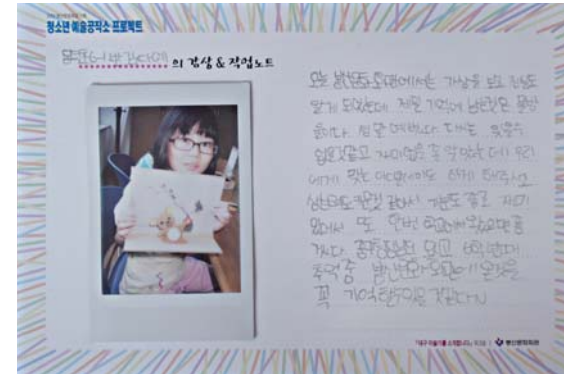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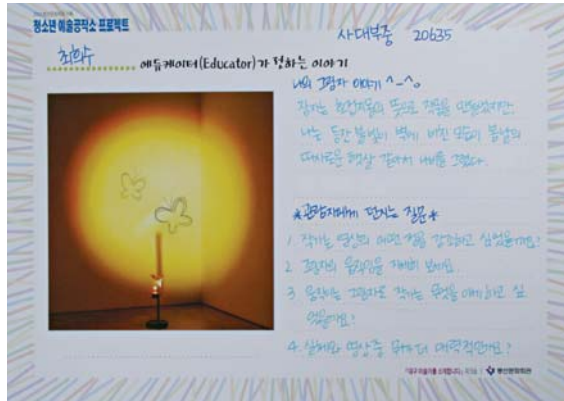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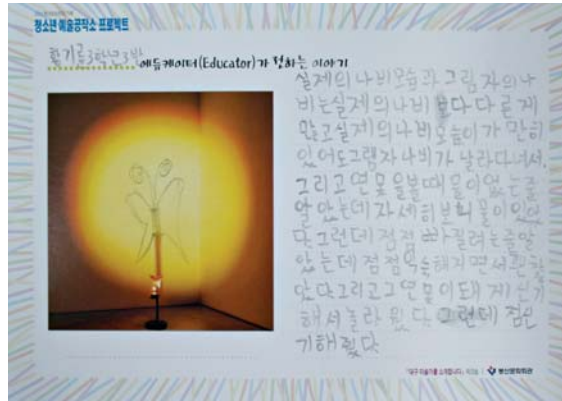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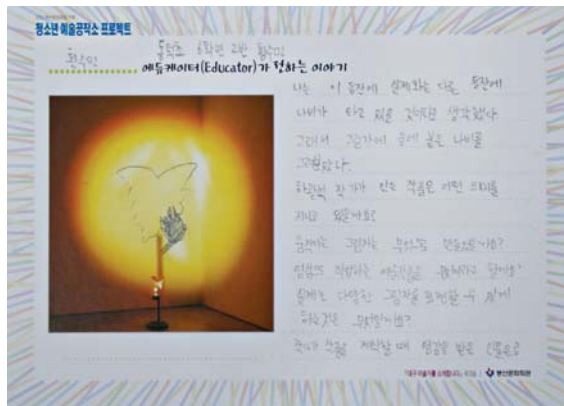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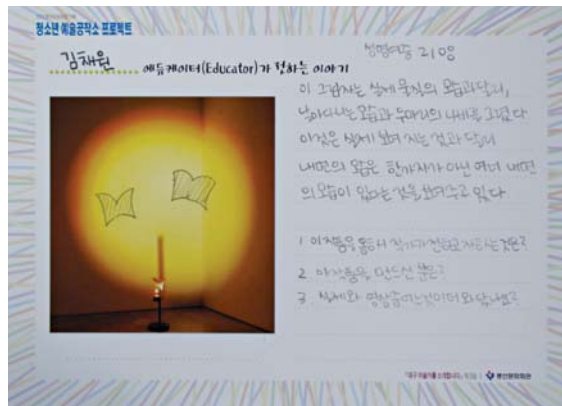
그림자에 대한 실제의 모습을 만든 작품을 영상에 비추어 실제와 비실체에 대한 나의 작품을 연출하고, 비교 감상 후에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작품을 서로 감상·토론한다.



[나도 에듀케이터 되어 보기]

미술관의 교육담당자(에듀케이터)가 되어 관람자들에게 전시를 안내하고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 실제의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영상의 것에 의존하여 실제로 더 실제처럼 치부되는 미디어 영상의 불완전함과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관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카드는 전시 기간 중 일주일 동안 전시실 입구에 비치하여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전시 감상문 작성하기]

'전시감상 & 작업노트'를 통해 전시감상, 표현, 에듀케이터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느낀 감상, 인상적이었던 점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보는 시간이다. 에듀케이터 카드와 함께 미니파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에듀케이터 에필로그

“Truth in Non-Reality” 하광석展 워크숍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듯 영상매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별다른 고민 없이 우리의 눈과 귀, 마음까지 깊이 파고드는 것이 미디어이고 특히 영상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하광석 작가의 영상작품은 어느 작품과는 달리 관람자의 시선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실제와 다른 그림자의 영상, 가공된 허상인 것을 알면서도 그 움직이는 나비 그림자의 다음 동작을 눈여겨보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 그것이 실체의 형태를 고스란히 비춰 주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게 되지만,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영상만이 가지는 마력인 것 같다.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 등잔대의 실제와 그림자간의 관계를 역자로 맞춰 보려다가 그것이 영상의 편집으로 속임수를 쓴 것임을 금방 알아차린다. 전시실 바닥에 전시되어 있는 불이 켜진 등잔대보다 벽면으로 투사되는 나비 그림자의 다음 동작으로 시선을 빼앗긴다. 영상의 비실체성, 진실보다는 허상의 아름다움으로 실체를 왜곡시키는 영상의 단면을 꼬집고 있는 작가의 의도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은 만화영화, 치킨 집 광고 전단, 햄버거 광고, 인터넷 쇼핑물 등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작가의 작품에 공감을 했다.

이와 같이 실체에 대한 진실과 왜곡, 과장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워크숍의 조형 활동 시간에는 왜곡된 그림자 영상의 실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움직이는 그림자 영상의 실제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해 보고, 그림자 영상 앞에 나란히 설치해 보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피카츄, 수박, 폭탄, 고목나무, 축구공 등 제각기 화병의 나뭇가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상상했다.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면서 작가의 메시지를 정리했을 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미 영상은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의 의식과 태도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 수업이었다.

워크숍 참가자 명단(총 170명)

대구초등학교 3-2, 3반 : 인솔교사 이윤정, 강태환 : 2012년 7월 10일 09:00 ~ 12:00 : 체험인원:41명
강나연 강지훈 고보영 공경민 과다현 김민주 김연진 김재민 김정은 김현민 김혜란 남우준 노보미 박성준 박시은 박유빈 박준후 서지원 상유나 송다현 유건우, 이도현, 이수민 이은현 이창률 장수진 전서윤 전상근 정민영 정정인 조상빈 조현준, 진재민, 진재훈 천병규 최상우 최찬욱 한주연 황기훈 황태리

대구초등학교 3-1반 : 인솔교사 홍상혜 : 2012년 7월 11일 09:00 ~ 12:00 : 체험인원:22명
관부연 김관욱 김동찬 김수연 김재현 김은수, 김은혜 마승우 박성희 상아현 손은지, 시현규 이서빈 이상민 이우성 이지윤, 이초은 전병민 조상민 주영우, 채준성 최자빈

강동중학교 한지공예반 : 인솔교사 김순미 : 2012년 7월 11일 13:00 ~ 16:00 : 체험인원:23명
강사현 강창은 김유리 김은득 김지용, 김지현, 김지혜 박준규 박지은 변영원, 사민지, 상정하 손유민 송재경 양재명 이강민, 이수빈, 이수진 이정훈, 이지훈, 전수민 최다현, 황유범

동덕초등학교 6-2반 : 인솔교사 나은주 : 2012년 7월 17일 09:00 ~ 12:00 : 체험인원:21명
강다영 강상민 최지은 김건호 김도경, 김수현, 박민석 박예윤 박진영 박희선, 신재민, 유재광 이도희 이상현 이수영 임찬영, 전현진, 조영민 조우진 최경재 황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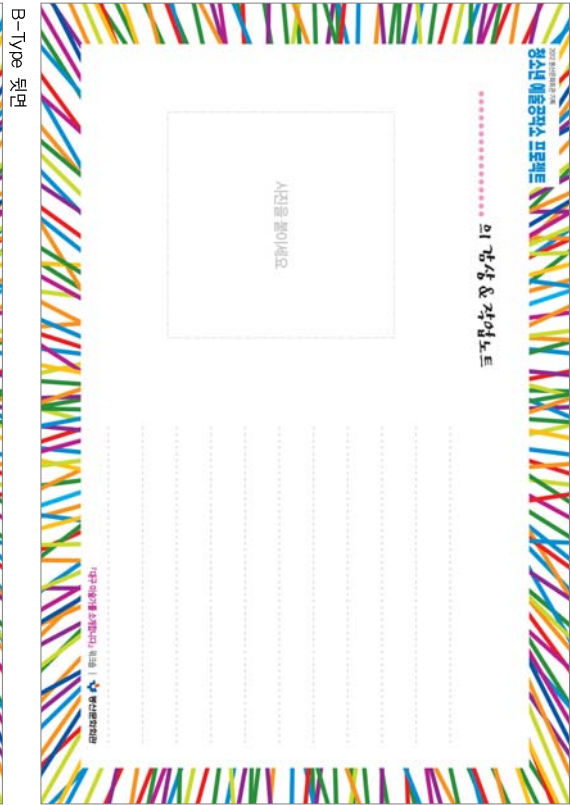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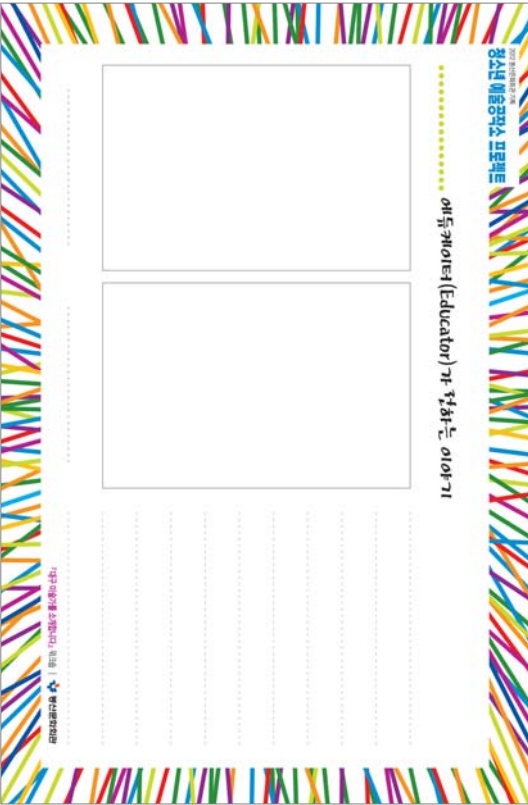
동덕초등학교 6-1반 : 인솔교사 이진영 : 2012년 7월 18일 09:00 ~ 12:00 : 체험인원:21명
구본재 권태훈 김경민 김규호 김다예, 김다정, 김민희 김형윤 박은서 서승우, 엄태훈, 유준혁 이도규, 이연수 임유섭 정도건, 정호영, 조민서 한동훈 황진규 황예슬

경북대학교 사립대학부설 중학교 미술창작반, 예술탐구반 : 인솔교사 박은진, 박정숙 : 2012년 7월 24일 09:00 ~ 12:00 : 체험인원:15명
관유리 김다진 김모정 김경민 박재현, 박형준, 성지하 이명진 이민우, 이서철, 이승현, 전태성 조예주, 차민준 최화수

성광여자중학교 미술반 : 인솔교사 이윤락 : 2012년 7월 24일 13:00 ~ 16:00 : 체험인원:5명
김재원 박민정 박지윤 서수정 이기민

고산초등학교 해바라기 방과 후 : 인솔교사 김윤경 : 2012년 7월 25일 09:00 ~ 12:00 : 체험인원:22명
김동현 김유민 김희연 박병준 박준우, 박준희, 박희연 신다란 신세희 안혜준, 전기연, 전하림, 전하민 정강민 정석영 정수아, 정해균, 최문영 최경민 최장범 최재욱, 한서준





A-Type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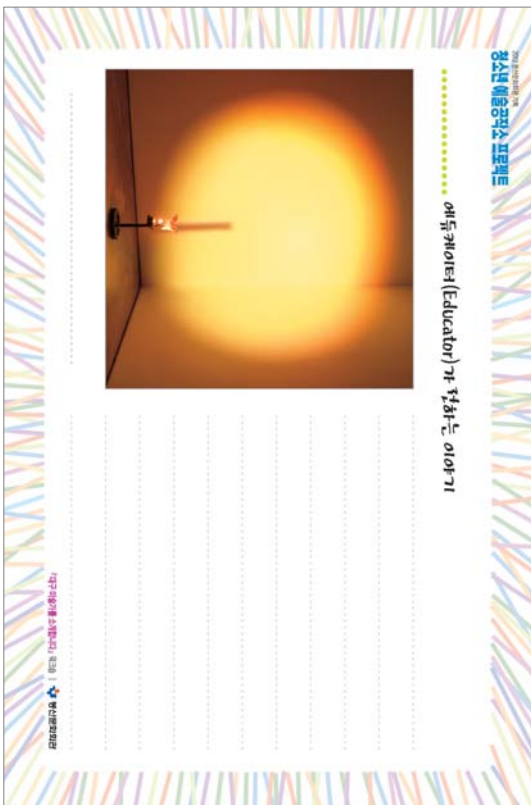
A-Type 뒷면



B-Type 앞면



B-Type 뒷면



A-Typ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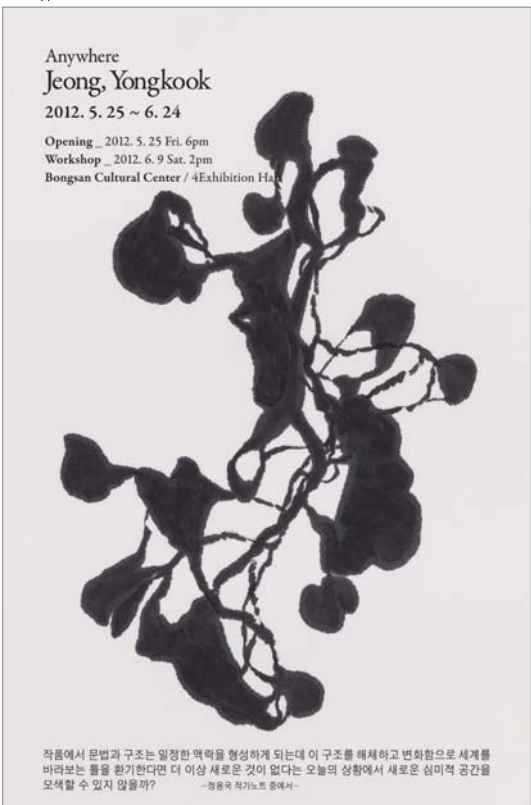
B-Type 뒷면



A-Type 앞면



B-Type 앞면



[청소년예술공작소 프로젝트 – 워크숍 대구미술가를 소개합니다] 설문조사

체험 참가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영진전, 정용국전에 각각 참가한 학생 213명 전원과 하광석전에 참가한 학생 170명 중 14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1. 평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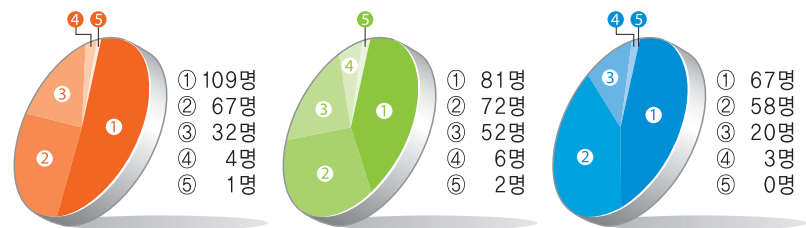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청소년예술공작소 프로젝트 – 워크숍 『대구미술가를 소개합니다』 미술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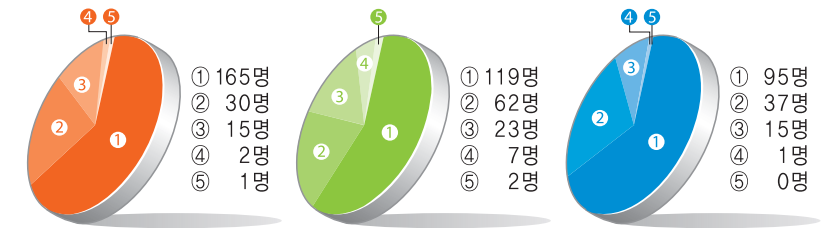
프로그램 수업을 통하여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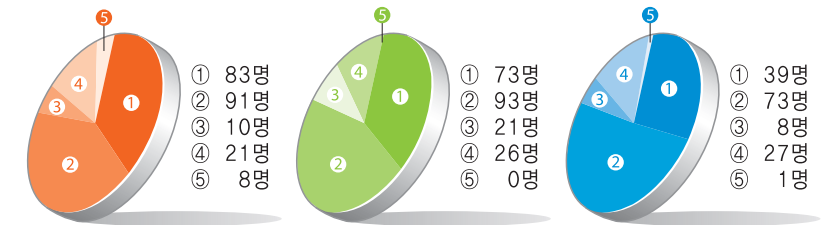
3. 청소년예술공작소 프로젝트 – 워크숍 『대구미술가를 소개합니다』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이 재미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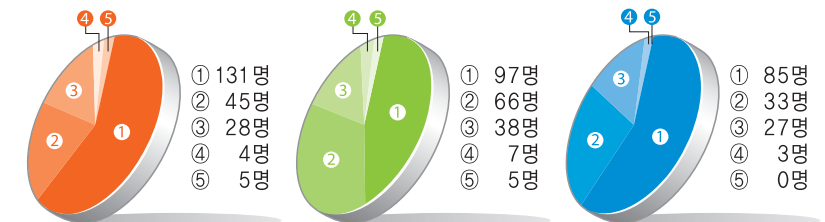
4. 청소년예술공작소 프로젝트 – 워크숍 『대구미술가를 소개합니다』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수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알지 못했던 작가에 대해 접할 수 있었음 ② 색다른 체험프로그램
③ 무료 교육의 기회 ④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음 ⑤ 기타



5. 향후에도 다른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놀면서 배우자

대구박물관·봉산문화회관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구지역 박물관과 공연장이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2013년 뽕따래를 맞 아 박물관을 찾는 유아가족 및 초등학교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열두 띠 동물 속에 담긴 뽕따래'를 진행한다.

띠 동물로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십이지동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띠 동물인 뽕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컬러클레이를 이용해 참가자 자신의 띠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교육기간은 13~28일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오전반은 초등학교 30명, 오후 2시에 열리는 오후반은 유아



봉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열었던 동일한 개념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청소년 예술공작소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모습. <봉산문화회관 제공>

(6~7세) 및 가족 3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053) 760-8580

봉산문화회관은 미술감상과 체험활동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에듀케이터@기억공작소.art' 워크숍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3년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상상력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전시와 연계해 현대미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처음 개최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2013년 기억공작소' 시리즈 중 김주연, 장준석, 김희선전과 연계해 진행된다.

봉산문화회관 정종구 전시기획담당은 "전시 중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며 작품 제작과정을 실기로 체험하는 워크숍이다. 감상한 작품 및 작가, 전시에 대해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에듀케이터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참가비는 없다. (053) 661-3081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작가와와의 만남' 등 체험전시프로그램 늘어

전시 패러다임이 바뀐다, 소통과 참여 중심으로

기존 전시와 하면 작가가 만든 작품이 전시장이나 화방에 내걸리고, 이를 시민들이 감상하는 형태였다. 생산자인 작가, 소비자 혹은 감상자인 시민들은 좀처럼 만날 일이 없고, 이렇다 보니 작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도 거의 없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해도 그림의 유희를 책임지는 화랑 등에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전시의 패러다임에 최근 변화가 일고 있다. 작가와 감상자가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랑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등을 만들어 작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등을 통해 작품의 이해를 높여주는 전시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봉산문화회관은 기획전으로 매년 열고 있는 '유리상자 아티스트'와 '기억공작소'의 전시 오프닝 때 늘 '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를 연다.

일반적으로 전시오프닝에는 작가의 지인들만 참석하는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일반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기회가 됐다. 작가가 전시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봉산문화회관 정종구 기획담당은 "아직 일반 시민의 참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작품을 감

작가와와의 대화의 장
작품의 단편적 감상 넘어
기획·전시에도 폭넓게 이해

대중동 벽화그리기 작업 등
'주민참여 프로젝트'도 눈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가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미술작품을 만들어 가는 사례도 있다. 최근 대구미술협회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벽화작업인 '우리 동네 아티스트리만들기사업'을 지난달 29일부터 대구시 중구 대동2동 대동성당 뒷골목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두운 이미지를 주기 심상인 주택가 골목에 미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동네주민들



현재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억공작소'의 전시작가인 김주연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봉산문화회관 제공>



대구미술협회가 지난 3월 대동2동 주민들과 함께 벽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미술협회 제공>

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 주민대표와 벽화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눈 뒤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물론 주민참여 프로젝트도 만들게 됐다.

지난 3월 벽화그리기 작업에 동네주민들이 작가와 함께 벽화를 만들어 가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포함한 일반 주민 20여명, 대동2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7명, 통장 6명 등 총 30여명이 작가들과 함께 벽화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김영순씨(50)

는 "자주 지나가는 골목에 동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흔적을 남기고 두고두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에 벽화작업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 동네가 약간 어둡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서 밝은 이미지가 될까 싶은 것 같아 좋다"며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건이 안 돼 다가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계기로 체험을 할 수 있어 기쁘다. 내가 사는 동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끼 있는 새싹' 예술혼 일깨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봉산문화관 청소년 공작소

오페라·악기 등 8개 강좌

내달 9일까지 초·중·고생 대상

예술인·전문가 직접 지도

지역 미술가 전시·체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대구문화예술회관아카데미는 지난 4월 2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총 8과목의 강좌를 운영 중이다.
바리튼 이인철의 지도로 진행되는 '오페라&가요교실'인 '樂-樂-다 함께 소리내 보아요'는 가곡과 오페라 곡에 얽힌 스토리를 들으며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성악가의 지도로 직접 노래를 배워보는 강좌다. 수강생 조순옥(56)씨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노래를 배우고 불러볼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에도 좋고 친구들도 사귀기 있어 일석삼조의 것 같다"며 예전론을 펼쳤다.

음악평론가이며 KBS 대구 1FM '노래의 날개'에 클래식 코너의 진행자인 최영애의 '문화예술 길라잡이'인 '문화 상식을 알면 예술이 보여' 강좌는 클래식, 그림, 연극, 무용 등 전반적인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강좌에는 흥선으로 인한 임시 휴일인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출석해 열의를

보였다. 수강생 이원철(40)씨는 "이번 주는 오페라에 대해 배웠으니 회원들과 오페라 한편 감상하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다.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나만 배우는 악기' 강좌는 바이올린과 색소폰, 플루트, 기타 등 4개의 악기 강좌로 개설됐다. 특히 바이올린과 색소폰은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이 강사로 참여하고, 플루트와 기타 강사도 겸직받은 외부 강사로 구성됐다. 악기교실은 실기수업이 원칙인 만큼 기타와 색소폰은 각각 7명, 바이올린과 플루트는 각각 4명으로 제한해 소수 정예반 맞춤형 개인레슨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좌에 참여 빠질 수는 없다. '한 번 들으면 못 빠져 나온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대구시립무용단 김현진·박혜선 단원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댄스', '웨빙댄스' 강좌는 수업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는다. 특히 다이어트 댄스는 선생님의 표정, 몸짓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수강생들로 열의가 넘친다.

한편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8개 강좌 중 기타교실 강의모습.

미 제1기는 악기교실을 제외한 전 강좌가 수시모집 중이다. 제2기 모집은 6월 초 예정이다. (053) 606-6345

◇봉산문화회관 청소년 예술공작소 프로젝트 워크숍

청소년 예술공작소 프로젝트인 '대구 미술가들 소개합니다' 워크숍은 지난 1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수요일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삼덕초등학교 학생 72명과 대구초등학교 학생 147명이 참여한다.

이 워크숍은 상상력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와 창의적인 인재양성, 학교

교육에서 미흡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의 예술가와 청소년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참여문화에 기여하고, 전문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해 지역 인력자원의 성장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워크숍은 기획전시 '기억공작소-김영진전'의 감상과 이해를 돕는 교육자 체험 워크숍으로 마련됐다. 진행방식은 전문 교육자 5명이 참가해 워크숍 체험을 3시간 동안 진행한다.

'김영진전'의 체험 주제는 '양면성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이다. 이 전시는 양과 음, 낮과 밤, 앞과 뒤 등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양면적 현상에 대해 단절되고 대립적인 시각이 아닌 존재의 인정과 공존, 어울림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상의 물건들에서 양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의 차이와 관계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체험이 이뤄진다.

한편 참여작가 6명도 진행되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체험프로그램인 특별워크숍도 오는 21일 오후 2시 봉산문화회관 2층 제4전시실에서 함께 진행된다. (053) 661-3517

홍인목기자

무더진 도시인 감성 적시는 체험전 2편

매화, 개나리, 벚꽃, 라일락이 활짝 피는 봄을 티터며 겨나한 꽃 잔치를 벌였다. 5월이면 꽃의 여왕 장미가, 6월에는 은은하고 소담스러운 수국이 무더진 도시인의 감성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할 것이다.

지천 영혼을 어루만지는 데 자연보다 좋은 것이 또 있을까하는 예술의 내공도 만만찮을 듯 싶다. 거장들이 음악으로 예전만 귀로 듣는 자연도 아렘다를 것이고, 캔버스 속 화가들이 담아 놓은 눈으로 보는 봄 풍경도 황홀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불러보고 그려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보는 체험하는 예술은 또 어떤 향취로 다가올런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예술아카데미와 봉산문화회관의 청소년 예술공작소 프로젝트에서 답을 찾아도 좋을 것이다.



봉산문화회관 청소년 예술공작소 워크숍 참여작가 김영진전 '기억공작소' 전시작.

봉산문화회관 청소년 예술 워크숍

◇봉산문화회관은 다음달부터 '청소년 예술공작소 프로젝트 에듀케이터 워크숍'을 진행한다.

단순히 전시를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워크숍 체험, 전시작품 소개 페이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예술과 예술가들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종구 봉산문화회관 전시기획담당은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전시를 대상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품 제작 등 체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며 "자신이 체험한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감상용 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세다르게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 대상 전시는 김영진전(4월13일~5월13일), 정영국전(5월25일~6월24일), 하광석전(7월6일~8월5일)이다. 각 전시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학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내 초·중·고교 24개 학급의 신청을 받는다. (053) 661-3081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봉산문화회관 '청소년 예술공작소' 워크숍 신청

봉산문화회관이 2012년 기획으로 열린 '청소년 예술공작소 프로젝트'와 '대구 미술가들 소개합니다'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시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자의 이해를 돕는 작품 제작 과정 체험 워크숍인 '체험형 전시감상' 워크숍과 자신이 체험한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페이퍼(전시 감상 가이드) 작성 체험 프로그램인 '에듀케이터 역할 체험' 워크숍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예술교육 활성화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문화예술 연구의 지면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중·고교생 24개 학급의 신청 접수 및 선발도 진행된다. (053) 661-3081

홍인목기자 hio@daegu.co.kr

주최 봉산문화회관

후원



※ 본 사업은 2014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2-2014

청소년 에듀케이터@ 기억공작소.art

봉산문화회관 전시&워크숍 연구자료집

전시 작가

김구림 김영진 김주연 김희선 안창홍 장준석 정용국 하광석

기획·진행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정종구

진행지원 김영숙

에듀케이터 김중희 김지희 노성경 박소현 서민정 석아름 신재희 이기선
이미지 이시은 임민영 임은경 장태영 전해주 최인숙 황해인

발행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윤순영

발행처 봉산문화회관

편집인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

행정총괄 정병용 박기범

행정지원 김지영 이정희 이현희 김동철 박경호 권민수
정선영 이윤성

사진 김중희 임민영

디자인 예술과 놀이 Art & Play

발행일 2014년 12월 12일

© Copyright 2014 BONGSAN CULTURAL CENTER

본 연구자료집은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으로 제작·발행되었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봉산문화회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CIP2014035111)



봉산문화회관 BONGSAN CULTURAL CENTER

700-823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7

t. 053 661 3500 f. 053 661 3509 www.bongsanart.org

@bongsanart

bongsanart